

해부의 황상으로 빛주춤에도 범죄함으로 인하여 죽을 수밖에 없는 인간들을 구원하시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니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그러나...



그런즉 너희 마음을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 화합하여 완전케 하여 오늘날과 같이 그 법도를 행하며 그 계명을 지킬찌어다 (열왕기상 8:61)

L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56 Email: LA@chpress.net

www.chpress.net

주후 2014년 12월 6일 (토) 제 1512호 사시: 바른신학 바른교회 바른생활 바른선교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종갈등 없는 세상 만든다!

CT, 퍼거슨 사태에 대한 복음주의자들의 대안 제시

18세 비무장 흑인 청년을 총격 사살한 백인 경관을 불기초 처분하면서 전국적 항의시위로 번진 미국 '퍼거슨 사태'는 미국 사회에 뿌리 깊은 인종 갈등을 다시 전면에 부각하는 동시에, 흑인사회를 범죄집단 시 한다는 비판을 받아온 미국의 사법제도를 도마 위에 올렸다.

특히 공공장소와 취업, 법률 등에서 흑인의 차별을 금지한 민권법(the Civil Right Act Of 1964) 제정 50주년을 맞은 올해 미국은 여전히 인종 갈등이라는 족쇄를 풀지 못했다.

"The Unified Family of God"

미 의회가 1964년 시민권법을 통과시킨 지 50년이 지났다. 그동안 도시 빈민가 흑인들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헤아릴 수 없이 많은 공공 및 민간 지출과 소송, 학계연구, 문화상품 및 서비스, 다양한 여론이 있었다.



퍼거슨 사태가 지역적 문제를 떠나 확대되는 시점에 기독교인들이 화합의 대안을 제시했다. 현재 우리가 퍼거슨에서 목도하는 것, 그것은 1967년 디트로이트와 뉴약에서, 1965년 LA 왓츠에서, 그리고 1966년 클리블랜드 휴에서 벌어졌던 사태와 다르지 않다.

회복되지 못했다고 주장한다.

그 이유는 바로 미국에서 "흑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불평등이라는 족쇄를 안고 사는 것"과 같다는 엄연한 사실에서 먼저 출발한다.

크리스티니티투데이(CT)는 18세 소년 마이클 브라운의 사망 이후 흑인, 백인 복음주의 진영에서 쏟아진 역사적인 사실들을 통해 얼마나 피부색이 다르다는 이유로 아직까지도 차별이 빈번하게 행해지고 있는지를 증언한다.

1984년 흑인 민권운동가 이다 B. 웰스(Ida B. Wells)는 백인들에게 흑인들을 더 이상 법적 절차 없이 폭력을 행하는 부정을 고발했다. 백인 크리스천들은 자신들은 지옥 불에서 건짐을 받았고, 아직도 지옥 불에서 고통 받는 흑인들을 구해야 한다는 일종의 사명감(?)에서 시작된 "백인만의 복음"이 바로 흑인들의 삶이나 가치관을 철저히 무시하면서 린치(Lynch)가 시작되게 된 배경을 전했다.

1963년, 마틴 루터 킹 Jr. 목사는 버밍햄 감옥에서 백인 크리스천들에게 흑인 인권운동들을 비판하는 것을 자제하고, 대신 왜 흑인들이 인종 갈등과 불평등에 대해서 말하는가에 대한 근본 원인을 조사해볼 것을 촉구했다.

오히려 백인 극우 인종주의자들은 버밍햄 16가 청교회에 폭탄을 던져 4명의 어린 흑인 소녀들을 죽게 만들었다.

바로 지난여름, 17세 흑인 소년 마틴(Trayvon Martin)을 총격 사살한 조지 진머만 사건 역시 '정당방위'로 배심원들의 판결에, 또 다시 흑인 교회들을 비롯한 인권단체들이 일제히 사건을 다시 조사해줄 것을 일제히 요구했다.

(3면으로 계속)

부모들, 온라인 세계의 자녀 안전 너무 믿는다!

뉴스위크, '미 가족온라인안전협회(FOST) 조사 지나친 낙관에 비판' 제시

"정보의 요람"이라고도 하는 인터넷은 좋은 정보와 문화가 자리 하지만 음성적인 것들도 무궁무진하게 존재 한다. 일명 "야동"이라고 불리는 불법성인물과 '유튜브'라는 UCC 영상매체들을 통해 폭력과 동시에 잘못된 성에 관한 지식으로 자라나는 어린 청소년과 혹은 성인들까지도 부정적인 영향을 받게 된다.

특히 부모들은 자녀들이 매일매일 접하는 인터넷 사용과 콘텐츠 선정에 관심과 주의를 갖고 신경을 써야 할 중요한 과제다.

그런데 뉴스위크지는 최근 미국 부모들의 위험불감증 즉 자녀들이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믿는 부모가 90%를 웃돌았다는 연구 조사 결과에 대해 경종을 울렸다 (Is Your Kid Safe Online?).

부모 93% "자녀 온라인 안전"에 경종 "인터넷=스스로 자신 보호해야 하는 또 다른 세상"

식당이나 극장같이 많은 사람들이 모이는 장소나 가정에서 이제는 태블릿을 갖고 노는 유아, 노트북을 만지작거리는 어린이, 아이폰에 매달리는 청소년들, 어딜 가나 볼 수 있는 장면이다.

가족온라인안전협회(FOST)가 11월 12일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자녀가 온라인에서 어느 정도 안전하다고 믿는 부모가 93%에 달했다. 자녀가 "대단히 안전하다"고 여기는 비율도 37%나 됐다.

중종 부모들은 자녀의 안전을 실제보다 과대평가하는 경향이 있다. 인터넷 안전 그룹 '이제 그만'의 사장 겸 CEO인 도나 라이스 휴즈의 지적이다.

(3면으로 계속)



2면

국제경찰로서의 미국 외교정책 계속되어야!



7면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정성구 박사(ICSK원장)



13면

선교의 창 송중록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16면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통한... 노봉린 박사



KIM Mission -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

KIM Ministry Mentors

Grid of portraits and names of KIM Mission mentors, including 장동찬 목사, 김윤환 목사, 김승년 목사, 강태광 목사, 박영배 목사, 손찬식 목사, 김용식 목사, 전광성 목사, 배두배 김선교사, 임이근 장로, 최도문 박사, 강태원 장로, 송하균 장로, 루지훈 대표, 황정규 집사, 송동우 박사, 정정원 박사, 이광현 장로, 이원구 안수집사, 임재원 집사, 임소영 자매, 강동철 집사, 이순권 박사.

KIM Mission

KIM Mission은 지난 13년간 진행 되어 온 미션 퍼스펙티브스 한국어 세미나를 수료한 사람들로 구성된 제2의 헌신 선교공동체입니다. 김 미션은 전 세계 디아스포라 한인선교 네트워크를 이루어 나가며 다양한 모양으로 선교사님들과 협력하여 선교현장 사역을 섬기고 있습니다.



"Expect great things from God, attempt great things for God, 하나님으로부터 위대한 일을 기대하고, 하나님을 위해 위대한 일을 시도하라!" - 윌리엄 캐리 (William Carey)





시론

“위장된 언약을 파기하라”



최동진 목사
(샌디에고 반석장로교회)

얼마 전 애플의 최고경영자(CEO)인 팀 쿡이 블룸버그 비즈니스위크지에 “나는 동성애자라는 사실이 자랑스럽고 이는 신이 내게 준 선물이다”라고 생각한다고 커밍아웃을 했다. 최고경영자가 동성애자임을 공개한 일은 세계 500대 기업 중 처음이고, 애플은 기업가치 세계1위의 기업이다. 커밍아웃 이전부터 쿡은 동성애 매체에서 세계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동성애자 1위로 꼽혀왔다. 첨단과학과 IT문화의 아이콘인 애플사의 CEO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발표했다라는 점에서 갈수록 동성애 문화는 더욱 더 정치, 문화, 종교적인 면에서 그 영향력은 더욱 크게 확산

될 것을 의심치 않게 한다. 이미 미국에서는 2003년 매사추세츠 주를 시작으로 32개 주와 워싱턴DC, 몇몇 아메리칸 원주민 지역이 동성결혼을 허용하고 있는 형편이다. 지난해에는 연방대법원이 연방정부가 제공하는 결혼혜택을 ‘남녀부부’에게만 한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판결을 내렸다. 연방법원이 동성결혼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아니라고 하지만, 이것은 사실상 동성결혼의 허용을 시사하고 있는 것이다. 필자가 살고 있는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2010년 동성결혼을 금지하는 ‘주민발의안8’을 연방법원이 기각해 효력을 정지시킴으로써 사실상 동성간 결혼의 길을 터주었다. 이제 동성애는 현대 정치와 문화, 종교와 경제를 하나로 융합하는 아이콘으로 담당하게 자리잡아가고 있음을 보게 된다.

그런데 동성애를 현대문화의 한 단면으로만 인식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것은 문화 속에 침투하고 있는 사단의 교묘한 전략을 간과한 인식이다. 설령 애플사의 팀 쿡이 자기 나름대로 선한 의도로 커밍아웃했다손 치더라도 애플사가 만들어가는 첨단과학과 현대문화 속에 동성애를 확산시키고자 하는 사단의 계략에 속아 넘어가고 있는 셈이다.

하나님은 자기의 형상대로 인간을 창조하시고 한 남자와 한 여자가 한 몸을 이루도록 언약하셨다(창2:23-24). 그러나 사단은 이미 에덴동산에서부터 하나님과의 창조 언약(창2:16)을 파괴하도록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였으며 그들이 먹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오늘날 보통 사과로 인식되어오고 있는데, 교묘하게도 애플사의 창업명이 되었으며, 그 언약을 파기한 모습으로 사과의 한 입 베어 먹은 모습이 현재 애플사가 쓰고 있는 로고이다.

애플로고에 대해서는 다양한 의견들이 있지만, 그 중의 하나가 수학자 앨런 튜링의 ‘사과’라는 의견이 있다. 튜링은 1912년 영국에서 출생한 수학자이며 ‘컴퓨터의 아버지’라 불리는 컴퓨터 과학자였다. 그러나 그는 1952년 당시 동성애자라는 혐의로 기소되었는데, 실험대신 화학적 거세를 선택하게 되면서 마침내 수모를 견디지 못해 1954년 청산가리가 묻은 사과를 베어먹고 자살하기에 이른다. 컴퓨터의 아버지인 튜링을 기념하기 위해 애플사의 로고가 되었다고 한다. 물론 애플의 창업자인 스티브 잡스는 이 사실을 부인했다고 하지만, 한입 베어먹은 애플의 로고는 하나님의 창조 언약을 파기하는 아담의 모습을 연상하기에 충분하다.

그런데 한 때(1976-1998), 애플 로고 안에는 무지개 색이 담겨져 있었다. 원래 무지개는 노아 언약에 등장하는 상징적 은유(metaphor)이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보고 자기들의 좋아하는 모든 자로 아내를 삼는 음란한 세상을 홍수로 심판하시고 난 후에, 하나님의 공로로 그의 백성들을 보존하시겠다고 하는 노아 언약의 상징으로 무지개를 구름 사이에 두셨다(창9:13).

공로롭게도 애플사의 로고는 한입 베어먹은 사과 안에 오늘날 동성애자들의 엠블럼이 된 무지개를 색칠해 넣었다. 하나님의 언약 안에 거하는 그의 백성들을 보존해주시겠다는 무지개 언약의 징표를 교묘히 위장하여 동성애자들을 마치 성 소수자들로 보호하고 보존하려는 또 다른 무지개, 위장된 언약의 증거로 둔갑시킨 것이다. 이것은 마치 아담이 언약을 파기하고 난 후에 스스로 부끄러움을 가려보려고 무화과 나뭇잎을 따서 옷을 해 입은 격이 된 것이다.

오늘날 우리는 정치, 사회, 문화, 경제, 과학, 교육 모든 분야를 막론하고 위장된 언약의 고리들이 서서히 하나님의 나라 안으로 침식해 들어오고 있음을 직시해야 한다. 너무 가까이 은밀하게 옥조이고 있기에 자칫 경건의 훈련을 게을리 하면, ‘가마솥의 개구리’(Frog in the Kettle - George Barna)처럼 서서히 죽음에 직면해서도 헤쳐나갈 힘을 상실하고 마침내는 점령당하게 되는 것이다. 위장된 평화, 위장된 복음, 위장된 언약을 파기하고 언약의 성취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가죽 옷을 입어야 한다(창3:21). 말씀과 기도도 지켜내야 할 진정한 언약, 예수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 외에 다른 대안은 없다. 점령하지 않으면 점령당하는 것을 기억하자.

국제경찰로서의 미국 외교정책 계속되어야!

WSJ, 국제경찰 포기 ‘오바마 독트린’ 비판과 미국 외교정책 제시

지난 5월, Barack Obama 미국 대통령이 외교정책의 방향을 담은 ‘오바마 독트린’을 발표했다. ‘꼭 필요한 경우에만’ 다른 나라와 협력을 통해 무력을 사용하겠다는 것이다. 이는 9.11테러 이후 적극적으로 선제적인 군사행동을 하겠다는 부시 독트린을 뒤집는 것이었다. 다시 말해서, 미국이 더 이상 국제경찰의 역할을 하지 않겠다고 천명한 것이다. 당연히 미국 내 대다수 언론은 오바마 독트린을 비판했다.

오바마 대통령의 논지는 이제는 더 이상 군사행동이 미국의 리더십을 보여줄 유일한 방법은 아니고 또한 미국이 약해 보인다는 비난을 피하기 위해 군대를 파병한다면 내 의무를 저버리는 일이 될 것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앞으로 오바마는 군사개입을 하더라도 단독으로는 하지 않을 것이며 국제기구와 다른 나라의 협력을 통한 집단행동을 통해서 하겠다는 것이다.

오바마 독트린은 큰 반향을 일으켰다. 시리아 사태와 우크라이나

사태 등 오바마 외교력이 한계를 드러낸 상황에서 미국의 영향력을 축소하는 듯 한 오바마의 발언에 비난의 화살이 집중됐다. 여기에 이라크에서의 이슬람국가(IS)의 창궐로 인한 중동 정세의 불안이 확대되자, 세계 2차 대전 이후로 70년 동안 유지해온 “국제경찰”로서의 미국의 위상에 대한 재해석과 요구가 증대되고 있는 시점이다.

따라서 월스트리트저널에서 매주 ‘국제 외교(Global View)’ 칼럼을 게재하고 있는 브렛 스티븐스 논설위원(21013 풀러치상 수상)은 미국은 국제경찰로서의 외교 정책을 수행해야 한다고, 오바마 독트린에 대한 반론(Yes, America Should Be the World’s Policeman: Bush did too much and Obama too little-but a ‘broken-windows’ model of U.S. foreign policy can be just right)을 제기한다(2회에 걸쳐서 연재한다).

미국의 외교 정책을 들여다보면 ‘곰발머리 소녀와 곰 세 마리’라는 동화가 연상된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자유와 민주주의 확산을 통해 전 세계 폭정을 종식시키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한 ‘자유 의제(freedom agenda)’라는 오프믹스 죽은 너무 뜨거웠다. 반면 리셋(reset)과 피벗(pivot) 등 화려한 수사를 강조한 버락 오바마 대통령의 외교 정책이라는 오프믹스 죽은 너무 차갑다.

우리에게는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딱 좋은(just right)’ 외교 정책이 필요하다. 너무 야심만만하지도, 너무 잠잠하지도 않은 외교 정책 즉, 필요할 때는 단호하면서도, 구제불능의 사회를 모



태였다.

뉴욕타임스(NYT)는 미국 법무부 보고서를 인용하면서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된다면 폭력 범죄를 저지른 미성년자 체포는 2010년이 되면 2배 늘어날 것”이라고 보도했다. 그러나 그 같은 추세는 계속되지 않았다.

1990년 뉴욕시에서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 30.7건이 일어났다. 2012년에는 인구 10만 명당 살인 5건이 발생했다. 미국의 다른 대도시에서도 상황은 비슷했다. 교권 실추, 파손된 주택, 빈곤, 총기 소지, 실업 등 범죄를 야기하는 요인으로 알려진 것들은 10년 전이나 10년 후나 별로 달라질 것이 없는데도 불구하고 범죄율이 하락한 것이다.

외교력 한계 보인 오바마, “단독 군사행동 안하겠다” 논란 미국 치안정책 ‘깨진유리창이론’ 세계 질서잡기 성공 기대

두 치유하지는 유독피어적인 이 상에 사로잡혀 스스로를 너무 혹사하지 않는 신중한 외교 정책 말이다.

냉전 종식 후 세계 질서에서 미국은 엄청난 부담을 느끼고 있다. 2011년 이후 아랍권 4개국이 정권이 잇따라 붕괴했다. 유럽연합(EU)은 연이은 경기침체로 휘청이고 있다. 중국은 자기주장이 강해졌다. 러시아는 주변국으로 세력 확장을 꾀하고 있다. 북한과 이란은 핵무기 개발에 여념이 없다. 설상가상으로 알카에다 핵심 세력이 쇠퇴하는 와중에 이슬람국가(IS)가 새롭게 부상했다.

이라크와 아프가니스탄에서 쓸쓸한 경험을 한 이후로 미국은 해외에서 일어나는 갈등 상황에 개입하기를 꺼리는 모습이다. 개입해봤자 미국인의 인명 피해가 크고 전략적으로도 얻을 것이 별

로 없다고 보기 때문이다.

미국이 단호하게 대응할 것이라는 두려움이 없다 보니 독재정권들은 영토 야욕이나 전략적 야욕을 추구해도 된다고 생각하는 것 같다. 또한 전후 팍스아메리카나(미국의 지배에 의한 평화)가 예전처럼 안정을 보장해주지 않는 분위기에서 이스라엘과 사우디아라비아, 일본처럼 미국의 전통적 우방국들은 조용히 제 살 길을 모색하고 있다.

미국 대통령은 야심만만한 불량 국가들과 불안에 떠는 우방국들로 이뤄진 세계를 어떻게 헤쳐 나가야 할까?

질서 복원에 관해 이미 입증된 모델이 하나 있다. 그런데 이 모델은 외교정책에 관한 것이 아니라 도시 치안에 관한 것이다.

1991년은 미국 외교정책이

승리한 해였다. 그해 미국은 걸프전에서 승전보를 울렸고 구소련은 붕괴했다. 하지만 미국의 범죄라는 기준에서는 끔찍한 해였다. 성폭행 10만6,590건과 살인 2만4,700건 등 범죄 무려 110만 건이 발생했다. 모든 카테고리에서 범죄는 1년 전에 비해, 그리고 10년 전에 비해 증가한 상

대체 무슨 일이 일어났을까? 경찰은 범죄 활동의 패턴을 추적하는 새로운 기법을 개발했다. 1992년에서 2008년 사이에 사법당국 관계자는 14만1,000명(25%) 증가했다. 1990년에서 2000년 사이에 성인 수감률은 2배 가까이 증가했다.

(3면으로 계속)

미주크리스천신문 ■ 발행인 겸 편집인: 정영춘
The Korean Christian Press ■ 편집국장: 유원정

· L.A. Office
601 N. Vermont Ave. #202, Los Angeles, CA 90004
Tel: (323) 665-0009(대 표) (323) 665-9025(광고국)
Fax: (323) 665-0056(편집국) (323) 665-0046(광고국)
E-mail: la@chpress.net

· N.Y. Office
143-17 Franklin Ave. #206 Flushing, NY 11355
Tel: (718) 886-4400(대표) (718) 886-4424(편집국)
Fax: (718) 886-0074(대표)
E-mail: ny@chpress.net

The Korean Christian Press(USPS 746-070) is Published Weekly(every Saturday) except for April 21, and Dec. 29. \$100.00 per year by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Periodical postages are paid at Los Angeles, CA. POSTMASTER: Send address change to The Korean Christian Press,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글로벌 인재 발굴과 양성을 실현하는

Midwest University

Founded in 1986 www.midwest.edu

학위취득방법 Study Options

- On Campus 강의**
유학생을 위한 SEVIS I-20 발행
- Online 강의**
세계 어느 곳에서든지 시간과 장소에 구애 없이 학위취득 가능
- Blended 강의**
소집강의와 Online 교육을 병행하면서 학위취득 가능

학위과정 Degree Programs

- ESL Program**
- Bachelor Degree Programs**
Bachelor of Religion in Theology (Concentrations in: Biblical Studies, Christian Education)
Bachelor of Religion in Music
Bachelor of Religion in Business Administration
- Master Degree Programs**
Master of Christian Counseling
Master of Christian Education
Master of Church Music
Master of Mission Languages in TESOL
Master of Divinity
- Doctoral Degree Programs**
Doctor of Ministry (Concentrations in: Christian Counseling, Christian Education, Mission Studies, Pastoral Theology)
Doctor of Church Music
Doctor of Christian Leadership

* 자세한 문의는 전화(636)327-4645 또는 이메일 usa@midwest.edu로 연락바랍니다.

Main Campus
851 Parr Road, Wentzville, MO 63385 U.S.A.
Tel: (636)327-4645 / Fax: (636)327-4715
E-mail: usa@midwest.edu

Washington DC Site
5103-A Backlick Rd. #24, Annandale, VA 22003
Tel: (571)730-4750 / Fax: (571)730-5751
E-mail: wdc@midwest.edu

하나님 안에서 한 가족으로 인종갈등 없는 세상 만든다!

(1면에서 계속)

그러나 미국 사회에서 소수 세력인 흑인들만의 역량으로는 역부족이기에, 백인 크리스천들에게 동참을 호소했으나 이 역시 무산됐다. 항상 동참을 호소하나 시간이 지나면서 잊혀지고 그냥 지나간 사건으로, 흑인들의 문제는 치부됐다.

1년이 지나 마이클 브라운이 살해되고, 피거슨의 흑인 시민들이 거리로 나오고 그리고 주방위군이 이를 진압하는 폭동이란 모습으로, 미국사회의 흑백문제는 또 다시 분출됐다.

퓨리서치 센터의 설문 조사 결과 역시, 피거슨 사태를 바라보는 흑백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80%의 흑인들은 바로 인종 갈등이 주원인이라고 응답한 반면에, 37%만의 백인만이 이에 동조하고 있다. 이러한 차이가 바로 미국 사회다.

미국사회가 흑백갈등으로 아픔을 겪을 때, 많은 백인들은 침묵이나 방관으로 아니면 화살을 흑인 커뮤니티에 돌리곤 했다. 그러나 이제는 그러한 지적 질이나 잘못을 떠넘기기로 미국의 발목을 걸어서는 안된다. 독립선언문에서 분명히 천명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주신 모든 사람의 평등과 권리("all men are created equal and endowed by their creator with certain unalienable rights")라는 이상이 지켜질 수 있



도록 피부색을 떠나 하나님 안에서 하나된 가족이 돼야 한다.

성경에도 분명하게 나와 있다(마12:50, 눅13:30, 빌2:1-3, 2:5-8). 하나님의 하나 된 가족으로서, 우리는 미국사회를 아프게 하는 인종갈등을 온전하게 이해하며 문제점들을 개선할 수 있다. 신학자(Curtiss DeYoung), 사회

학자들(Michael Emerson, George Yancey, Karen Chai Kim)이 촉구했듯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 된 가족만이 미국사회의 인종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이다. 이제는 더 이상 방관하거나 침묵하지 않고 깨어서 화해의 전권대사로서 살아야 할 시점이다!

부모들, 온라인 세계의 자녀 안전 너무 믿는다!

(1면에서 계속)

"자녀가 온라인에 접속하면 인터넷의 온갖 경이로운 세계, 즉 훌륭한 콘텐츠와 안전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고 휴즈가 말했다. 그러나 "아이들이 해로운 콘텐츠를 접하고 위험한 사람들이 접근하는 기회도 열리게 된다"며, 온라인 안전에 관한 인식이 확대됐다고 하지만 부모들은 여전히 감각이 떨어진다"고 "NoBullying.com"의 공동개설자 시아란 코블리가 말한다.

"아이가 소파 위 부모 옆에 앉아서 휴대용 단말기, 노트북 또는 컴퓨터를 사용할 때 온라인에 접속 중인 10억 명 중 누구와도 접촉할 수 있다"고 그가 말했다. "부모는 대체로 아이들이 눈앞에 있기 때문에 안전하다고 믿는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다."

FOSI 조사에선 부모들이 자녀

의 온라인 활동에 개입하려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90% 이상 이 온라인 활동의 잠재적인 이점과 해악에 관해 자녀와 대화를 나눴다. 그리고 대다수 부모가 자녀의 인터넷 검색 이력을 검사했다. 설문조사는 6-17세 자녀를 둔 부모 584명을 대상으로 9-10월 실시됐다.

여러인의 온라인 안전문제에 관한 과장과 우려가 커졌지만 실제 범죄는 대체로 우려만큼 심각하지 않았다. 지난 20년 사이 아동 성학대 비율은 감소했다. 뉴햄프셔대 아동대상 범죄 연구소의 선임 연구원 제니스 윌라크의 설명이다. 경찰의 대응도 향상되기 시작했다. 2006-2013년 사법당국은 인터넷을 이용해 미성년자들과 성적인 만남을 꾀하는 사람들에 대한 단속 노력을 대폭 강화했다. "아이들이 20년 전보다 더 안전해졌다"고

윌라크가 말했다.

FOSI가 인터뷰한 부모 중 자녀가 온라인에서 스토킹, 괴롭힘, 작위 또는 기타 범죄의 피해를 당할까봐 우려한 비율이 4분의 1에 가까웠다. 그밖에 69%는 자녀가 낯선 사람과 대화하려고 인터넷을 이용할까봐 걱정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를 신뢰해야 한다고 윌라크가 말했다. "대다수 어린이는 상당히 현명하며 인터넷에서 모르는 사람들과 성적인 만남에 끌려들지 않는다."

FBI 인터넷 범죄신고 센터의 자료에 따르면 최근 아동 대상 사이버범죄는 미미한 증가에 그쳤다. 2013년 사이버범죄와 관련해 형사 고발한 사람 중 20세 미만자는 3.4%에 불과했다. 그 전해에는 20세 미만자의 신고율이 3.24%에 달했다.

아이들이 인터넷을 두려워하도록 가르치는 건 생산적이지 않고 보는 견해도 있다. 미국 실종/착취 아동 센터 산하단체인 넷스 마츠의 선임 기획자 마이크 힐의

설명이다. 그보다는 부모와 자녀가 모범적인 디지털 시민이 되는데 초점을 맞춰야 한다. 모두가 프라이버시 문제에서 현명한 선택을 해야 한다. "인터넷은 스스로 자신을 보호해야 하는 또 다른 세상일 뿐"이라고 힐이 말했다.

FOSI 조사 결과는 그 문제에 관한 일반인들의 이해를 반영하는 듯했다. 전체적으로 FOSI 부모 중 53%가 자녀의 온라인 단말기 사용에 따르는 플러스 요인이 마이커스 요인을 증가한다고 답했다. 두 가지 요인이 대등하다는 응답자는 42% 선에 달했다.

결국 데이터를 떠나서 온라인 안전 문제가 더 큰 대화의 주제가 돼야 한다고 윌라크는 지적한다. "아이들이 온라인에서 안전한다"라고 사람들이 말할 때는 '아이들이 인생의 각 분야 전반적으로 안전하냐'가 더 큰 이슈"라고 그녀가 말했다.

국제경찰로서의 미국 외교정책 계속돼야

(2면에서 계속)

거리를 순찰하는 경찰도 많고 지고 철창에 갇힌 범죄자도 많아 졌다는 얘기가.

그런데 또 한 가지 요소를 눈여겨 볼만하다. 1982년 텃거스대학교 범죄학 교수인 조지 켈링과 하버드대학교 정치학 교수인 제임스 Q. 윌슨은 월간 문예평론지 '에틀랜틱 먼슬리'에 '깨진 유리창'이라는 에세이를 기고했다.

이 에세이는 1969년 스탠포드 대학교의 심리학자 교수인 필립

짐바르도가 실시한 사회학 실험에서 출발한다. 짐바르도 교수는 변호관이 붙어있지 않고 보닛은 열려둔 차를 브롱크스에 주차해 놔다. 10분도 지나지 않아 배터리와 라디오, 타이어 등 귀중품이 털렸다. 다음날이 되자 사람들은 좌석 커버를 뜯고 창문을 깨는 등 자동차를 본격적으로 파손하기 시작했다.

짐바르도 교수는 똑같은 실험을 캘리포니아 주 팰러앨토 스탠포드대학교 캠퍼스 인근에서도

실시했다. 이번에도 보닛을 열어두고 변호관을 부착하지 않은 차를 세워 놔다. 며칠이 지나도록 차는 그대로였다. 짐바르도 교수는 방치로 창문 한쪽을 깨웠다. 몇 시간도 안 돼서 차가 전복되더니 완전히 망가졌다. 조지 켈링 교수와 제임스 Q. 윌슨 교수는 이 실험 결과를 통해 어떤 결론을 내렸을까?

켈링 교수와 윌슨 교수는 "무질서와 범죄는 불가분의 관계로 연문을 방지하면 다른 창문도 깨진다. 왜 그럴까? 켈링 교수와 윌슨 교수는 "창문 한쪽이 수리되지 않고 있다는 것은 누구도 신경 쓰지

않는다는 뜻이기 때문에 다른 창문들도 마저 깨도 괜찮다고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다"고 설명했다.

사소한 무질서가 심각한 무질서로 이어진다는 개념은 범죄를 예방하려면 '근본 원인'을 제거해야 한다는 통념에 위배된다. 그런데 '깨진 유리창 이론'에 입각한 치안 정책(도보 순찰 경찰을 늘리고 경범죄도 엄중하게 다스리는 방식)을 채택한 도시의 범죄율이 급감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올라간 것으로 나타났다.

'깨진 유리창 이론'을 미국 뒷골목을 넘어 무질서한 세계를 바로잡는 데 적용할 수는 없는 걸까?

소망 칼럼

십자가 아래 하나 되게 하소서



박재호 목사 (브라질 새소망교회)

교회는 영적 신앙공동체이므로 외형적 단합보다 십자가 아래 하나 되는 영적 단합이 필요하다. 십자가 아래 하나 됨의 근거는 주님께서 하나님을 향하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저희도 다 하나가 되게 해 달라"(요17:21)고 기도하신 것이다.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된 성도들은 주님 중심으로 하나 됨을 힘써 지킴으로 교회가 그리스도의 온전한 몸을 이루어야 한다. 그러기에 우리는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서 반드시 하나가 되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십

자가 아래서는 인종차별이나 인간차별, 빈부귀천이나 유식무식의 차별도 없고 누구나 다 같은 인간일 뿐이기 때문에 하나 되기가 쉽다. 또 우리는 힘이 약하기 때문에 하나 되어야 한다. 약한 자들도 단결하여 하나가 되면 힘이 강하다. 더구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뭉쳐 하나가 되면 그 어떤 힘과 세력도 당할 수 있고 마귀도 물리칠 수 있는 강한 힘을 발휘하게 된다.

교회가 힘 있고 부흥하려면 모든 교인이 하나 되어야 한다. 언젠가 수리남 지방의 어떤 총독이 그의 흑인 노예들에게, 개인적으로 집에서 쉬 수 있는 날만 되면 왜 항상 교회로 가서 함께 노래하고 기도하려고 하는지 그 이유에 대해서 물어보았다. 마침 그 때 석탄 덩어리들을 모아 놓고 피워 놓은 불기에서 불을 쬐고 있던 한 흑인 여자가 대답했다. "주인 나리, 이 석탄 덩어리들을 보십시오. 만약 이것들을 하나하나 떼어놓게 된다면 그 불은 곧 꺼져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들을 모두 한 곳에 모아서 함께 태우기 때문에 매우 귀중한 불을 우리가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라고 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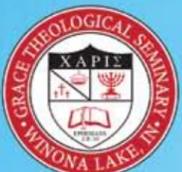
우리가 하나 되어야 할 이유에 대하여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하신 포도나무의 비유가 있다.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 것도 할 수 없음이라"(요15:5)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우리는 그 가지이다. 예수님은 한 분 뿐이요 우리는 여러이지만 모두 그 분의 가지이다. 그러니 우리는 그 분의 가지로서 그 분과 함께 그 분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분의 지체(肢體)인 것이다.

세상만물은 혼자서, 혼자서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 만물의 영장인 사람도 마찬가지이다. 한손으로 다른 손을 쥔 두 손으로 얼굴을 씻어야 한다. 그리고 여러 손이 모이면 일이 가벼워진다. 이와 같이 인간들은 모두 하나 되어 서로 협동하고 협조함으로써 자기들이 필요로 하는 것을 훨씬 쉽게 얻고 이룰 수 있다. 오늘날 지구촌이라는 말을 들으면 세계는 하나임을 강하게 느낀다. 지구상의 한 민족이 망하면 다른 민족도 망한다. 한 사람이 죽으면 다른 사람도 죽는다. 어떤 의미에서는 다른 사람이 살아야 나도 사는 것이다. 그러기에 모든 사람이 부득불 하나가 되었고 지구촌을 이루었다. 이 사실을 빨리 깨달아야 한다.

주님은 하나님과 자신이 하나 됨 같이 저희도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소서 라고 기도를 하셨다.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어떻게 하나가 되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가 "나의 원(願)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막14:36)라고 겹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십자가를 받아들여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뜻 앞에 자신을 제물로 온전히 바쳤기 때문에 하나님과 그리스도가 하나 될 수 있었던 것이다.

도산 안창호 선생은 합동하면 흥하고 분열하면 망하고 단결하면 살고 분리하면 죽는다고 했다. 무서운 공포 속에서는 사람들이 주먹을 짝 쥐게 되고 큰일을 만나면 사람들은 결속하여 하나로 뭉치게 된다. 우리가 서로 화합하면 하나로 뭉치고 하나로 뭉치면 힘이 많아지고 힘이 많아지면 강해지고 강해지면 모든 것을 해낼 수 있다(순자). 에티오피아 격언에 "거미줄도 결합하면 사자를 묶을 수 있다"고 했다.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게 하소서"가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가 되기 바란다.

귀하는 미래사역을 위한 준비가 되셨습니까?



GRACE THEOLOGICAL SEMINARY

1. 76년의 역사를 가진 독일 경건주의 후예들이 세운 신학교
2. 학문과 경건을 겸비한 복음주의 신학교(ATS 정회원)
3. 미국에서 유일한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한국어 프로그램 (Online 강의, On Field, On Campus 강의로 사역지를 떠나지 않고 학위과정을 마칠 수 있음)
4. 특전 (1) SEVIS I-20 Form 발행, (2) FAFSA(연방정부학자금)지원가능(영주권자 이상), (3) 각종 장학금 제도

- 모집 과정
- 문화교류학 박사과정(D.Ics)
 - 목회학 박사과정(D.Min.)

On Campus Courses

2015 봄학기 수업 안내

Feb 16-20(2월 16 -20일)

DI 8550 God's Strategy for the World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전략)

Feb 23-27 (2월 23-27일)

DI 8020 Cultural Anthropology (문화인류학)
DI8310 History of Missions(선교역사)

* 한국어로 취득할수있는 ATS승인 "문화교류학 박사학위" 는 본교에만 있습니다 *

그레이스 대학/신학대학원

200 Seminary Dr. Winona Lake, IN 46590 / http://www.grace.edu

총장: Dr. William J. Katip
한국학부 디렉터: Dr. Stephen S. Park(박시경박사)
대표전화: 574-372-5100 (Ext.: 6335), 574-377-2619(한국어)
E-mail: parkrc@grace.edu, gtskoreanstudies@gmail.com



목양칼럼

한평우 목사
(로마한인교회)



기독교에 호의적인 황제 - (1) 콘스탄티누스 황제

콘스탄틴(Constantinus 272-337)은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한 로마의 황제다. 그는 기독교인들을 무자비하게 핍박했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Diocletianus 245-

305)의 후임으로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멈추게 했다. 그는 폰테 밀비오(Ponte Milvio) 해전에서 막센티우스를 물리친 후 313년에 밀라노 칙령을 공포하여 기독교를 처음으로 공인했다.

그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었다고 한다. 즉 로마를 수비하는 막센티우스는 18만의 병사를 수하에 두고 있었지만 자신은 5만의 병사가 있었기에 한 마디로 중과부적이었다. 그런데 전쟁에 앞서 고민하는 그에게 하나님은 꿈을 통하여 말씀하셨다고 한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헬라어 글자 문양을 보여주시고 그 글자로 기를 만들어 전투에 임하게 하셨다. 이튿날 그대로 한 결과 예상을 뒤엎고 전투에서 승리했고 그것을 주님의 도우심으로 믿어 기독교에 대한 핍박을 멈추게 했다. 그의 가족사를 보면 콘스탄틴의 아버지인 콘스탄티누스는 막시미아누스황제(공동황제)의 근위대장으로 있다가 그의 양 아들이 되어

(293,3,1) 부제로 올라간 사람이다. 그런데 그의 아내 헬레나는 본래 귀족이 아닌 여관주인의 딸 출신이었다. 하급 병사 신분이었을 때 결혼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부제가 된 상황에서 그것은 큰 약점이었다. 우리는 이런 신교극 같은 상황을 종종 대하게 된다. 즉 고시 공부 위해 산에 들어간 청년이 외로운 때문에 시골 아가씨를 사귀게 되고 청년은 아가씨의 지극한 정성 때문에 결국 사시에 합격했다. 그것은 큰 기쁨이었지만 그 기쁨은 아가씨에게 태풍이 불어 닥치게 되는 전조임을 깨닫는 데는 많은 시간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신분이 라는 것 때문에...
예나 지금이나 스펙은 무시할 수 없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역시 아버지 콘스탄티누스는 조강지처 헬

레나와 이혼(292)하고 황제 막시미누스의 딸 데오도라와 결혼했다. 이 일에 대하여 헬레나의 아들 콘스탄틴은 마음에 큰 상처를 받았는지 후일에 계모 데오도라와의 사이에서 낳은 이복동생들을 대부분 처형해 버렸다.
그 후 아버지 콘스탄티누스가 죽자, 부하들의 강권에 의해 아버지를 이은 공동 황제에 올랐고 후에 추인을 받았다. 콘스탄틴 역시 아버지처럼 아내와 이혼하고 가문 좋은 파우스타와 결혼(307)했다. 파우스타는 황제 막시미누스의 딸이요, 후에 콘스탄틴과 싸워 패한 막센티우스의 동생이었다. 콘스탄틴에게는 첫째 부인 미네르바와의 사이에서 낳은 뛰어난 아들 크리스푸스가 있었다.
그는 아버지가 정적들과 싸우는

과정에서 큰 공을 세웠던 공신이요, 믿음직한 아들이었다. 콘스탄틴은 이 믿음직한 아들을 일찍부터 후계자로 삼아 부제(Caesar)로 임명하여 황제가 되는 수순을 밟게 했다. 또한 갈리아 사령관으로 보내 더 큰 경험을 쌓도록 배려했다. 그런데 이상한 소문이 안개처럼 피어오르게 되었는데 그것은 의붓어머니 파우스타와 콘스탄티누스의 장자 크리스푸스와의 불륜 관계에 대한 것이었다. 가당치 않은 소문으로 치부할 수 있었으나 당시 정략적인 결혼으로 아내와 나이차이가 많이 났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날 개연성은 있었다. 그러나 콘스탄티누스와 아내 파우스타와의 관계는 매우 좋았다.
(9면으로 계속)

푸/른/초/장

최해근 목사
(필라델포메리교회 담임목사)



가금 비행기를 타고 여행하다 보면 기내방송을 통해 긴급하게 의사나 간호사를 찾는 안내방송을 듣게 됩니다. 지난 2010년 11월에 LA발 한국행 비행기 안에서 임산부가 출산을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긴급하게 의사나 조산사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안내방송을 듣고 임산부를 돕게 될 경우 미국법은 응급에 처한 환자를 돌보는 행위에 대해 추후 책임의 유무를 묻지 않도록 하는 법이 있습니다. 바로 이 법이 '선한 사마리아법'으로 불려집니다. 의료행위 뿐만 아니라 음식이나 식품을 자선 기관에 기증했을 경우에도 이 음식이나 식품에 대해서 면책이 될 수 있도록 1996년 10월에 클린턴 대통령이 법제화시켰는데 이 법 역시 '선한 사마리아법'(Good Samaritan Law)으로 불려집니다.

신 의도를 좀 더 분명하고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에 등장하는 인물들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주님이 주신 이야기에는 강도만난 사람과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이 등장합니다. 우리는 여기서 한 가지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강도만난 사람에게 대해서는 일반적인 표현을 사용한 것에 비해 그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대해서

마지막으로 등장한 세 번째 사람이 강도만난 사람을 도와주었다고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하여도 충분히 어려움을 당한 약자를 돕는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표현할 수가 있었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본문을 보면 강도만난 사람의 사회적 신분이나 직업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

행인을 보고는 교직원 회의를 핑계로 모르는 척 지나갔습니다. 한 참 후에 가난하고 일주마의 패자 수집상 할머니가 리어카를 끌고 지나가다 사고를 당하고 버려진 행인을 발견한 후 자신의 리어카에 그 사람을 모시고 급하게 병원으로 가 환자의 생명을 구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접했을 때 직감적으로 느껴지는 것이 '교육 받은 사람의 위선과 가난하고 무식한 사람의 인간성'에 대한 것입니다. 총장과 교장이 피해간 사람을 하루 벌여 하루 먹고 사는 가난하고 무식한 할머니가 구했다는 사실을 통해 지식이 가지고 있는 위선과 무능력에 대해 말없이 느낌으로 전달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

그러나 또 다른 자료들, 예컨대 율법을 해석한 미쉬나 나지르 7장에서는 대제사장이나 나실인으로 서원을 한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자신의 친족이 아닌 여행 중에 우연하게 발견한 버려진 시신을 만지는 것은 부정케 되는 일이 아니라고 지적합니다. 이러한 가르침은 결국 본문에 등장하는 제사장과 레위인이 자신들의 성전봉사를 이유로 강도만난 사람을 피해갈 합당한 이유를 제시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즉 제사장과 레위인은 당연히 베풀고 행해야 할 사람 살리는 일에 실패하였다는 사실입니다. 제사장과 레위인은 다름 아닌 당시 유대교의 상징인물들입니다. 그들의 실패는 유대교의 실패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다. 그런 부류에 속한 사마리아 사람을 언급하여 가장 영웅적인 행위를 한 사람으로 묘사했다는 것 자체가 유대인의 입장에서 본다면 지극적이고 수치스럽고 기분을 상하게 하는 일이었습니니다.
주님은 바로 이 점을 통해 주님의 심중에 계신 중요한 진리를 표시하셨던 것입니다. 가장 천하고 가까이 하지 못할 사마리아인과 같은 자리에 주님 자신을 두신 것입니다. "내가 바로 버림받고 무시당하는 사마리아 사람이다. 그런데 바로 그 무시당하던 사마리아 사람에게 의해 강도만난 사람이 생명을 구하지 않았던가!! 나는 세상에서 강도만난 사람의 가장 가까운 이웃이며 그들의 생명을 구하기 위해 이 땅에 온 사마리아 사람이며 나는 그 일을 위해 내 생명을 버리는 것이다."

수장절의 교훈 (누가복음 10:25-37)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
우리에게 친숙한 선한 사마리아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본문에 등장합니다. '선한'이라는 표현은 본문의 이야기를 해석하는 사람들이 붙인 형용사이고 성경본문은 단순히 '사마리아' 인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친숙한 본문을 가지고 예수님이 말씀하고자 하셨던 그 중심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본문은 어떻게 이해하고 해석하는가에 따라 이 이야기를 말씀해주셨던 예수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결론이 나올 수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주님이 말씀하

는 구체적인 사회적 배경을 언급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제사장, 레위인 그리고 사마리아인들은 그들이 들만 들어도 당시 사회에서 느끼고 있었던 특정한 분위기를 가져오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입니다.
강도만난 사람이 어떤 종류의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인지 혹은 그의 사회적 신분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는 전혀 언급이 없는 반면에 그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제사장이거나 레위인 혹은 사마리아 출신 사람이었다고 함으로써 의도적으로 직업이나 신분 혹은 그 출신배경에 대해 관심을 기울이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냥 강도만난 사람 옆을 지나가던 첫 번째 사람, 두 번째 사람, 그리고 세 번째 사람으로 표현한 후에

를 하지 않은 반면에, 그 사람 옆을 지나갔던 사람들에게 대해서만 신분을 표시함으로써 주님이 우리의 관심을 다른 곳으로 이끌어가고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쉽게 이해하기 위해서 비슷한 내용의 현대판 이야기를 구성해보겠습니다.
현대판 재구성, 그리고 그 의미
어떤 사람이 직장에서 심야업무를 마치고 이른 새벽에 집으로 가는 도중에 뺑소니 차량에 치여 심하게 부상을 입고 길 가에 버려져 있었습니다. 마침 그 옆을 대학교 총장이 자동차를 타고가다 둘러보고는 아침 강의준비 때문에 그냥 지나갔고, 얼마 후 고등학교 교장이 그 옆을 지나가다 사고를 당한

이 바로 예수님이 사용하신 방법이고 내용입니다.
주님은 다른 사람도 아닌 제사장과 레위인을 사용하여 비인간적이고 이기적인 모습의 사람을 표현합니다. 강도만나 겨만 죽게된 사람을 살려야 되는 이 긴급하고 중요한 일에서 제사장과 레위인은 실패합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이유가 있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예컨대 죽은 시신을 만지지 않아야 한다는 그런 유대교적인 내용입니다(민19:11-13). 시신을 만져서 부정케 되면 7일 동안 성전에서 봉사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정결의식을 거쳐야 되는 과정이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복잡하고 힘들어서 피해 갈 수밖에 없었다는 상황적인 이유들입니다.

왜 사마리아인이었을까?
그렇다면 왜 하필 사마리아인을 가장 배울만한 인물로 묘사했을까 하는 점입니다. 사마리아인 대신에 그냥 갈릴리 시골 사람이라던가 여리고 근처에 살고 있었던 동네사람이라고 할 수도 있었을 터인데 굳이 사마리아인으로 표현하고 있는 점이 우리의 관심을 집중시킵니다.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인은 가장 천박스럽고 무식한 그런 사람들, 소위 말하는 '잡것들'에 해당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인 자신들과 같은 피를 이어 받았다고 하지만 이방인들과 혼혈결혼을 함으로써 스스로 그 혈통적인 정결함과 순수함을 포기해버린 선조들의 역사를 알고 있기 때문입니

결론
감사절을 지내고 성탄절을 맞이하고 있습니다. 한 해를 돌아보며 감사할 것들이 많이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한 사람에게 집중하기를 원합니다. 그 분은 사마리아인으로 이 땅에 오셔서 사람들로 부터 갖은 수모와 치욕을 받아가며, 인생의 강도를 만난 우리를 살려내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돈으로부터의 강도, 권력으로부터의 강도, 성으로부터의 강도, 지난 상처로부터의 강도... 우리 모두는 다양한 종류의 강도를 만난 그런 아프고 깨진 삶을 살았던 그리고 살아갈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우리를 향해 두 손을 펴시고 사마리아인의 인성이 되어 아프고 쓰러진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심으로써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우리 주님에게 감사의 드리기를 원합니다.

2014 아주사 동문의밤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각처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나타내는 모든 APU 동문들 위에 그리고 섬기는 교회와 각 가정 위에 충만하기를 기도드립니다. 저희 동문회에서는 'APU 동문의밤' 에 '리더' 되시고 또 각 이민교회를 모범적으로 이끄시며 섬기시는 동문여러분들을 초청합니다. 기쁜 마음으로 APU 동문회 모임에 참석해 자리를 빛내 주십시오. 행사후에 차광일, 추영욱, 박용덕, 신원규 목사님의 '후배목회자들을 위한' 목회 멘토링 시간이 있습니다.

2014 아주사 동문의 밤 준비위원장 신원규 목사 APU한인동문회장 광경동 목사 수석부회장 정중환 목사 외 한인동문 일동

일시 12월 8일(월) 오후 6시30분-9시
장소 Azusa East Campus LAPC Room & President Dinning Room
(901 E. Alost Ave, Azusa, CA 91702)
문의 (909)938-2711

- 물질적 후원은 Pay to: APU로 하시면 됩니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동문회
APU Alumni Korean Chapter



AZUSA PACIFIC
UNIVERSITY





은 세계의 이목을 집중시킨 미조리 주의 퍼거슨 시에 Darren Wilson의 불기소 판결 이후에 미국은 다시 인종문제에 관한 논쟁에 휩싸였다. 이 사건의 발단은 퍼거슨 시에서 백인 경관인 데릴 윌슨이 흑인을 총으로 170여 개가 넘는 도시에서 재판의 결과에 항의하는 데모가 일어나면서 온 세계가 긴장하고 있다. 데모와 함께 방화와 약탈까지 일어나서 퍼거슨 시의 한인업소들도 10여 군데가 피해를 당했다고 한다. 많은 사람들은 LA폭동의 끔찍한 악몽이 되살아나기도 했다.

평화적으로 데모를 하고 시위를 하는 사람들 가운데에 진정한 아픔을 느끼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 CNN 등

세히 살펴보면 모든 것이 분명해진다. 모든 분노가 다 나쁜 것은 아니다. 또한 모든 분노가 다 좋은 것으로 인정받는 것도 아니다. 분노는 다 같은 분노가 아니다.

분노에는 두 종류가 있다. 의로운 분노가 있고 또한 의롭지 못한 분노가 있다.

첫째, 의로운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이다. 하나님의 분노는 언제나 정의이다. 공의의 하나님께서는 죄를 묵과하실 수 없다. 하나님은 죄에 대하여 분노하시지만 감정적이지 않으시다. 내면이니까 무조건 봐주는 눈 감고 지나가는 것도 아닌, 사랑을 근거로 하시는 의로우신 분노이다.

염려들을 통하여서 분노하게 된다. 과거의 어떤 아픈 상처들이나 고통스러운 경험에 대한 기억들이 분노를 일으키기도 한다. 그래서 분노는 두 번째 감정이라고 불린다. 분노는 우리가 처음으로, 일차적으로, 맨 처음에 느끼는 감정이 아니다. 다른 감정이 먼저 느껴지고 그 다음 느끼는 감정이 우리에게 불편해지면 마침내 화를 내게 된다.

분노를 일으키게 하는 원인이 되는 감정들을 보고 분노를 앞서는 감정들이라고 부른다. 분노를 일으키는 것들은 보통 두려움이나 실망되었을 때, 장피를 당하였을 때, 죄책감을 느낄 때, 아픔이 있을 때, 때로는 피곤하거나 배고픔이 유발하기도 한다. 이러한 것들은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오는 것이다. 따라서 내가 화를 내는 이유는 내가 약하다는 것을 느끼고 인정하는 것이 견딜 수 없기 때문에 분노를 표출함으로써 내가 강하다고 하는 것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이다. 하지만 자신이 있으면 강하면 여유가 생긴다. 내가 화를 계속하여 낸

노는 하나의 신호와도 같은데 무엇인가 잘못 되어지는 것 같은 것에 대한 반응이다. 또한, 분노 그 자체가 반드시 죄악은 아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지만 죄를 짓지는 않으셨다. 예수님의 분노는 하나님의 분노이고, 의로운 것이었다. 우리가 분노를 하지만 죄를 짓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하지만, 인간은 분노를 잘 통제하지 못한다. 분노를 통제하지 못하고 품으면 죄이다.

분노에는 한계와 제한이 있어야 한다. 반드시 절제되어야 한다. 성경은 두 가지 한계를 말씀하신다.

첫째, 분노에는 시간적인 한계가 있다. 시간적으로는 분노를 해가 지도록 지속시켜서는 안 된다. 지속적으로 분노를 품지 말아야 한다. 아무리 정당함 분노라도 계속 가지고 있는 분노는 합당하지 않다.

둘째, 분노에는 정도의 한계가 있다. 분노를 품되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할 정도로 품으라는 것이다. 분노는 용서로 사랑으로 이해로 바뀌어야 한다. 분노를 다스리지 않으면 우리가 약해진다. 마귀가 우리를

Q&A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신앙상담



이정현 목사

빛과소금교회 / (310)749-0577
E-Mail: t1spc0316@gmail.com

Q: 바울사도가 제 2차 로마 감옥에 갇힌 후 목베임의 사형을 당했다고 들었는데 어디에서 죽었는지 좀 더 자세한 것을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이 IS에게 동일한 핍박을 받고 목베임의 순교를 당하고 있는데 좀 더 자세하게 설명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A: 디모데후서 4장에는 바울의 순교직전의 모습이 나옵니다. 여기에 나오는 바울의 모습은 사도행전에 나오는 초인적인 선교사의 모습이 아닙니다. 로마의 침침하고 습한 토굴의 지하 감옥에 갇혀서 발에는 작고 채워졌고 머잖아 죽음의 사형을 기다리는 60이 넘는 연로한 바울의 모습입니다. 바울은 이미 재판정의 1차 예비심리에서 아무도 바울을 변호해주는 사람이 없어 매우 불리하게 예비심리가 치러졌고 이제 최후의 공판판을 기다리다가 결

같은 시기에 바울은 참수형, 베드로는 거꾸로 십자가형 받아

국은 사형선고를 받았습니. 전승에 의하면 바울은 최후법정에서 결국 사형선고를 받고 로마시 밖으로 3마일 떨어진 오스티안 가도(The Ostian way)에서 목이 잘려 죽는 참수형을 당했습니다. 유세비우스라는 학자에 의하면 바울과 베드로는 거의 동일한 시기에 순교했다고 합니다.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은 선교하다 칼로 목이 잘려 참수형을 당했고 유대인의 사도인 베드로는 전도하다 잡혀 그의 요청에 의해 머리가 거꾸로 달리는 십자가형에 처해졌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이 말세에 복음전하는 주의 종들과 일군들은 주를 섬길 때 고난 받는 정도가 아니라 필요하다면 바울이나 베드로처럼 순교의 피를 기꺼이 바칠 각오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현재 중국 홍콩에서는 우산 혁명으로 민주화를 주도하는 세력들을 미디어들을 통해 봅니다. 우산 혁명의 지도자들은 거의 대부분 기독교신자들과 교회들이었다. 카톨릭 신자들도 있습니다. 북경 당국들은 기독교를 체제 위협의 세력으로 알고 현재 대대적인 탄압에 나서고 있습니다. 중국의 공산주의는 약5천만 명인데 중국의 지하교인들의 수의 절반밖에 안됩니다. 장차 지하 교회들에 의해 망하게 될까봐 두려워하여 현재 2만명 이상의 중국 지도자들이 감옥에 갇혀있고 지하교회는 핍박을 당하고 있습니다.

회교 수니파 극렬분자인 이슬람국가 즉 IS (Islam State)는 점령 지역인 이라크에서 살인극을 저지르는데 최대의 피해자는 이라크의 기독교인들입니다. 기독교인들은 종교가 다르다는 한 가지 이유로 조직적으로 집요하게 박해를 받고 있습니다. 남자들은 목이 잘리고 십자가에 못박히고 어머니들은 강간을 당합니다. 어린아들 역시 목이 잘리고 뺨뺨한 막대기에 그 머리가 꿰어집니다. 그래서 100만 명이 넘는 이라크 기독교인들이 수없이 죽고 현재 15만 명 정도가 남았는데 기독교인들은 살기 위해 이라크 탈출 즉 소더스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시리아의 기독교인들도 같은 운명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는 현재 이 미국에서 너무나 편안하게 예수를 믿고 있지만 지금도 이 시간 이라크, 시리아, 나이지리아, 파키스탄, 수단, 중앙아시아, 중국, 북한의 기독교인들은 순교의 피를 흘리고 있고 생명을 내걸고 예수를 믿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현재 핍박받는 세계의 기독교인들을 위해 기도해야 합니다.

분노의 계절을 이겨내기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 김혜천 목사



의 언론들은 오리건 주 포틀랜드 시 시위에서 촬영된 한 장의 사진과 이에 얽힌 이야기를 일제히 소개했었다. 사진은 11월 25일 백인 경찰 브렛 바넌이 울고 있는 흑인 소년 데본트 하트를 끌어안고 있는 모습을 담고 있다. 사진작가 Jonny Nguyen이 촬영해 자신의 페이스북에 게시한 것으로, 미국 네티즌과 언론의 뜨거운 반응으로 15만회 이상 공유되었다. 백인 경찰과 흑인 소년의 눈물의 포옹은 그렇지 않아도 마음이 상한 미국인들에게 하나의 소망을 주는 상징이 되었다.

미국의 인종갈등은 100년이 넘는 아픔이다. 흑백의 갈등이 아니라 해도 이민자인 우리도 눈에 보이는 혹은 보이지 않는 차별을 느낀다. 우리가 차별을 느낄 때 분노할 수 있다. 지금 일어나는 폭동과 약탈을 정당화 하는 사람들은 이것이 자신들의 분노의 표시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약탈과 폭동은 정당화될 수 없다.

분노가 무엇인가? 분노는 사실상 우리에게 필요한 감정이다. 신체적인 위협이나 고통에 대하여 반응하는 적절한 것이다. 하지만 정신적이나, 자아나, 자존심이 상하게 되었을 때 일어나는 분노는 부적절한 것이다.

분노는 상처를 입었을 때에 나타난다. 사람들은 성격이 어떤 경우는 분노를 정당화하는 것 같고, 어떤 곳에서는 분노를 금지하는 것 같아서 혼동된다고 한다. 하지만, 말씀을 자

사람의 분노 가운데서도 정당한 분노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정당한 분노 역시 반드시 주의를 해야 한다. 사회 사람들도 정당한 분노가 있는 것처럼 보인다. 사회 사람들이 불의를 보고 분을 내는 것은 정당하다. 거짓이 득세하는 것을 보면 분노를 표출한다. 부정과 부패에 대한 의분이 있다. 그러나 소위 세상사람들의 정의는 눈에 보일 때에는 정당한 것 같아도 그 안에는 음모와 자기주장과 자기 이권과 자기 권세를 위한 잘못된 동기가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분노는 정당하게는 보이나 사실은 잘못된 분노들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당화 될 수 있는 분노는 오직 하나님을 위한 분노이다. 죄에 대한 분노이다. 하나님의 뜻을 거스리는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은 정당한 분노이다(출32:19-20). 사탄의 역사를 볼 때, 불의가 성행하는 것을 볼 때,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는 일들이 행하여지고 있을 때에 분노하는 것은 정당하다. 하지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분노들도 역시 에베소서4장의 원리에 지배를 받는다.

둘째, 거의 대부분 사람들의 분노는 정당하지 않는 분노이다. 매우 파괴적인 분노이다. 잘못된 원인으로 분노하는 것이다. 물론, 분노의 원인은 여러 가지이다. 외부적인 원인, 혹은 내부적인 원인에 의하여 일어난다. 우리는 어떤 개인이나, 어떤 사건이나, 혹은 현재나 장래의 일에 대한

다고 하는 것은 나에게 약함이나 아픔이 있다는 말이 된다.

분노의 단계는 가인의 살인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보여주신다. 분노는 통제되지 않으면 점점 악화된다. 분노는 한 상태로 머물러 있지 않는다. 더 정도가 지나치면 분개에서 격노로 바뀐다. 밖으로 표현된다. 말로서 나온다. 점점 더 노가 격하게 되어서 격분을 한다. 격분은 폭력이 되고, 감정적인 통제력이 상실된다. 상대에게 상처를 입히려 하게 되고, 폭력이 나온다. 더 나아가면, 광분의 단계로 나간다. 광분하게 되면 파괴적인 행동들이 지나쳐서 제정신이 아니게 된다. 가인과 같은 자기의 동생을 죽이는 살인행위로 나간다.

왜 분노가 발전되는가? 분노는 에너지와 같은 것이다. 분노는 자동적으로 사라지지 않는다. 분노는 축적이 되고 나중에는 형태나 모양을 바꾸어서 다른 방법으로 나타나게 된다. 육체적인 건강을 해치고, 정신적인 건강도 상하게 된다. 분노는 영적인 문제이고 심지어는 살인도 하게 된다.

그렇다면, 분노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에베소서 4:26-27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하셨다.

첫째, 분노는 하나님께서 주신 감정이다. 사실 분노는 자연적인 사람의 감정이다. ‘분을 내어도’ 라는 말은 분노가 허락되었음을 말한다. 분

통하여 역사할 틈을 주게 된다. 분노에 이끌리고 마음으로 죄를 짓고, 행동으로 죄를 옮기고, 결국은 망하게 된다.

성경은 잘못된 분노를 극복하려면 첫째, 분노의 원인을 고치라 하셨다. 우리는 분노 그 자체에, 화를 내는 그 자체에 집중하여서 사실을 화를 내게 하는 그 원래의 원인을 무시하는 수가 있다.

둘째, 잘못된 분노를 극복하려면 분노의 대상을 바로 파악해야 한다. 우리의 분노의 대상은 사탄의 역사에 대한 것이다. 죄에 대한 것이다. 분노의 대상이 아닌 것은 내가 상대하는 사람 그 자체는 아니다. 우리는 죄와 죄를 짓게 하는 사탄의 역사를 미워해도, 죄를 짓는 사람을 미워하지 않도록 주의함이 필요하다.

셋째, 분노의 계절을 극복하려면, 분노의 순간에 예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나를 쳐서 복종시키고 성령님께 순종해야 한다.

분노의 계절은 분노 속에서 사는 것이다. 분노의 계절은 하나님과의 건강하고 친밀한 관계의 부재에서 온다. 분노에 젖어서 밤낮을 사는 것은 죄이다. 우리의 영적인 삶을 무력하게 하고 비극을 가져오는 구멍이다. 온 세상에 소용돌이치는 분노의 계절에서 나의 영적인 상태는 과연 어떠한가?

이메일:revdavidkim@yahoo.com

담임목사청빙

미주한인예수교장로회 (KAPC) 가미노회에 소속된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에서 담임목사님을 아래와같이 청빙코자 합니다

1) 자격

1. 미주한인 예수교장로회 교단소속 이거나 또는 교단 가입에 문제가 없으신 분 (본교단의전임승락가능하신분)
2. 대학 및 신학대학원을 졸업하신 분 (M.Div이상)
3. 목사안수후 5년이상 목회경력이 있으신 분
4. 캐나다에서 거주하시는데 결격사유가 없으신 분

2) 제출서류

1. 자필이력서 및 가족 소개서 (사모포함)
2. 대학 및 신학대학원 졸업증명서 및 성적증명서
3. 목회계획서 (성장과정/ 목회비전/교회운영계획-A4 용지 4매이내)
4. 목사재직증명서 및 총회목사 안수증명서 (각 1통)
5. 추천서 2매 (연락처가제)
6. 설교 TAPE 또는 CD 2개

3) 제출기한 2015년 1월15일 (우편소인일자기준)

4) 제출처

1. E-mail : philadelphia9135@gmail.com
2. 우편 : 9135 132st , Surrey BC Canada V3V 5P6
The Philadelphia Church of Vancouver (604-584-5780)

5) 기타

1. 제출된서류는 반환하지 않으며, 선정된분은 개별통지 합니다
2. 개별통보된분의경우 추가제출서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구독신청서

미주크리스천신문의 정기구독을 신청하며 1년 구독료를 동봉합니다.

★ 1년 구독료	미국	\$100	유럽	\$190
	캐나다	\$110	남미	\$190
	한국및 동남아시아	\$190	아프리카	\$190

신청 유형	<input type="checkbox"/> 본인구독 <input type="checkbox"/>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냄		
구독자 이름 (혹은 후원자이름)	한 글 : _____	목 사 <input type="checkbox"/>	
	영 어 : _____	평신도 <input type="checkbox"/>	
배달 주소	_____		
전화/Fax	() ()		
★ 다른사람에게 선물로 신문을 보내는 경우에는 받는 분의 이름과 전화번호를 적어 주십시오.			
받는분 이름	한글	영어	
전화번호/Fax	() ()	() ()	
배달 주소	_____		
교회/기관명	_____		

▶ E-mail로도 등록하실 수 있습니다. E-mail : ny@chpress.net

신청일자: 200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_____

★ 저희 미주크리스천신문을 구독(후원)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미주크리스천신문 The Korean Christian Press

■ L A: 601 N. Vermont Ave. #202 L.A., CA 90004
Tel.(323)665-0009, Fax.(323)665-0046
E-mail : la@chpress.net

■ N Y: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Tel.(718)886-4400, Fax.(718)886-0074
E-mail ny@chpress.net

종보기도 해주세요!...미전도 종족

베트남의 쯔-라오(Tsun-Lao)



쯔-라오족이 거주하는 베트남 북부의 산악지역은 1900년대까지의 베트남인들의 영향이 매우 적은 곳이었다. 그러나 오늘날은 많은 쯔-라오 사람들이 베트남 사람들의 문화에 동화됐다. 쯔-라오족은 좀더 크게는 산족, 라오족 등을 포괄하는 큰 문화 언어집단인 타이족에 속한다. 쯔-

라오족과 라오족이 하나의 종족집단으로 분류되기도 한다.

수 세기 전, 라오인들은 중국에 살았으나, 중국인들의 냉혹한 압력으로 점차 남서쪽으로 이동하며 라오스, 미얀마, 태국, 베트남으로 내려왔다. 1954년 공산주의자들이 북부 베트남에서 공산혁명을 일으키고 군정권이 들어서면서, 대규모의 유혈사태가 일어나, 결국 1975년 북베트남의 공산주의공화국이 남베트남을 점령하고 공산주의자들의 승리로 전쟁이 끝나게 됐다. 전쟁 후에 북부베트남은 집중적인 산업의 재구조화 기간을 가졌으나,

국가 산업의 질은 계속 악화됐다.

삶의 모습

쯔-라오족은 숲의 산출물들을 채집하고 고기를 잡고 사냥을 하고 가족을 기르고 수공업품을 만드는 것이 중요한 활동이기는 하지만 기본적으로는 쌀농사를 짓는 농부들이다. 작은 시냇물 따라 물을 대개 단식 논에 쌀농사를 짓는다. 경작을 위해 초목을 태워 만든 작은 땅에 다른 종류의 쌀(dry rice)농사를 짓기도 하며, "베어버리고 태우는(slash and burn)" 경작법을 이용해 땅을 정리하기도 한다. 쌀 생산량이 적기 때문에 매매를 위해 개피, 나무 등도 채집한다.

쯔-라오족 마을은 강이나 중국 상인들에게 접근하기 쉬운 가까운 도로를 따라 위치한다. 가옥은 나무나 대나무로 만들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지주 위에 높게 지어지

다. 가끔(집짐승), 돼지, 염소 등이 가옥 밑으로 자유롭게 다닐 수 있다. 마을의 중심에 불상이나 절이 있다.

과거에 쯔-라오족의 사회조직은 귀족중심 정치 모습을 갖고 있었다. 모든 마을 사람들에게 최고의 권위를 가지는 수장이 각 마을을 이끌어왔다. 1945년 이 수장의 권위는 폐지됐고, 그 이후로 각 지역사회는 인민회의에서 선출된 위원회가 이끌어왔다. 더 이상 분명한 사회계층 체제나 세습적 엘리트 계층은 존재하지 않는다. 쯔-라오족의 현대 사회조직은 혈통이나 씨족을 포함하는 가족단위에 기초하고 있다.

베트남이 봉건사회에서 사회주의 사회로 변화함에 따라 쯔-라오족의 문화는 극적으로 변화해왔다. 농부들은 현재 농업협동조합에 소속돼있으며 생산물을 균일하게 나

눠 갖는다. 그 외에 작은 규모의 산업화가 영세농민들이 베트남의 노동계급이 되도록 하기도 했다. 사회주의는 또한 교육과 보건 환경에 개선을 가져왔다. 의과대학과 병원들이 쯔-라오족이 사는 지역에 세워졌으며 천연두, 콜레라, 결핵, 말라리아와 같은 질병이 통제하는데 도움을 주게 됐다.

신앙

쯔-라오족의 절반 정도가 독실한 테라바다(Theravada) 불교신자들이다. 이들은 정의로운 사고, 제사의식, 자기부인을 통해 죽은 후에 영혼이 "열반"에 이를 수 있다고 믿는다. 이들은 자신들의 신들을 두려워하며 제식 찬송과 제물을 바침으로써 신들을 달래려고 지속적으로 힘쓴다.

나머지 쯔-라오족은 토속적 애니미즘과 불교가 혼합된 전통 민족

종교를 믿는다. 이들은 다양한 초자연적 존재와 물체들에게 도움을 구하며, 그 중 가장 중요한 존재에 속하는 것은 "토지의 신"이다.

필요로 하는 것들

쯔-라오족은 많은 물질을 필요로 한다. 해마다 문순시기(우기)가 되면 학교, 병원, 다리 등이 피해를 입으며, 수백 명의 집이 위협받기도 한다. 1996년 8월에는 폭풍, 산사태, 갑작스런 홍수로 많은 사람들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집을 잃었다. 인도주의적 지원, 의료시설, 의료진 등이 이 지역에 필요하다.

쯔-라오족의 영적인 필요는 더욱 절실하다. 과거 전쟁과 유혈에 상처받은 이 사람들은 내적치유와 참된 영적 소망에 대한 필요가 절대적이다.

인터넷 뉴스

Internet News

무슬림도 '오늘의 운세' 본다

이슬람이 변신 중이다. 종교적 전통보다 개방화와 세속화, 다문화가 변저간다. 일부 국가는 아랍어를 못해도 괜찮지만 영어를 못하면 뒤통이진 존재로 취급받는다. 이슬람인 무슬림도 증가 추세다. 이슬람판 '가나안 신자'(사원에 안 나가는 신도)가 증가하고 있는 것이다. '기독교와 이슬람 그 만남이 빛어낸 공종과 갈등'(김동문·세창출판사)에 따르면 현재 이슬람권에는 세속화의 3가지 현상이 그 '민낯'을 드러내고 있다.



우선 명목상의 무슬림이다. 몇몇 연구 자료에 따르면 (이슬람) 종교활동에 무관심한 무슬림 인구 비율은 80% 안팎을 차지한다. 레바논 무슬림의 경우 사원 출석을 전혀 하지 않는 무슬림이 수니파가 25%, 시아파는 21%에 달한다. 반면 일주일에 한 번 이상 가는 경우는 수니파 19%, 시아파 26%로 나타났고, 1년에 한 번 가는 경우는 수니파 2%, 시아파 2%였다.

2008년 10월 1일, 영국 BBC방송은 '혁명의 아이들'이란 제목의 다큐멘터리에서 이란 무슬림들은 가장 낮은 사원 출석률을 보였다고 보도했다. 앞서 2003년 '이코노미스트'도 이란인 70%가 기도에 무관심하고 2% 미만의 무슬림들이 금요일 사원 예배에 참석한다고 전했다.

한때는 별자리 운세에 대한 관심이다. '오늘의 별자리 운세'는 아랍 신문이나 잡지, 온라인 사이트에 약방의 감초처럼 자리 잡고 있다. 서양 별점으로 하루를 점진다. 무슬림들은 큰 거부감 없이 즐긴다는 게 현지지의 전언이다. 종교 지도자들은 이를 두고 '하람(금지)' '쿠프르(불신앙)' 등의 말로 비판하지만 점성술에 대한 관심을 막지는 못하고 있다.

셋째는 도박과 요행이 성행하고 있다. 도박은 종교적 금기사항에 속한다. 그러나 금기 위반이나 오락이냐를 두고 논쟁이 거세다. 인터넷 도박부터 오프라인 도박장이 늘고 있으며, 카지노가 허용된 나라는 팔레스타인 자치지구와 이집트, 레바논 등이다. 요르단 안만 거리엔 복권 판매상이 즐지어 있으며 경품족도 늘

어간다. 자동차를 비롯해 컴퓨터, 각종 생필품까지 다양한 경품으로 소비자를 유혹한다.

'성경을 이모티콘으로 번역?'

미국 캘리포니아 주에서 활동하는 사진작가 성경을 이모티콘으로 번역하고 있다고 크리스천포스트가 최근 보도했다.



주인공은 사진작가 켈린 캐슬 씨다. 그는 수 천개의 언어로 번역된 성경을 이모티콘으로 번역할 수 있겠다는 생각을 했다. 성경을 읽지 못했거나 관심을 두지 않는 청소년을 위해서다.

캐슬 씨는 로스앤젤레스영화협회에서 주최하는 불우학생 영화제작 강의에 자원봉사 하고 있다. 어느 날 영화 '벤허'를 상영했는데 몇몇 아이들이 성경을 읽은 적이 없다는 말을 했다. 캐슬 씨는 "아이들에게 왜냐고 물었더니 16세 소녀가 스마트폰에서 읽을 수 없다면 읽지 않겠다고 대답했다"며 "이모티콘으로 하면 읽어 볼래"라고 물었더니 호기심에 찬 미소를 보이며 읽겠다고 대답해 이모티콘 번역을 시작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미국성서공회 홍보담당 책임자 앤드류 후드 씨는 이모티콘 성경에 대해 '흥미있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크리스천포스트는 전했다. 후드 씨는 "기독교는 항상 사람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도하기 위해 창의력을 발휘해왔다"고 말했다.

캐슬 씨는 할리우드 엔딩 스튜디오를 설립한 사진작가다. 이모티콘 성경 프로젝트를 위해 캐슬 씨는 예수 그리스도와 악마 같은 특별한 주제의 새 이모티콘을 수천가지 만들어야 한다. 캐슬 씨는 "성경의 절반은 이모티콘으로, 나머지는 성경의 문장을 꾸며지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아이디어로 기부 받을 수 있는 웹사이트인 '킵스타터'(www.kickstarter.com)에 '이모티콘 성경 프로젝트'를 게재하고 모금하고 있다.

한편 이모티콘 책은 이미 나와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소셜 모바일을 바탕으로 '이모티콘 톺'이라는 책이 이미 출간돼 있다.

사지 없는 닉 부이치치 아내·아들 공개

팔 다리가 없는 '행복 전도사' 닉 부이치치가 공개한 가족사진이 화제다. 이토록 아름다운 가족이 있을까 싶은 정도로 아름답다.



그는 최근 신간 '무제한 사랑(Love Without Limits)' 출간을 기념해 언론 인터뷰를 하며 아내 카나에 미야하라와 아들 기요스 제임스의 사진을 대방출했다. 닉 부이치치는 2008년 카나에를 만나 4년 만에 결혼에 골인했다. 2013년에는 건강한 아들도 낳았다.

지금 아름다운 가정을 꾸린 그도 한때 "나를 사랑해 줄 사람은 절대 못 만날 것"이라는 생각을 했었는데, 팔 다리가 없는 남자를 좋아할 여자는 없다는 생각에 서였다. 지금은 행복 전도사이지만 그는 자살을 세 번이나 시도하는 등 우울한 시절을 보내기도 했다. 하지만 운명의 상대 카나에는 그를 편견 없이 바라봤다.

그는 최근 미국 크리스천포스트와의 인터뷰에서 "그녀가 나를 어떻게 바라보는지, 우리가 서로에 대해 어떻게 느끼는지를 알게 됐을 때 나의 불안은 사라졌다"며 "그녀는 나를 팔 다리가 없는 사람으로 보지 않았다"고 말했다. 그는 사랑을 포기한 이들에게 "나도 과거엔 결혼을 할 수 없을 거란 생각에 두렵고 무기력했다"며 끝까지 포기하지 말고 짝을 만나라고 조언했다.

또 "카나에를 50대, 60대, 혹은 70대 그 어느 때에 만났다고 해도, 평생의 기쁨과 충만한 복을 함께 느낄 수 있었을 것"이라는 '달걀 멘트'도 서슴지 않았다.

닉 부이치치는 평소 페이스북에 아들 사진과 영상을 올리는데, 지난 5월에는 아들과 트램폴린하는 걸 올려 눈길을 끌었다.

'맥도날드 교회'가 생긴다면?

햄버거와 감자튀김이 교회를 매력적인 곳으로 바꿀 수 있다는 제안이 나왔다. 이른바 '맥 매스 프로젝트'다. 교회 안에 맥도날드를 유치하자는 것이다. 미국 NBC뉴스와 폭스뉴스, 크리스천포스트 등은 최근 크라우드 펀딩 사이트 '인디고고'에 이같은 프로젝트가 올라왔다고 보도했다.

교회 브랜드 기관인 '럭스 데이 디자인' 크리에이

티브 디렉터인 폴 디 루카는 예배 장소 안에 맥도날드 프랜차이즈를 유치해 기금을 모으자고 '인디고고'를 통해 제안했다. 폴 디 루카는 NBC와의 인터뷰에서 "기독교가 현대인을 더 이상 전도할 수 없다"며 "교회 공동체가 혁신과 디자인에서 부족하다"고 말했다.



'맥 매스 프로젝트'는 지난 26일 인디고고에 올라왔다. 목표액은 100만 달러다. 첫날 104달러, 28일 142달러가 모금된 상태다. 디 루카는 모금액으로 프랜차이즈를 구입하는데 사용할 방침이다. 또 파터너 교회도 찾고 있다.

디 루카의 문제의식은 매년 300만명의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2013년에만 1만교회가 폐쇄됐다는 데서 출발한다. 7000만명의 사람들이 이용하는 맥도날드를 교회와 결합한다면 교회의 자립을 어느 정도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제안하고 있다. 디 루카는 이 프로젝트를 위해 티셔츠와 모자, 스티커 등을 판매할 계획이다.

디 루카는 "많은 사람들이 '영동한 생각'이라고 여기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며 "하지만 현대사회 속에서 전도하는 한 방법일 수도 있다"고 설명했다.

세계 최대 수상 크리스마스 트리 점등

세계 최대의 수상 크리스마스 트리가 불을 밝혔다. 브라질 리우 데 자네이루에서 29일 세계 최대의 크리스마스 트리의 점등식이 열렸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리우 시내 호드드리구 지 프레이타스 호수 가운데 세워졌다. 높이는 85m, 무게는 542t이다. 310만 개의 조명 전구로 장식됐다. 크리스마스 트리는 내년 1월 6일까지 매일 밤 켜진다.

수상 크리스마스 트리는 1996년부터 세워졌다. 이 수상 크리스마스 트리는 기네스북에도 올라갔다. 카니발 축제, 코파카바나 해변의 새해맞이 불꽃놀이와 함께 리우의 3대 관광상품 가운데 하나다.

한편, 상파울루 시에는 남미 최대 규모의 이비라푸에라 공원 앞에 54m 크기의 크리스마스 트리가 세워진다. 점등식은 12월 13일 열릴 예정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몰랐던 거룩의 진정한 의미와 능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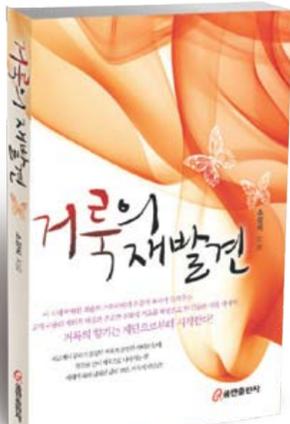
정결을 넘어 거룩으로 나아가는 길

레위기 속에 감춰진 값진 보화, 거룩의 재발견!

이 시대 탁월한 복음의 스토리텔러 소강석 목사가 들려주는 철저한 레위기 본문의 분석과 견고한 신학적 기초를 바탕으로 한

감동의 거룩 시네마!

거룩의 향기는 제단으로부터 시작한다!



259면 / 11,000원

거룩의 재발견

소강석 지음

한국교회 목회자와 성도들이 꼭 한번은 읽어야 할

완전한, 참 거룩의 의미를 깨우쳐주는 필독서



맨발의 소명자 소강석 목사

1995년 '월간 문예사조'로 등단하여 한국문인협회 회원으로 활동중이며 새에덴교회 담임목사로 시무하고 있다. 수많은 세미나와 부흥회 인도를 통해 다음세대를 이끌어갈 차세대 대표주자로 주목받고 있다. 특히 2008 한국기독교출판협회 선정 출판문화상 최우수상, 미틴 루터 킹 페어데드 집행위원회가 수여하는 국제평화상을 수상한 바 있고, 한국기독교선교대상, 한국기독교문화대상 및 대한민국 국민훈장 동백장을 수훈받았다. 일상각오의 목양정신과 아름다운 순경에서 나오는 그의 집필 활동은 많은 독자들에게 진정한 감동을 선사하고 있다.

함께 읽을만한 소강석 목사의 또다른 저서



생명의 나무 503면 / 16,000원



스택을 넘어 스토리를 만들라! 315면 / 12,000원



사경의 재발견 264면 / 10,000원



레위기의 산을 정복하라 288면 / 11,000원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59)

정성구 박사 | 한국칼빈주의연구원장, 종신대명예교수

성령과 구속운동과 설교사역

성령의 사역과 구속운동

카이퍼에 의하면 구원운동은 그 모든 과정에서 성령의 간섭과 위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즉 예정, 선택, 부르심, 회개, 믿음, 중생, 성화 등 모든 과정에서 말씀과 성령이 더불어 역사하신다는 것이다. 특히 성령께서는 성경을 깨닫게 하신분이요,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로 영접하게 된 것도 성령의 역사이며, 그리스도인으로 성장하며 성화되어 가는 것도 성령의 역사이다. 이 과정에서도 카이퍼는 성경이 그 중심에 있음을 역설했다. 즉 "성경이 멈추라는 곳에서 멈추어야 할 것이며, 즉 어려운 것은 설명되지 않은 채로 남겨두고, 인간의 어리석은 결과로써 덧붙이지 말아야 한다. 그러나 성경이 명백히 은총의 사역(het werk der genade)에 있어서 여호와의 주권적 능력을 주장하는 곳에서는 어떤 비평도 하지 말아야 하며, 인간이 하나님의 영광을 방해 하

나, 하나님의 주권(Gods heerlijke Souvereiniteit)에 대한 절대 순종을 방해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즉 카이퍼는 성령론을 전개하는 중에도 언제나 성경의 영감과 절대성을 빼놓지 않고 있다. 카이퍼는 성경을 성령의 사역이 탁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음을 보여

일체의 모든 사역을 성취시키려고 한다. 그러므로 그는 영혼을 구원하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을 이회시키는 객관적 은총의 사역을 완수한다. 뿐만 아니라 성령님은 생명을 소생시키신다. 죄인은 성령님의 소생시키미 없이는 도저히 살수가 없다. 그래서 교회는 항

는 것이다. 카이퍼는 인간의 전적 타락을 전제하면서 인간의 구원은 삼위 하나님께서 함께 역사한다는 것이다.

즉 "이런 구속사역(Verlossingswerk)은 엄밀한 의미에서 볼 때, 성령론만을 취급하는 것이 아니라 탁월한 영광으로써 구속사역 안에 삼위일체 하나님(Drieë"nigen God)의 왕적위임이 비취고 반영되는 것이다. 구속사역은 성령의 사역뿐 아니라, 성부와 성자의사역이 더욱더 포함된다. 그래서 이런 세 가지 사실에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자비한 사역을 본다"고 했다.

특히 카이퍼는 구원이 우리가 회개함으로 이루어진다는 교훈 자체를 거부한다. 왜냐하면 그런 식으로 생각하다보면 구원이 인간 스스로의 결정에 의해 되는 듯

이렇게 말한다. '우리는 하나님의 성령에 의해서만 중생되어진다' 역시 22조항에서 '우리가 이 위대한 참 지식에 도달됨은 성령이 우리의 마음속에 올바른 믿음을 갖고 하나님의 은유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다' 이 신비로운 배경에 대하여 우리의 조상 도르트는 외치기를 '사람의 가슴 속에 가득 찬 하나님의 속성은 중생케 하시는 성령의 효력 때문이며', 분명히 우리가 부르는 '신적 작용하심은 새 생명의 주입(注入)으로 우리의 마음을 감동케 하시는' 동일한 것이다"고 했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영원토록 성령님은 중생의 사역자요, 회개와 정의와 성화의 모든 단계 또는 영화와 구속을 받은 자들의 모든 축복의 사역자로 보았다.

들에게 함께해서 그 설교가 능력 있도록 하신다. 카이퍼는 주장하기를 택자들의 부름이 목사가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것이다. 중생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므로 스스로 돌아온다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권고와 확신에 의한 내적 소명이 있어야 한다고 했다. 증거 된 말씀에 의해서 외부로부터 소명이 있고, 그 다음 성령의 사역이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목사의 설교에 성령의 사역이 함께 할 때 그 설교는 진정으로 역사가 일어난다고 할 것이다. 설교자가 아무리 멋진 설교를 준비했다고 해도 성령의 사역이 없으면 무의미하다는 것이다. 성령께서는 설교자에게 역사할 뿐 아니라 중생의 마음속에 꼭 같이 역사하신다.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성령님이 성경 말씀과 함께 임하는 것이니, 그 말씀은 영감되고(Geinspieerd) 준비된 말씀이며 성령자신 즉 하나님이 준비하시고, 기록하게 하신 말씀이다. 그리고 성령은 자신이 자격을 주시고, 생기와 영적 식견을 가진 설교자들에 의하여 죄인들에게 말씀을 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성령님은 역사적 신앙고백의 발전과 목사들을 통해 얼마나 놀랍게 역사하며, 성령님은 형태로나 성경에서 설교자에게 찾아오시고 그에게 감동하시고 그를 사로잡으시는 것이다"고 했다.

중생은 성령의 권고와 확신에 의한 내적 소명 있어야 설교자도 주님의 도구, '탁월한 설교자'란 말에 조심

이 되어버린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은혜 곧 성령님의 사역이 있을 때만 회개가 된다는 것이다. 카이퍼는 구속사역에 있어서 성령의 역할을 논할 때는 주로 돌트신경(Dordt Canon)과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을 따르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신조는 8조에서

성령과 설교사역

카이퍼는 성령의 사역이 설교자들과 함께 하신다고 했다. 성령께서 설교자를 통해서 일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선포를 통해서 진행된다. 성령께서 사역하실 때 자격을 갖추고, 기쁨 부음 받은 설교자

(9면으로 계속)

칼럼 음악목회 (41)

교회음악의 역사와 그 영역

송규식 목사 | 차세대연구원소장



교회음악의 영역이 어디까지인지 먼저 생각해보겠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음악의 범주는 대체로 예배(구약에서 제사)에 귀속된 것이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민족은 예배와 분리시켜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음악역사 저자인 어거스트 빌헬름 암부르스는 "히브리인의 음악은 예술이 아니고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자체"라고 했습니다. 구약에서 실제적인 최초의 음악은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찬양하는 형태의 음악으로 출애굽기에 나타납니다. "내가 여호

와를 찬송하리니 그는 높고 영화로우심이요...여호와와 나의 힘이요, 노래시며, 나의 구원이시로다"(출 15:1-2). 구약시대 제사음악의 보편적인 특징은 여호와를 중심으로 한 화려하고 장엄한 3000명 등과 같은 큰 성가대와 240명의 나팔수와 같은 대관현악단 그리고 춤추는 사람들까지 제사에서 음악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었습니다. "나팔 부는 자와 노래하는 자들이 일제히 소리를 내어 여호와를 찬송하며 감사하는데 나팔 불고 제금 치

고 모든 악기를 울리며 소리를 높여 여호와를 찬송하여 이르되 찬하시도다 그의 자비하심이 영원히 있도다 하매 그 때에 여호와와 전에 구름이 가득한지라, 제사장들이 그 구름으로 말미암아 능히 서서 서기 못하였으니 이는 여호와와 영광이 하나님의 전에 가득하였더라"(대하5:13-14). 이렇듯 제사에서 사용된 음악은 규모면에서나 예배 성격적으로도 아주 다양했습니다. 물론 구약성경에 나타난 음악이 모두 제사음악만은 아니었습니다. 히브리인들은 음악을 좋아하는 민

족으로 그들의 삶의 음악 또한 함께 발전하였습니다. 그 예로는 라백의 노래나 모세와 미리암의 노래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이지만 제사와는 달리 법계를 운반하는 노래나 드보라의 노래, 또는 우물파기 노래 등 생활 속에 자리 잡은 음악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음악들도 종교적 성향과 결코 무관하지 않았으며 모든 삶 자체가 하나님 중심이었기 때문에 삶의 음악 역시 종교적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신약시대에 와서 음악의 형태가 변해온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구약에서 제사에 거의 귀속되었던 음악으로서 큰 규모의 성가대와 관현악 같은 형식이 없어지고 구약시대의 삶의 노래와 같은 형태로 발전했는데, 악기를 사용했다는 기록이 거의 없이 백성들 속에서 전도자의 삶을 사신 예수님을 중심으로 음악은 발전하였습니다. 또한 구약의 음악은 외적으로 웅장하고 의식적이었지만 신약에서의 음악은 규모는 작지만 내적으로 신령한 노래로 복음적인 성격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구속사역이 완성된 후로 초대교회가 시작되었는데 당시 박해 받은 성도들의 찬송은 더욱 영적으로 발전하였으며 은밀한 곳에서 부르는 찬송이었기에 악기 없는 무반주 음악으로 불려졌던 것입니다. 그리고 기나긴 중세시대를 지나 오면서 무반주 음악으로 계속 진행해오다가 르네상스 시대에 이르러 무반주 다선음악의 절정을 이루게 되었습니다. 반면에 중세교회와 교황이 왕권 위에 군림하고 있으면서 나라와 백성들의 삶의 중심이 교회가 되었고 음악 또한 매우 종교적이었습니다. 그러나 르네상스를 분기점으로 문예부흥과 더불어 인본주의가 싹이 트면서 교회 안에 갇혀있던 음악이 조금씩 교회 밖으로 나오기 시작하였습니다. 더불어 기악도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기악 음악이 예배에만 귀속된 것이 아니라 독립적인 음악의 형태로 발전하였는데 소형 미사곡에서 연주용 대형미사곡으로, 예배용 칸타타

에서 오페라와 같은 극적인 오라토리오로, 무반주 음악에서 반주 있는 음악으로 발전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가 명확히 해야 할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창조물입니다. 예배음악이든 연주용 음악이든 생활음악이든 모든 음악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마치 하나님의 은혜 중에는 일반은혜와 특별은혜(구속의 은혜)가 있듯이 음악도 모두가 하나님의 선물이지만 다만 하나님께 드려지는 음악인가? 사랑을 위한 음악인가? 두 갈림길에서 교회음악의 범주는 결정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론 그 음악이 교회 안이라는 테두리에 국한하지 않고 어느 장소에서든 어떤 형태로 연주되든지 그 내용이 복음적이고 영적으로 하나님 중심적이라고 한다면 그 음악은 곧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차세대연구소: (714)699-0210

조성근목사 부흥성회 일정

조성근 목사

갈멜산 금식기도원(안양·강화·LA)담임 나사렛대학교 겸임교수/GST(신학생 훈련단체) 대표 개혁주의설교학회 이사/KWMA 운영이사 총신대학교(Th.M/Th.D.cand)/미국 ORU(D.Min)



1월 1일 송규영신, 신년예배 1일 ~ 9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신년축복 기도성회 2일 평화의 동산 기도원(피종진목사) 10일 ~ 12일 청파중앙교회(김향우목사) 13일 오산리 최자실기념 금식기도원 12일 ~ 15일 우리들교회(김호경목사) 16일 ~ 25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9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26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월 3일 ~ 6일 GST 32nd 신학생 훈련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7일 ~ 19일 용인 신세계교회(문홍구목사) 20일 ~ 2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1일 ~ 23일 LA 베이커스필드 한인장로교회(한재신목사) 23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3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4월 3일 칼빈대학교·대학원 채플 7일 ~ 9일 목동거리교회(최현규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0일 ~ 23일 신생중앙교회(김연희목사)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5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 4일 시애틀 성회(최민하목사) 12일 ~ 15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25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5일 ~ 28일 하늘비전교회(오영택목사)	6월 9일 ~ 11일 명주대교회(김강덕목사) 15일 주품교회(최성은목사) 16일 ~ 19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24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6일 ~ 29일 LA 나성동산교회(한기형목사)	7월 1일 ~ 1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6일 LA 베이커스필드 정원교회(지동근목사) 14일 ~ 1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8일 25일 드림교회(김여호수목사) 27일 신학생 철야 기도회(GST) 28일 ~ 31일 갈멜산 강화금식기도원(강화)	8월 4일 ~ 7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5일 평화의동산기도원(피종진목사) 11일 ~ 14일 GST 33rd 신학생훈련 18일 ~ 20일 용인교회(권영호목사) 21일 ~ 30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9월 1일 ~ 6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3일 ~ 16일 말레이시아 KL중앙교회(이충일목사) 17일 양문교회(정영교목사) (극동방송 소망의기도 차유회) 21일 ~ 23일 오병이어교회(김형제목사) 24일 블레스 샬터교회(고영수목사) 25일 칼빈대학교, 대학원 채플 28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10월 15일 ~ 7일 포일남교회(김영주목사) 13일 백석대 실천신학대학원 강의 13일 ~ 16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9일 ~ 22일 승헌교회(김학기목사) 23일 ~ 31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11월 1일 ~ 8일 LA 미주 갈멜산기도원(미국) 2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6일 LA 주님의영광교회(신승훈목사) (마리를 블레스 집회) 10일 ~ 13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6일 ~ 19일 영동제일교회(노태진목사) 19일 GoodTV "멘토특강 희망드림" 20일 ~ 22일 수정교회(조일래목사) 24일 ~ 26일 대성교회(홍기용목사) 27일 민족복음화 부흥사역연구원 강의 30일 신도철 철야기도회(GST)	12월 1일 ~ 3일 영신교회(이영무목사) 8일 ~ 11일 갈멜산금식기도원(안양) 14일 ~ 21일 GST 미션리서치(캄보디아) 28일 신학생 철야 송년회(GST) 31일 갈멜산금식기도원 송규영신예배
--	---	---------------------------------------	--	--	---	--	--	--	--	--	---

미주 갈멜산기도원 매일 기도성회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예배가 있습니다

갈멜산금식기도원 경기도 안양시 만안구 예술공원로 117번길 32 ☎(031)472-7212 www.galmelsan.or.kr

미주 갈멜산기도원 3123 W. 8th St. #210 Los Angeles, CA, 90005 ☎(213) 382-1450

아담은 언제 창조되었을까? 수많은 크리스천들의 궁금증이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미 우리에게 답을 주셨다.

성경의 역사를 가장 심도 있게 연구한 어셔(James Ussher, 1581-1656) 주교에 의하면 창조의 시작은 BC 4004년이다 (James Ussher, The Annals of the world. Master Books, 2007). 어셔의 연구는 단순히 성경에 기록된 숫자만을 고려한 것이 아니다. 무려 7000개의 참고 자료가 들어 있는 방대한 연구 결과다. 과학자일 뿐 아니라 신학자로서 역사에 관심을 가졌던 아이작 뉴턴(1642-1727)도 어셔 주교의 연대를 받아들였다. 그렇다면 인류의 역사는 수백만 년 혹은 수십만 년 전이 아니라 이제 막 6000년을 넘었을 뿐이다. 이 성경의 역사에 대해서는 세상 학자들은 물론 진화론의 역사에 영향을 받은 많은 크리스천 학자들마저도 믿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아담이 언제 창조되었는지를 궁금해 하

창조과학 칼럼 (214)



최우성 박사 (생리학, 창조과학선교회)

다 그의 손에 (23) 만들어진 인류의 조상들

정법으로 측정하지 않을까? 단산하게 해결 될 것이다. 하지만 그들은 연대를 측정할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측정하기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다. 왜 그럴까? 진화의 증거로 제시한 수백만 년 되었다는 그 두개골들이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의 한계인 10

존재하는 모든 유기물들은 수만 년 이내의 것들이 썩는다. (그러나 방사성 탄소의 증가 현상을 지구 자기장 감소 속도로 보정하면 수천 년으로 떨어지게 된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사실을 숨기고 있다.

진화론자들이 숨기고 있는 최근의 예를 들면, Thomas Seiler 박사 그룹이 10마리의 공룡 화석을 방사성 탄소로 연대측정을 하였다. 이 결과는 싱가포르에서 개최된 학회인 AOGS-AGU에 보고되었다(2012년 8월 15일). 진화론자들은 공룡들이 중생대(2억-6500만년 전)에 살다가 멸종된 파충류라고 믿고 있으나 탄소 동위원소로 측정된 결과는 모두 4만 년이 채 되지 않았다(물론 이 수만 년도 지구 자기장의 감소 현상을 적용하면 수천 년이 된다). 이 결과에 의하면, 현대인이 20-10만년 전에 출현했다고 주장하므로 공룡과 사람이 함께 살았어야 한다. 이런 심각한 문제점이 발생하기 때문에 그

영성칼럼



이희녕 사모 (뉴저지복음장로교회)

우로가 지름길이라?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은 그들을 이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보면 뉘우쳐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였음이라”(출 13:17).

주께서 부르시면 여차과 빈손으로 가야하는 인생입니다. 그런데 마지막 순간까지도 놓지 않고 움켜지는 갖가지 모양새의 탐욕들... 세상 사랑, 자기 사랑, 자기 소원 사랑은 가히 생명과도 바꿀 정도로 질기고도 강합니다. 그러나 간이라도 빼줄 듯 하다가도 조금이라도 자신에게 피해가 온다 생각되면 순식간에 안색을 달리함이 이해가 됩니다. 우리의 간사한 성정을 너무나 잘 아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기에 불과 바로가면 며칠이면 갈 곳을 광야 길로 우리를 몰고 가시지요. 조금만 힘들어도 당장 뒤돌아서 개가 토한 것을 도로 삼키듯이 세상으로 돌아갈 우리입니다. 광야 길은 인생의 것 다 놓아버리는 연습장입니다.

우리를 돌아보는 세상 사랑에서 자유케 해주시려는 주님의 깊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당하는 고통이 크다 해도 이는 믿음의 시련일 뿐입니다. 결코 죽이지도 싫어 버리지도 않으십니다. 믿는 자에게 닥치는 모든 고난은 마음에 깊은 신뢰의 대상을 드러내는 창구입니다. 이 고난을 통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것처럼 신뢰하는 것을 배우게 됩니다. 초죽음의 훈련을 통해 차차로 주님의 선하시고 인자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께 조금씩 다가갈게 됩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의 성품을 따르며 기다리다보면 버림 받은 것 같은 상태에서 머릿돌이 되는 주님의 크신 상을 받는 날이 옵니다. 완전히 기진하여 포기상태에서 기적의 손을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다 동원해보았기에 꺾이지 구원이 하나님에게서 왔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계속 의심해도 참아주시고 바라볼 때까지 손을 놓지 않으시는 하나님! 우리의 성과 같지 않은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이시니 얼마나 은혜인지요. 하나님은 주는 복은 마다하고 언제나 우리 나오지 않을 영혼한 곳에서 우물 파는 이런 못난 것들을 머리 그리도 무궁히 사랑하시어 기다려주시고 인자를 베풀어주시는지! 하나님의 인자하심은 참으로 끝이 없으십니다.

“주님만 따르겠어요” 매일 매일 고백합니다. 하나 마음은 온전히 주님이 임하시는 지성소가 되기를 너무나 가슴쓰는 입술의 고백뿐임을 애용합니다. 아직도 순화되지 못한 참 마음, 험기와 욕망, 아름답게 포장해 그대로 살아있고 주님께 드릴 것이 없습니다. 주님께 드릴 기쁨도 너무나 살고 명들어서 과연 주님께서 쓰실 수 있었는지요? 자기 의로 가득 찬 이 사람입니다. 통회하는 심령, 애용하는 마음으로 나아옵니다. 참으로 당신의 인자는 크고 커서 온 땅에 스며있네요. 시도 때도 없이 주님의 이름만 불러도 달려와 주시는 하나님! 모든 상처 다 닦아내시고, 눈물을 닦아주시고 한없이 안아주시며 달래주시는 하나님! 제 못한 것을 하나님의 탓인 양 투정해도 그저 다 받아주시는 너그러우신 아버지~ 당신의 무궁한 인자하심을 영원히 기뻐 찬양합니다!!

주님을 기뻐합니다. 주님의 사랑을 즐거이 기뻐 누립니다!

이메일 : heenlee55@hanmail.net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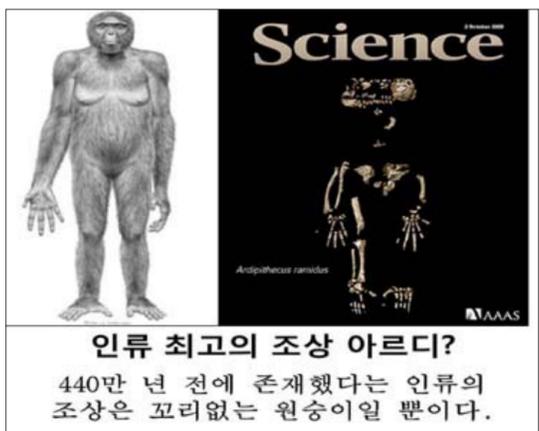
어셔 주교가 밝힌 창조 시작은 BC 4004년... 아이작 뉴턴도 동의 수억년 났다는 석탄 석유 다이아몬드에 상당량 방사성 탄소 검출

는 질문을 하게 되는 것이다. 창조 과학자들이 주장하듯이 만약 성경의 역사가 성경 그대로 사실이라면 증거들이 있어야 할 것이다. 물론 그 증거들은 수십억 년 혹은 수백만 년 혹은 수십만 년의 장구한 세월이 사실이라는 증거들도 될 것이다.

진화론자들이 주장하는 인류의 조상들

진화론자들은 인류가 침팬지와 갈라져 진화하기 시작했다고 하는 때를 대략 600만년 전이라고 한다. 이 진화 과정에서 존재했다고 주장하는 증거들은 다음과 같은 것들이 있다. 멸종한 인류의 조상 유인원들로 440만년 전의 아르디(Ardi), 390만년 전의 라톨리(Laetoli) 발자국의 주인공부, 320만년 전의 루시(Lucy), 220만년 전의 호모 하빌리스(Homo habilis), 180만년 전의 호모 이렉투스(Homo erectus) 등이다. 진화론자들은 이런 조상들을 거쳐 마침내 20-10만 년 전에 현재 인류인 호모 사피엔스(Homo sapiens)가 존재하게 되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진화론에서 말하는 수백만 혹은 수십만 년이란 연대는 측정할 숫자가 아니다. 그렇다면 왜 진화론자들은 발견된 두개골의 연대를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



내 방사성 탄소는 점점 더 그 양이 줄어들게 될 것이다. 시간이 더 오래 되면 체내에 남아 있는 방사성 탄소의 양이 너무 적어 기계로 측정할 수 없게 될 것이다. 이 한계 기간이 이론상 10만 년인데 실제로는 5-6만 년만 지나면 방사성 탄소를 검출하기가 곤란하다. 따라서 진화론자들은 10만 년 넘는 화석이나 뼈들은 방사성탄소 연대측정법으로 연대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에 측정하지 않는다는 그럴듯한 변명을 한다. 그러나 그들이 진정으로 진리를 알고 싶은 과학자들이라면 측정을 해서 방사성 탄소가 측정치 이하임을 보이면 문제가

학회는 Seiler 박사 그룹의 보고를 삭제해버렸다. 진화론자들이 진화론에 거북한 문제들을 얼마나 적극적으로 감열하여 없애버리는지 단적으로 볼 수 있는 경우였다. 하지만 youtube에는 그 발표 내용이 고스란히 올라와 있다(https://www.youtube.com/watch?v=QbdH31UjPQ).

가장 많은 과학자들을 인터뷰한 것으로 알려진 작가 슈리브(James Shreeve)는 과학자들이 연대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마음대로 결정하고 있는 참담한 실상에 대해 다음과 같이 한탄을 하고 있다. “화석이 변덕스럽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다. 그 뼈들은 당신이 듣고 싶은 노래를 부를 것이다”(Shreeve, Argument over a woman, Discover 11(8):58, 1990).

앞에서 수백만 년 전의 인류의 조상으로 소개되었던 진화의 증거들의 연대는 측정해서 나온 것이 아니라 진화론에 맞도록 주어진 것들이란 말이다. 물론 그것들은 모두 다 꼬리 없는 원숭이들이 지 원숭이와 사람의 중간 형태다 아니다. 진정한 진화의 증거들이 아니라 만들어진 진화의 증거들이었다. 인류의 조상인 아담은 이미 성경에 기록되어 있듯이 불과 6000여 년 전에 창조되었다.

이메일: mailforwscchoi@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동부(NY, NJ) 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 기도회: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후 6:00 Tel: (718) 637-1470 45-50 162 St, #2F1, Flushing, NY 11358		뉴욕갯세마네교회 담임목사: 이지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 기도회: 오전 11: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6:00 Tel: (718) 358-6225, Fax: (718) 762-4683 45-75 Parsons Blvd, Flushing, NY 11355 www.nygetsemane.org	뉴욕목양장로교회 담임목사: 송병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 성경부: 오후 8:00 금요일 기도회: 오전 9: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718) 361-9198, Fax: (718) 361-9433 40-05 Skillman Ave, Sunnyside, NY 11104 www.moakyang.org	뉴욕빌라델비아장로교회 담임목사: 김혜천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 성경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주일학교: 오전 11:00 Tel: (516) 883-1977, Fax: (516) 883-1961 2 Beacon Hill Road, Port Washington, NY 11050	뉴욕새벽별장로교회 담임목사: 정기태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영예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성경부: 오후 1:15 수요일 찬양부: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화-토) Tel: (917) 733-7387 45-16 162 St, #204, Flushing NY 11358 chungkiaee@yahoo.com	뉴욕새사람교회 담임목사: 이종원 주일 예배: 오전 10:30 영예 예배: 오전 10:45 수요일 기도회: 오후 8:30 금요일 찬양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주일학교: 오전 10:30 Tel: (718) 461-2810(Fax: Flushing), (917) 373-3411 46-04 162 St, Queens, NY 11358
뉴욕새생명장로교회 담임목사: 허윤준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 기도회: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전 6:00 Tel: (718) 482-7788, Cell: (917) 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뉴욕순복음안디옥교회 담임목사: 이만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금요일 찬양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718) 461-7835, CP: (718) 938-1777 45-65 162 St, Flushing, NY 11358 www.nyantioch.com	뉴욕중부교회 담임목사: 김재열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Website: nybc.org Tel: (718) 279-2757, 2758, Fax: (718) 279-1823 252-00 Horace Harding Expwy, Little Neck, NY 11362	뉴욕초대교회 담임목사: 김승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EYM에 예배: 오후 1:30 화요일 성경부: 오후 10:00 수요일 성경부: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00(월-토) Tel: (718) 639-3021, Fax: (718) 507-6376 210-10 Horace Harding Expwy, Bayside NY 11364	뉴저지성도교회 담임목사: 허상희 주일 예배: 오전 11:00 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10 새벽기도회: 오전 5:40(화-금) 금요일 기도회: 오전 6:30 (매주 1주, 3주) Tel: (201) 342-9194, Fax: (201) 943-5204 309 State St, Hackensack, NJ 07601 http://sungdochurch.org/	리빙스톤교회 담임목사: 유상열 주일 예배: 오전 10:50 주일 2부예배: 오전 10:50 청년성경공부: 오후 1:30 주일학교 찬양부: 오후 12:30 주일학교 찬양부: 오후 1:30 수요일 찬양부: 오후 8:30 Tel: (718) 961-2171, Fax: (718) 961-3631 37-57 104 St, Flushing, NY 11368	롱아일랜드성결교회 담임목사: 김석형 주일 예배: 오전 11:30 영예 예배: 오전 9:45 수요일 예배: 오후 8:30 금요일 찬양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www.gospelus.org Tel: (516) 333-1757, 목남: (516) 746-4084 190 Ellison Ave, Westbury, NY 11590
선한목자교회 담임목사: 황영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45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 찬양부: 오후 9:00 새벽기도회: 오전 6:45 금요일 찬양부: 오후 8:45 Tel: (718) 482-7788, Cell: (917) 349-5631 211-06 48th Ave, Bayside, NY 11364 www.nakwonchurch.org	에벤에셀선교회 담임목사: 최창섭 주일 1부예배: 오전 10:45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수요일 예배: 오후 8:30 금요일 기도회: 오전 9:00 Tel: (718) 482-7788, Cell: (917) 349-5631 220-16 Union Turnpike Bayside NY 11364 http://emcny.us/	에사라교회 담임목사: 손한권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347) 733-4551 41-05 45 St, Sunnyside NY 11104	주미전교회 담임목사: 이규본 주일 1부예배: 오전 12:30 주일 2부예배: 오전 6:00 금요일 성경부: 오후 5:00 영예 예배: 오후 1:00 Tel: (718) 787-8999, bonrhee@hotmail.com 70 Plandora Rd, Manhasset, NY 11030	킨즈성도교회 담임목사: 김성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15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Tel: (718) 886-4040, Fax: (718) 358-7789 143-17 Franklin Ave, Flushing, NY 11355 www.kpcny.org	퀸즈한인교회 담임목사: 이규섭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NCF영어: 오후 1:30 Tel: (718) 961-1150 Fax: (718) 962-1151 89-00 23rd Ave, East Elmhurst, NY 11369 www.kcny.org	한마음침례교회 담임목사: 박미아클 주일 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수요일 예배: 오후 8:30 금요일 찬양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Tel: (516) 277-1103, Cell: (917) 922-0500 70 School St, Glen Cove, NY 11542 Email: repvskm@gmail.com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하와이 및 북미 지역		밴쿠버빌라델비아교회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성경부: 오후 7:00 목요일 기도회: 오전 7:30 금요일 찬양부: 오후 8:30 새벽기도회: 오전 7:30 금요일 찬양부: 오후 7:30 Tel: (604) 584-5780, Fax: (604) 584-5717 9135 132nd St., Surrey, B.C. Canada, V3V 5P6	브라질 서울교회 담임목사: 하경남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 Tel: 3277-1489, Fax: 3209-8343 Rua Joaquin Riza, 281 Cambuci S. Paulo Cep 01528-010	브라질 한인교회 담임목사: 한봉현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 Tel: 011-55-11-3270-9233, 3277-3141 R. Livreiro Alves 16- Liberdade SP CEP 01505-010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목사: 박재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주일 5부예배: 오후 5:00 주일 6부예배: 오후 7:00 Tel: (5511) 6693-9754, 6692-1165 RUA SANTA RITA, 215-PARI-SAO PAULO-SP-BRASIL	아르헨티나 제일교회 담임목사: 최광연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3:30 주일학교: 주일 12:00 Tel: (54) 114-631-1788 AV. CARABOBO 1253 CAP.FED., B.S., A.S., ARGENTINA	칠레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왕익상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전 9:00 주일 4부예배: 오후 7:40 유, 초, 중, 고등예배: 오전 9:30(주일) Tel & Fax: (562) 556-7828, (562) 341-0389 Santiago Correo - 3 Casilla 325 Chile	토론토 가든교회 담임목사: 정관일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 예배: 오후 2:00(영양) 수요일 성경부: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5:30 금요일 예배: 오후 7:30 Tel: (416) 490-9060 http://www.torontogarden.org/ 260 Yorkland Blvd., North York, ON M2J 1R7	파라과이선교본부교회 선교사: 임한곤 목사 파라과이선교회 회장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후 6:00 주일 4부예배: 오후 8:00 (1, 2, 3, 부 스페니쉬 설교) Tel: (595) 211-574-985 E-mail: hanikr@hotmail.net Cervantes NC, 1001, Asuncion-PARAGUAY	하와이 행복교회 담임목사: 이남수 주일 1부예배: 오전 9:30 주일 2부예배: 오후 11:15 수요일 예배: 오후 7:00 주일학교: 오후 5:30(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화-토) Tel: (808) 585-1859 1130 N. Limitz Hwy C-100 Honolulu HI 96817	호놀룰루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일구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30 주일 3부예배: 오후 12:30(영양) 주일 4부예배: 오후 7:00 수요일 예배: 오후 7:00 금요일 기도회: 오후 9:47 Tel: (808) 947-5252, Fax: (808) 947-5151 www.hawaiiichurch.org 2122 Metcalf St, Honolulu, HI 96822

박재호 목사, 오바마 대통령상 수상

사회봉사 건실생활 모범상...미주한인교계에 공헌

브라질 새소망교회 담임이며 세계한인기독교연립회 회장인 박재호 목사가 벼락 오바마 미국 대통령으로부터 사회봉사 건실생활 모범상을 받았다.

지난 11월 25일 로스앤젤레스 옥스포드 팔레스 호텔에서 열린 수상식에서 박 목사는 오바마 대통령이 수여하는 상장과 메달, 그리고 배지를 전달받고 "귀한 상을 받게 되어 기쁘고 감사하다"며, "더욱 모범적이고 진취적인 시민정신을 갖고 살아가도록 노력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박재호 목사는 지난 20여 년 동안 미국에서도 활발하게 교계 발전을 위해 헌신해왔다. 미주성결교회 총회장으로서 성결교회의 세계화와 복음 전파에 노력했으며 미주 웨슬리언연합회장을 역임하고 세계복음화대회, 또 본지가 주최하는 세계한인교회자세미나에서 수차례 주강사로 활동하면서 미주 한인교회의 발전에 공헌해왔다.

또 아주사파시픽 대학교 신학대학원과 캘리포니아신학대학원, 미국개혁주의신학교 등에서 교회 행정학 교수로 사역했고 현재는 미주찬송가공회 회장, 세계한인기독교연립회 회장으로 섬기고 있다. 특히 성결월드미션 총재로서 사회봉사단체를 후원하는 다양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

저서로는 "조직신학", "교회행정", "교회음악", "개체교회 목회" 등 30여 권이 있다.

(박준호 기자)



오바마 대통령 사회봉사 건실생활 모범상을 받은 박재호 목사



미주한인전국재단 전국지도자대회 및 차세대리더십 컨퍼런스가 JJ그랜드 호텔에서 열렸다.

2014미주한인전국재단 전국지도자대회

차세대리더십 컨퍼런스 및 출판기념예배도 가져

미주한인전국재단(총회장 이우호 목사)이 주최한 전국지도자대회 및 차세대 리더십 컨퍼런스, "한반도에 찾아오신 하나님" 출판기념예배가 열렸다.



생명찬교회에서 열린 바이블네비게이션 세미나에서 강사로 나선 김동일 목사가 열광하고 있다.

'신본주의 성경읽기' 강조

바이블네비게이션 세미나, 강사 김동일 목사

신본주의성경읽기사역원이 주관한 바이블네비게이션 세미나가 생명찬교회(담임 김동일 목사)에서 12월 1일과 2일 이틀간 열렸다.

목회자 대상으로 열린 첫날 세미나는 생명찬교회 담임이자 신본주의 성경읽기 세미나 강사인 김동일 목사가 강사로 나서 성경전반에 대해 강의했다.

1일 오전에 열린 세미나에서 김동일 목사는 "많은 목회자들이 성

경의 전체흐름에 대해 오해를 하고 있다. 이러한 오해가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변질시키고 있다"고 지적하고, "신본주의 성경읽기는 내 생각대로가 아닌 하나님 뜻 안에서 성경을 읽는 것"이라 설명했다.

김 목사는 "현대성경비평의 고질적 죄악이 있다. 그것은 성경을 단지 인간의 산물이라는 전제하에 작업한 것"이라며, "많은 사람들이

에

가 육조에 들어갔을 때 물 온도를 높여 질식사 당하도록 했다. 한 달 사이에 콘스탄틴의 수족으로 헌신했던 두 사람이 죽임을 당하고 말았다. 요즘처럼 과학적인 방법도 동원하여 검증할 수도 있었을 텐데 말이다.

이 불륜의 사건에 대해 후대 역사가들은 다른 의견을 제시한다. 즉 콘스탄티누스의 총애를 입고 있고 자식을 육남매나 둔 실질적 파우가 있는 아내 파우스타가 자신의 열산된 아이들을 후계자로 삼기 위해 거짓으

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이다. 전처의 아이들을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하려고... 마치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성추행으로 덮어 씌웠던 것처럼이다. 그 귀여운 손자가 방심할 틈을 틈어주며 할아버지를 찾았을 때 얼마나 큰 후회와 그를 힘들게 했을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고 후에 냉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 후회를 곱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콘스탄틴은 이런 일로 수도 로마에 대해 경미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배가 지난 19일과 20일 LA JJ그랜드 호텔에서 개최됐다. 지난 20일 열린 "한반도에 찾아오신 하나님" 발간 축하예배는 윤우경 회장(O.C평신도연합회)의 사회로 최학량 목사(남가주교협 증경회장)의 기도 후, 이우호 목사가 인사말을 했다.

이어서 김도석 목사, 임용근 의원, 조중규 의원이 각각 축사를 하고 박희민 목사가 다니엘 6장10절 말씀을 본문으로 설교했으며 송정명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21일 오전 8시에 조찬기도회를 가졌으며, 오전 9시30분부터 미주한인전국재단 9대 제4차 전국포럼이 있었다. 또 22일에는 조찬기도회와 차세대리더십 세미나 및 장학식상식을 오전에 열었으며 오후에는 제9대 미주한인전국재단 정기총회를 가졌다.

(박준호 기자)

덴을 이야기하면서 선악과에 대한 오해가 있다. 선악과를 왜 만들어서 인간이 타락하게 만들었느냐고 볼 것이 아니라, 선악과야말로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명확하게 규정해 놓은 것으로 봐야 한다. 즉 경배를 받으셔야 하는 창조주와 경배를 해야 하는 피조물의 표시"라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창세기 3장에 가인과 아벨의 제사사건은 하나님을 떠난 자와 하나님을 믿는 자로 봐야 한다. 가인은 하나님을 떠난 자다. 세상에서 하고 싶은 대로 살던 자였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떠난 자의 제사를 받으실 수 없었다. 마치 노동착취를 당하고 임금 1센트를 올려달라고 시위를 한 노동자 56명을 살해한 랍탈로의 십일조와 같다. 이러한 제사를 하나님께서 굳이 받으실 이유는 없었겠다. 반면 아벨의 제사는 하나님을 믿는 자의 제사였기에 하나님은 그 제사를 받으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성경을 해석할 때 성경에서 말하는 원래의 의미에 충실해야 한다"며 "이러한 충실함이 있는 후 적용을 해야 하며 적용은 다양하게 나올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바이블네비게이션 세미나는 8일과 9일 평신도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박준호 기자)



크리스천 법률칼럼



지니 정 변호사

오바마 추방유예 구제법안

오바마 대통령이 11월 20일 새 이민개혁 행정명령을 전격 발표 후 뜨거운 감자로 떠오른 새 행정명령 중 추방유예 구제 법안에 대해 간단히 알려드리겠습니다.

추방유예 구제법안 주요 내용

- ▲청년추방유예(DACA)확대 -2010년 1월1일 이후로 미국에 꾸준히 거주해온 1981년 6월 15일 이전 출생자로 확대.
- DACA 노동허가카드 기간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
- ▲시민권자/영주권자 자녀를 둔 서류미비자 부모들의 추방유예(DAPA)
- 자녀들이 2014년 11월 20일 이전 출생이어야 한다.

- 2010년 1월 1일 이후로 미국에 꾸준히 거주한 것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 신원조회 후 범죄전과 기록이 없어야 하며, 세금도 내야 한다.
- ▲시민권자의 자녀/영주권자의 배우자와 자녀
- 불법 체류로 미국에 최소 180일 이상 거주한 경우.

오바마 대통령이 단행한 새 이민개혁 행정명령으로 500만 이상의 불법체류 이민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수혜자들은 일단 추방이 유예되고, 합법적인 노동허가 취득이 허용되며, 거주지 주법에 따라 운전면허 취득이 가능하고, 각 주정부의 규정에 따라 일부 공공혜택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구제법안 시작 시점은 다음과 같습니다. 청년추방유예(DACA) 신청은 90일 후인 내년 2월경, 시민권자나 영주권자 자녀의 부모 추방유예(DAPA) 신청은 180일 후인 내년 5월경으로 예고하고 있습니다.

불법체류자 500만 명 추방유예 기대 속에 이번 혜택에서 제외된 600만 소외층은 여전히 어둠 속에 살고 있습니다. 이들도 어둠에서 탈출할 수 있는 그 날이 속히 오길 기대해봅니다.

전문인과 상세한 상담을 받으시고 규정된 서류 접수료 해당되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으시길 권합니다.

▲문의: (213)427-9750

살롱장로교회 추수감사주일 예배

살롱장로교회(담임 나성균 목사)가 지난 23일 추수감사주일을 맞아 예배와 행사를 가졌다.

나성균 목사는 살전 5:16-18을 본문으로 "왜 감사를 전천후로 드려야 하는가"에 대해 설교했다. 나목사는 "먼저 항상 기뻐해야 할 이유는 구원을 위한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랑과 역사로 성자께서 손수 십자가를 지시고, 성령께서 그 구원을 적용시키셔서 마침내 기쁨의 근원이신 아버지 하나님과 원수됨을 무너뜨리시고, 하나 되게 하시어 그 하나님 때문에 늘 기뻐하게 됐고 늘 기도해 이 기쁨을 빼앗으려는 사탄의 역사를 이기고, 하나님과 늘 하나되라"며, "이 기쁨과 기도를 잘 유지해 감사가 넘치게 됨"을 전했다.

나 목사는 또 "구원을 주시고 역경도, 심지어 실수도 합력해 선을 이루게 해주시므로 전천후 감사를



담임 나성균 목사가 설교하고 있다.

드릴 수 있다"며, "이는 모든 상황을 돌보시고 사랑과 큰 능력으로

를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그랬기에 감옥에 갇혀 모든 것을 빼앗기고 불행과 절망의 모든 심연 속에서도 사도 바울은 기뻐하려고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려고 권면했고, 그 기쁨과 기도가 전천후 감사의 근거가 된다"고 역설했다.

이날 예배 후에는 각 가정에서 가져온 커버드 디시로 여전도회에서 준비한 음식과 함께 큰 잔치를 벌였다. EM들은 예배 후 정준승 목사 자택에서 모여 만찬을 즐기며 교제했다.

한편 이날 강단 아래에는 각 가정에서 정성스럽게 재배한 농작물을 진열해 풍성한 추수를 주신 현장을 같이 나눴으며, 앞으로는 더 많은 헌물을 드려 어려운 이웃과 나누기를 소원했다. 또 무엇보다 한 영혼을 추수감사 헌물로 값지게 드러보자는 운동을 활발하게 벌여 새생명 축제가 지속적으로 전개되기를 소망했다.

(기사제공: 살롱장로교회)

아브라함 카이퍼의 사상과 삶

(7면에서 계속)

설교자도 주님의 도구인 만큼, 설교자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이 아니라, 확실히 설교자는 청중들의 영적 상태를 알지 못해도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말씀의 안내와 준비를 하게 하신다. 설교자는 성령님의 내적 증거에 의해서 말씀을 바르게 깨달을 수 있게 하신다. 카이퍼에 의하면, 청중 가운데 설교자의 설교를 들은 뒤 "그 설교는 직접 내게 하는 설교다"라고 말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설교자가 어느 특정한 사람에게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그 사람에게 역사해서 그 자신에게 주시는 메시지로 받게 하시는 것이다. 설교자에게 일하신 성령께서는 청중에게도 같은 방법으로 역사한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유능한 설교자만이 구령운동에 큰 일을 한다는 선입편견을 버려야 한다. 왜냐하면 말씀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이시기 때문이다. 카이퍼는 이 문제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말했다.

"성경적으로 볼 때 설교자가 유능하다고 말하는 것은 위반된다. 두

사람의 목사가 있다 하자. 한분은 교리연구를 잘한 목사로, 다른 분은 가법적 신학공부를 마친 목사가 있다하자. 전자는 교회에서 개종자가 별로 없는데 반해서 후자는 회개하는 사람이 많을 수도 있다. 그 이유는 하나님의 주권이 이런데 있는 것이다. 다윗은 사울의 많은 군대의 장수가 가졌던 창과 같은 없었지만 몰렛들로 대적했으나 거인 골리앗을 죽인 것이다. 설교자가 행하는 모든 것은 그의 주님께 순종하는 것일 뿐, 그가 말씀사역을 한다 해도 그것 역시 주님이 함께 하신 결과이다"고 했다.

그러므로 설교자가 늘 조심해야 할 것은 '탁월한 설교자', '유능한 설교자', '은혜가 풍성한 설교자'란 칭찬을 조심해야 한다는 것이다. 왜냐하면 성령께서 하신 일을 마치 설교자 한 것처럼 칭찬과 영광을 받는 것은 합당치 않다는 것이다. 성령의 사역은 성도가 중생자가 되도록 하는 단순한 사역뿐 아니라, 전파된 말씀에 의하여 각자의 심령과 생활의 깊이에 들어가서 효과 있게 하는 역사도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성령님은 설교자들의 능력과 상상을 강하게 하고 영적인 상황을 이해하도록 조명을 하신다는 것이다.

카이퍼 박사는 시종일관 성령의 사역의 중요성을 강조하되 성령께서 설교자와 청중에게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의 구속사역을 완수해가시는 것이다. 카이퍼는 설교자가 독단적으로 무엇을 할 수 있을 듯이 덤비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또 설교 시에 청중 자신의 결단에 의해서 구원이 좌우되는 듯 한 발언도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라고 했다. 카이퍼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즉 "당신은 스스로 회개하지 않으면 안된다"라는 선언은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하는 것이요, 죽은 죄인이 아직도 무엇을 스스로 할 수 있다는 뜻이다. 이런 이유 때문에 설교자는 하나님의 주권을 포기해서는 안된다"고 했다.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가 아니면 죄인이 회개할 수도 없고 성령의 역사가 없으면 죄를 깨달을 수 없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함께 하셔서 죄를 생각나게도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보좌 앞에 나아가게도 하신다. 카이퍼는 설교에 있어서도 인본주의 사상을 배격하고 하나님 중심 신앙으로 바로 이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음호에 계속)

(4면에서 계속)

두 사람 사이에 육남매나 두었고, 콘스탄티누스의 친정 식구들(막센티우스)과 불화할 때 언제나 남편 쪽에서 친정을 대항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가정직 때문은 불륜의 소문으로 황제는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다. 이 소문에 대한 보고를 받은 콘스탄틴 황제는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는지 전선에 나가있는 사령관 아들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도 않고 독약을 마시게 해버렸다. 또한 헬레나는 머느리 파우스타

로 소문을 퍼뜨렸다고 말이다. 전처의 아이들을 후계자의 자리에서 밀려나게 하려고... 마치도 보디발의 아내가 요셉을 유혹하고 뜻대로 되지 않자 성추행으로 덮어 씌웠던 것처럼이다. 그 귀여운 손자가 방심할 틈을 틈어주며 할아버지를 찾았을 때 얼마나 큰 후회와 그를 힘들게 했을까? 영조가 사도세자를 죽이고 후에 냉정을 되찾게 되었을 때 후회를 곱씹을 수밖에 없었던 것처럼 말이다.

콘스탄틴은 이런 일로 수도 로마에 대해 경미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이런 일로 수도 로마에 대해 경미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이런 일로 수도 로마에 대해 경미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이런 일로 수도 로마에 대해 경미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이런 일로 수도 로마에 대해 경미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이런 일로 수도 로마에 대해 경미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콘스탄틴은 이런 일로 수도 로마에 대해 경미하게 떨어지게 되었다.

동부교계 게시판



퀸즈장로교회 성탄절 찬양의 밤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가 주최하는 성탄절 찬양의 밤 "엘리아"가 12월 14일(주) 오후 4시 열린다.
 ▲문의: (718)886-4040

뉴욕원로목사회 12월 월례회 날짜 변경
 뉴욕원로목사회(회장 소의섭 목사) 12월 월례회 날짜가 변경됐다. 16일(화) 오전 10시30분 만나교회(담임 정관호 목사)에 모여서 우병만 목사와 이순덕 권사와 함께 찬양시간을 갖고 11시부터 예배를 드리게 된다. 12월 초정교회는 엘리자베스교회(담임 소재신 목사)로 미주미 식당에서 오찬을 대접한다.
 ▲문의: (516)236-1707

뉴욕교협 이웃사랑 실천 성금모금
 뉴욕한인교회협의회(회장 이재덕 목사)가 연말연시 이웃사랑 실천 성금을 모금한다. 마감은 12월 31일(수)이며 체크는 교협사무실(Check Payable to "C.K.C.")로 보내면 된다.
 ▲문의: (718)358-0074

"빵과 복음의 효과 극대화 시킨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4 후원자의 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회장 박진하 목사) 2014 해외아동결연 후원자의 밤이 지난 30일 선한목자교회(담임 황영진 목사)에서 열렸다. 이날 한국 기아대책 홍보대사 유은성 가수와 페루 김종원 선교사 등이 참석해 찬양과 간증의 시간을 가졌다.

1부 사역보고 시간에는 박진하 목사의 환영인사에 이어 유은성 홍보대사의 찬양, 유상열 사무총장의 임원소개, 영상으로 결연아동 소개와 콜롬비아 사역지 방문 영상, 후원사역 경험 나누기 등으로 이어졌다.

박진하 목사는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미국과 가까운 남미를 중심으로 사역을 전개하고 있다"며, "지난 8월 방문했던 콜롬비아 아구아다 지역은 게릴라가 출몰하는 지역이지만 빵과 복음의 효과가 극대화 되고 있음을 직접 눈으로 확인했다"고 말하고 "앞으로도 여러분을 대신해 복음의 많은 열매와 사랑을 맺을 것"이라고 인사했다.

유은성 가수는 "기아대책 홍보대사로 5년째 사역하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북한에 40명 등 총 50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며, 그간의 사역을 소개하고 "기아대책은 타 NGO와 달리 구제와 함께 복음을 전하는 단체"라고 강조하며 후원을 호소했다.

페루 김종원 선교사는 "작년에 차 사고가 났는데 그 이후 순교가 가까이 있음을 깨닫고 10년간 연락

을 끊은 아버지, 친구 등과 화해했다"고 말하고 "30일 동안 안데스 오지마을을 찾아다니는데 내년 1월부터 또 시작하게 된다"며 "아직도 선교사역은 외롭고 부담스럽지만 하나님에 대한 열정으로 영혼에 주름지지 않게 사역하겠다"고 말했다.

또 지난 8월 콜롬비아 방문에 대해서 전희수 목사, 이종명 목사, 임병남 목사가 간증했다.

전 목사는 아이들 생일잔치 때 받은 감동을 나누며 "여러분이 오병이어의 주인공이다. 기도의 동역자가 돼 달라"고 말했다.

이 목사는 "실제 방문하면 눈물 없이 볼 수 없다. 불쌍한 영혼들을 하나님 앞으로 인도해달라"고 호소했다.

임 목사는 "월 30달러가 어떻게 쓰이는지 실제로 확인하려고 갔는데 많은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2부 감사만찬은 관계대리인 목사의 사회로 후원자들과 참석자 모두에게 선물을 증정하고 5년간 후원한 선한목자교회, 리빙스톤교회, 뉴욕 평화교회, 강성아가페교회, 효성교회에게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날 행사는 이종명 목사의 폐회 기도로 마쳤다.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는 2007년 설립돼 2009년부터 아동후원을 시작했으며 현재 콜롬비아, 페루 등 6개 국가에 70여명의 아동을 후원하고 있다.

(유원정 기자)

우리 모두 감사왕... "어려워도 감사하자"

퀸즈장로교회 추수감사절 터키만찬의 밤



퀸즈장로교회 추수감사절 예배에 앞선 만찬에서 김성국 담임목사가 기도하고 있다.

추수 감사절을 맞아 지역 교회들이 감사 행사를 가졌다. 매년 성도들과 이웃을 초청해 터키 만찬과 감사예배를 드리는 퀸즈장로교회(담임 김성국 목사)는 2014년 추수감

사절을 맞아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주제로 추수감사절인 27일 오후 6시 만찬의 시간을 갖고 7시30분부터는 분당에서 감사예배를 드렸다.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세대와 언어를 막론하고 모두 참석했다. 김성국 목사는 "감사왕"(시 136:1-6)이라는 제목의 설교에서 "세상에는 왕들이 많다. 세일즈 왕, 스포츠 왕, 유튜브 조회수 왕 등은

이 땅에 기네스북이나 신문에 기록되겠지만 하늘나라 책에 기록될 왕은 감사왕"이라고 말했다.

김 목사는 "감사할 것을 찾아서 감사하는 것도 좋지만 좋을 때보다 어려울 때 감사해야 감사 왕이 될 수 있다"며, "예수님이 우리에게 다가오는 죄의 죽음 지옥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기위해 우리를 밀치기도 하신다. 그럴 때 화를 내면 되겠는가. 어려울 때도 십자가 주님의 사랑을 감사하는 감사왕 감사의 길이다. 구약의 감사왕 다윗, 신약의 감사왕 사도 바울처럼 우리 모두 감사왕이 되자. 우리가 가진 것에 감사하자. 어려워도 감사하자. 어려움은 더 큰 어려움을 막아주는 은혜의 시간이다"라고 역설했다.

설교는 영어 통역과 함께 이중언어로 진행됐다.

설교 후에는 감사 간증과 가족들의 감사의 찬양이 진행됐다. 간증은 김애화 교우와 남형욱 집사가 했으며 가족찬양은 교회에 출석하지 얼마 되지 않은 정해성 집사가, 롬아일랜드 7지역 교우들, 교회설립 1주년부터 퀸즈장로교회에 출석한 허경화 장로 가족 등이 했다.

또 교육부 어린이들의 성경암송도 있었으며, "주의 모든 일에 감사드리며" 감사 찬양, 김성국 목사의 감사기도와 축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정리: 유원정 기자)



뉴욕예일장로교회 김종훈 목사(오른쪽 두번째)와 박성원 나눔의집 대표(가운데)

뉴욕예일장로교회, 뉴욕나눔의집에 성금전달

뉴욕예일장로교회(담임 김종훈 목사)가 지난달 26일 한인노숙인비영리전문기관인 뉴욕나눔의집(대표 박성원 목사)을 방문해 풍성한 과일바구니와 쌀, 금일봉을 전달했다.

교회 각 기관들의 정성을 모아 전달한 김종훈 목사는 "노숙인들이 위로와 희망을 잃지 않고 새로운 삶을 살면 좋겠다"는 소감을 전했다.

박성원 목사는 "날씨가 갑자기 추워진 이날, 나눔의 집에서 지내고 있는 노숙인들에게 예일교회의 방문은 추운 겨울의 훈풍처럼 다가왔다"며 감사했다.

뉴욕나눔의 집은 한인노숙자 쉼터 운영을 위해 후원천사 운동을 전개하고 있다. 후원천사가 되는 방법은 일시후원과 정기후원이 있으며, 정기후원은 1구좌당 10달러의 후원금을 내면 된다. 후원연락처는 (718)683-8884 박성원 목사.

플러싱에 있는 뉴욕나눔의 집 운영시간은 월-금 오전 7시-오후 5시, 주일 오전 6시-오전 8시 30분이며 커피와 간단한 식사, 휴식 공간, 무선인터넷, 무료상담(소설, 법률, 정신과, 건강, 성경공부 등)이 제공된다.

(기사제공: 뉴욕나눔의집)



미동부국제기아대책기구 2014 후원자의 밤을 마치고 임원 및 출연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중부교회 비전랜드 착공식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기념촬영 했다.

뉴욕중부교회 비전랜드 예배당 착공식 15년 숙원...21에이커 총설립비 2천2백만 달러

뉴욕중부교회(담임 김재열 목사)가 총 설립비 2천2백만 달러에 달하는 비전랜드 신축 착공예배를 지난 30일 오후 5시 공사현장에서 드렸다.

중부교회는 15년전 LIE(495) 39번 출구 인근에 교회건축을 위해 21에이커를 구입했으나 건축허가를 받지 못하다가, 오랜 기도 끝에 타운의 건축허가를 받고 클로징을 한 후 본격적인 공사시작을 알린 것. 건물 완공까지는 앞으로 1년 반 정도의 기간이 걸린다.

김재열 목사는 "어느 한 교회건축 프로젝트가 아니라 미주한인교회를 대표하는 선진적인 그리고 신앙적인 이정표가 될 것을 기대하면서 이번 공사에 임하게 됐다"면서 기도를 부탁했다.

뉴욕중부교회 비전랜드는 LIE(495) 39번 출구에서 1-2분 거리 걸리는 교통의 요지에 위치해 있다. 21에이커(2만6천평)의 땅에 6만 스퀘어피트 정도의 예배시설, 교육시설, 체육시설 등이 세워진다. 주차장은 300대의 주차가 가능하다.

예배당은 9백석 규모로 영어권 예배당은 따로 있으며, 차세대들을 위한 소예배당이 4개 정도 세워진다. 또 30여개 교실과 1천5백명 수용 실내체육관, 농구장, 테니스장, 축구장이 세워진다. 또 북카페, 카페테리아, 오피스 룸들도 만들어진다.

김재열 목사는 "앞으로 크리스천 스쿨, 시니어를 위한 데이케어센터, 예체능교실, 선교비전센터도 계획하고 있다. 한인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지역사회에 도움이 되기를 바라는 비전을 가지고 출발한다"고 말했다.

김재열 목사는 착공예배에서 "교회, 진리의 기둥과 터"(딤후3:15)라는 제목의 말씀을 전했다. 김 목사는 "△교회는 천국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 △교회는 진리의 기둥이 되는 곳이다 △교회는 축복의 전당이다"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했다.

이날 비전랜드를 건축할 회사인 RMA회사의 대표 로 매스너 RMA회사의 인사가 있었다. 동 회사는 지난 61년 동안 1,797개 교회를 세운 바 있다. 또 한재홍 목사가 축사했다.

예배후 관계자들과 중부교회 성도들은 착공예배의 상징인 첫 삽 뜨기를 했다. 중부교회 성도들은 기도의 제목을 접은 종이로 종비행기를 만들어 하늘에 날리며 비전랜드에 대한 꿈과 기도를 하나님께 전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우병만 목사가 쌀을 나눠주고 있다

교회일보 '2014년 행복 쌀 나눔' 행사

뉴욕 퀸즈 커뮤니티 어려운 한인들에게 희망과 행복 안겨주기 프로젝트로 기획된 '2014년 행복 쌀 나눔'행사가 지난달 27일 오후 2시부터 플러싱 노던 156가 위치한 H-마트 앞에서 열렸다.

교회일보(대표 우병만 목사)가 제공하고 퀸즈희망나눔재단(사무총장 김진철)이 주관한 행사에는 1차적으로 코코강애아동서비스센터(대표 전선덕)를 비롯 12개 단체에 일정량의 쌀이 제공됐으며 바우처를 지참한 600여명의 저소득층 한인들에게 배부됐다.

교회일보 대표 우병만 목사는 "교회일보 대표 우병만 목사는 "힘들고 어려울 때 일수록 나누며 배려하며 살아야 한다"며 희망과 용기를 잃지 말아 달라고 당부하고, "쌀 한 포대를 가져가 한 집안에서 따뜻한 밥을 먹는다면 한가정당 4명 기준으로 볼 때 4000명 이상이

혜택을 보는 것"이라고 밝혔다.

쌀로 준비된 1000포대의 쌀은 고 이택주 박사(전 건국대학교수)의 부인인 조순선(전 송도중고등학교 교장) 여사, 한국전력공사 조환익 사장, 김명목 코이카 이사장(전 뉴욕총영사) 등 12명이 고국에서, 토니 정 김(브루클린 로우 스쿨 재학) 학생 등 뉴욕지역에서도 일부 지원금을 후원했다.

뉴욕한인목사회 회장 이만호 목사의 축복기도로 실시됐으며 뉴욕한인교회협의회 회장 이재덕 목사는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것이다. 오늘 이 한포대의 쌀에는 주님의 사랑이 담겨진 것으로 이 쌀을 먹는 모든 이들과 가정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은총이 충만하기를 바란다"고 축사했다.

(정리: 유원정 기자)

15년간 성지순례를 인도해 온 **이스라엘 알리아 선교회(I.A.M)의 KNOW-HOW와 파이오니아 성지순례 전문여행사(SINCE 1986년)**의 풍부한 경험이 합쳐진 명품 순례

이스라엘, 요르단, 터키, 그리스, 로마 성지순례팀 대모집

〈2015년 봄 성지순례 일정〉

2015. 2.16-2.24 - 이스라엘 전 일정 순례 (8박9일)	\$2,299
2015. 2.16-2.26 - 이스라엘-이집트-요르단3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 9 - 터키 소아시아 일정(7박8일)	\$1,999
2015. 3. 2-3.12 - 터키, 그리스 2개국(10박11일)	\$2,699
2015. 3. 2-3.14 - 터키, 그리스, 로마 3개국(12박13일)	\$3,199

〈※ 위외가격은, 15명 이상 LA 출발 기준이며, 금년 9월-10월 등 동시 가능한 가격입니다. 비행기 요금에 따라 가격변동이 있을 수 있습니다〉

- * 차별화된 명품 성지순례, 옵션이 없는 순수한 성지순례, 기독교 역사적, 선교적 관점으로 진행하는 순례, 교회들이 원하는 맞춤형 순례, 젊은이들을 위한 단기순례 및 정담, 한국 성지(선교지)순례 등등..
- * 특별혜택사항 : 항공, 호텔, 버스, 음식(한식포함), 편안하고 여유있는 스케줄, 현지 한국 가이드의 질적 우위와 합리적이고 저렴한 가격의 경쟁력
- * 성지순례 및 항공권 문의전화번호: 714-351-0124
- * 성지순례 프로젝트 팀장: Paul 최 목사(15년간 성지순례 인도)
- * E-mail : choign1115@gmail.com
- * **모든 항공권 가격 최저 보장!** 언제든지 문의하시면 바로 확인시켜 드립니다!!!

AUTHORIZED **adidas** DISTRIBUTOR

태권도 검도 무술장비 전문업체

DYNAMICS **다이나믹스**

www.dynamicsworld.com

교회 로고프린트 티셔츠 50벌 이상 \$5
 교회 로고 프린트 자수타월
 광고배너 / 교회배너 제작

T. 516.354.8484 F.516.354.8383
 245-14 JERICHO TPKE, FLORAL PARK, NY 11001

www.laguesthouse.com

LA GUEST HOUSE
LA 호텔식 하숙

LA GUEST HOUSE
 Olympic Blvd.
 김소현기 | 한남재민

965 Fedora St, Los Angeles, CA 90006 (올림픽 김스 전기앞)
 Tel, 213,487,5446 Cell, 213,663,9181 Email, laguesthouse@live.com

35대 회장단 및 33대 이사장단 취임

OC 기독교평신도연합회 이취임 감사예배



OC기독교평신도연합회 회장단 및 이사장단 이취임을 마치고 참석자들이 단체사진을 찍고 있다.

오렌지카운티 기독교평신도연합회(회장 신복수 장로, 이하 평신도 연합회)는 제35대 회장단 및 33대 이사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11월 30일 오후 5시 감사한인교회(담임 김영길 목사)에서 열었다.

이날 감사예배는 본 연합회가 OC 전도회연합회에서 평신도연합회로 명칭변경을 한 후 처음 갖은 행사다. 유우경 회장은 인사말에서 "회장으로서 어깨가 무겁다"고 운을 떼며 "15년간 본 협회에 관계해 일해 왔다. 지나온 날들을 볼 때 많은 분들의 지도편달이 있었기에 사역을 감당해올 수 있었다. 2015년도의 협회사업은 OC지역의 교회들의 협조가 이루어져야 가능하다. 평신도 연합회가 바른길로 갈 수 있게 많은 도움 바란다"고 말했다.

신복수 신임 이사장은 "34대 회장을 지낸 후 하나님의 일을 좀더 해보라고 이사장직을 맡기신 거 같

다. 연합회가 새 이름을 바꾼 만큼 새로운 것밭까지도 나아가려고 한다. 많은 기도와 협력 바란다"고 말했다.

한창훈 부이사장의 사회로 시작된 감사예배는 부회장 조승국 집사 기도를, 찬양사역자 조영석 전도사(OC제일장로교회)와 이은수 목사가 특별 찬양했으며, 김영길 목사가 '눈이 올 때 구덩이에서 사자를 죽인 사람'(삼하23:20-21)이라는 제목으로 도전의 말씀을 전했다.

이어 OC한인회 김기동 회장, 자마 대표 강순영 목사, 라팔마 시의원 스티브 황보 장로, 중부교회회장 허귀암 목사, 임혜민 KCCD회장, OC장로협의회 회장 김중대 장로, OC교회회장 김기동 목사가 축사했으며, 신복수 신임이사장과 유우경 신임회장의 인사말이 있었으며 감사패 증정과 화기전달이 있었다.

이날 감사예배는 연합회 초대회장 양만국 목사의 축도로 마쳤다. 한편 평신도연합회는 오는 14일(주) 오후 5시 가든그로브에 위치한 동보성에서 연말행사를 갖는다. <박준호 기자>

서부교계 게시판

OC교협 제24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

오렌지카운티기독교교회협의회(회장 김기동 목사)는 제24대 회장단 이취임 감사예배를 오는 7일(주) 오후 5시 나침반교회(담임 민경엽 목사)에서 갖는다.

▲문의: (714)321-1891 신현철 목사, (213)255-0296 박재만 목사

2014 아주사 동문의 밤

아주사퍼시픽대학교 한인총동문회(회장 광경동 목사)는 2014 아주사 동문의 밤을 8일(월) 오후 6시30분부터9시까지 본교 이스트캠퍼스 LACP Room & President Dining Room(901 E. Alosta Ave, Azusa, CA)에서 개최한다.

▲문의: (909)938-2711

라크마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라크마 챔버 콰이어&오케스트라(지휘 윤임상 교수)가 주최하는 크리스마스 패밀리나이트 음악회가 오는 12일(금) 저녁 7시30분 한길교회(담임 노진준 목사)에서 열린다. 티켓은 20달러. ▲문의: (818)378-8286

더텐트 1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공연

더텐트(대표 방다니엘 목사)는 파킹랏 콘서트 1주년 기념 크리스마스 공연을 '오 해피데이'라는 주제로 오는 13일(토) 오후7시 가주영어학교 특별무대(639 S New Hampshire Ave, LA)에서 갖는다. 이번 콘서트는 재즈싱어 전은선, 소프라노 어유경, 힐사운드(장슬기, 하지애), 김홍훈, 홍세영, 박승환, 헤븐스밴드, 헤이필드 청소년 오케스트라, 색소폰양상일이 출연한다. ▲문의: (213)999-4909

평화의집 후원의 밤 콘서트

발달장애우를 위한 제9회 평화의집 후원의 밤 콘서트가 함께 웃고, 함께 우는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주제로 오는 14일(주) 오후 5시30분 홀러턴장로교회(담임 노진걸 목사 511 S Brookhurst Rd)에서 열린다. 이날 콘서트에는 찬양사역자 박해경 씨가 출연한다. ▲문의: (714)357-8986, 743-2326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창립 35주년 추계 대 부흥집회가 성황리에 열렸다



나성소망교회 남장금 & 무료B형간염검사 행사를 지난 추수감사절주일인 23일에 실시했다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설립35주년 추계대부흥집회

'회복되게 하소서' 주제 이필재 목사 강사로

토랜스제일장로교회 설립 35주년 기념 추계 대부흥집회가 '회복되게 하소서'라는 주제로 11월 28일부터 30일까지 본 교회 설립목사인 이필재 목사(영태대학교 이사장)를 강사로 초청한 가운데 성황리에 개최됐다.

이필재 목사는 "10년 만에 설교단에 서서 감회가 새롭다"고 운을 떼며 "교회가 지난 10년간 분절과 분열로 어려움을 겪었다. 그 결과 교회의 모습은 잃어버리게 돼 매우 슬프다"고 말했다. 이 목사는 "교회의 주제처럼 집회를 통해 비교가 회복되고 새롭게 변화되길 바라며, 반드시 그렇게 되리라는 믿음이 있다. 그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강사로 참여하게 됐다"고 말했다.

환석근 목사의 사회로 시작된 첫날 집회는 이경욱 장로가 기도했으며 이필재 목사가 '구원이란 무엇인가'(요3:16, 17)라는 제목으로 설교했다.

이 목사는 "토랜스제일장로교회의 현실은 우리가 잘못해서 그렇게 된 것이다. 누구를 탓해서는 안 된

다. 과거 예배시간에 자리가 없어서 복도에 의자를 더 놓아야 했다. 소방관이 찾아와 안전문제로 예배당 바깥에 설치된 의자를 철거하라고 권고를 받고 고민하던 시절이 있었다. 그러던 교회가 왜 이렇게 됐는가?"라고 꼬집으며 "이번 부흥회를 기점으로 교회의 회복이 이뤄지길 축원한다"고 말했다.

이필재 목사는 둘째 날 새벽 '은혜가 내리는 사람'(벤전5:1-6', 둘째 날 저녁 '함께 기도하며 섬기리'(행1:6-8', 주일예배 '하나님의 공평'(마20:1-16), 주일저녁 '한국교회의 과거와 미래'(마28:16-20)'라는 제목으로 각각 설교했다. <박준호 기자>

나성소망교회 무료B형간염검사 실시

150명 참가...남자들의 요리경연 축제도 가져

나성소망교회(담임 김재용 목사)는 지난달 23일 추수감사주일에 남장금과 무료 B형간염검사를 실시했다. 이 행사에는 150여명이 참여해 본 교회의 따뜻함을 이웃들과 함께 나누었다.

남장금은 남자들의 요리경연 축제인데, 해마다 펼쳐지고 있으며, 무료 B형간염검사는 세인트 빈센트 메디컬센터 내 아태간센터에서 지원해, 쉽게 병원에 가기 힘든 이민자들의 불편함을 덜어주었다. 담당 장미미 간호사는 이날 무료

B형간염검사를 못 받았어도, 나성소망교회 교인들이 병원을 내방하면 무료 B형간염검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김재용 목사는 이날 설교를 통해 "삼일절에 하나님께서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자녀를 홀로 독립적인 자녀로 강하게 키우기보다 이해는 소통할 수 있는 공동체성을 살려야만 교회와 사회가 희망이 있다"고 선포했다. <기사제공: 나성소망교회>



LA카운티 정신건강세미나가 '나와 우리 가족의 우울증' 주제로 미주평안교회에서 열렸다

'나와 우리 가족의 우울증' 주제로

LA카운티 정신건강국 주최 정신건강세미나

한인커뮤니티와 한인들에게 필요로 하는 정신건강 서비스 제공 및

증진을 위해 노력하고 있는 LA카운티 정신건강국(LACDMH)이 주최

한 LA카운티 정신건강세미나가 지난달 20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미주평안교회(담임 임승진 목사)에서 개최됐다.

'나와 우리 가족의 우울증' 주제로 열린 세미나는 살아가면서 누구에게나 찾아올 수 있는 우울증 극복

및 예방을 위해 한인교계 및 단체들을 대상으로 열렸다.

이 세미나를 통해서 스개인 및 가족의 건강한 정신 상태를 유지시켜 원만한 개인, 가정 및 사회생활을 하게 하며, A정신건강을 위협하는 위험 요인 및 스트레스, 더 나아가 우

울증을 가져오는 요인을 줄이고 △양으로의 변화와 도전에 삶을 잘 영위해 나갈 수 있는 대처방법과 스나 자신, 가족, 교인, 그리고 주위 사람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과 정보를 나눴다. <박준호 기자>

<h3>세계로 뻗어가는 교회</h3> <h2>서부(CA)교회안내</h2>				<h3>감사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영길 주일 1부예배: 오전 7:20 주일 2부예배: 오전 9: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후 7:30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영어예배: 오전 9:00, 11:00</p> <p>www.thanksgivingchurch.org Tel: (714)521-0991, Fax: (714)521-4636 6959 Knott Ave, Buena Park, CA 90620</p>	<h3>나성순복음교회</h3> <p>담임목사: 진유철 주일 1부예배: 오전 7:45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영성) 주일 5부예배: 오후 11:30 주일 6부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p> <p>lafgusa@yahoo.com / www.lafgca.com Tel: (323)913-4459, Fax: (323)913-4494 1750 N. Edgemont St., L.A., CA 90027</p>	<h3>나성영락교회</h3> <p>담임목사: 김경진 주일 1부예배: 오전 7:00 주일 2부예배: 오전 8:20 주일 3부예배: 오전 9:40 주일 4부예배: 오전 11:10 주일 5부예배: 오전 12:30 주일 6부예배: 오후 2:00(영성) 새벽기도: 오전 6:30(월~토)</p> <p>1721 N. Broadway Los Angeles, CA 90031 Tel: 323-227-1400 Fax: 323-227-0718 www.youngnak.com</p>
<h3>나성제일교회</h3> <p>담임목사: 김광삼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p> <p>Tel: (213)388-7101, F: (213)388-6564 213 S. Hobart Blvd., L.A., CA 90004</p>	<h3>나침반교회</h3> <p>담임목사: 민경엽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5:30 수요일예배: 오전 6:30 금요예배: 오후 8:00 주일예배: 오전 11:00</p> <p>Tel: (562)691-0691, F: (562)691-0698 1200 W. Lambert Rd., Brea, CA 92821 (Lambert & Puente) / www.nachimban.org</p>	<h3>남가주든든한교회</h3> <p>담임목사: 김현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전 11:00 금요찬양예배: 오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p> <p>Tel: (213)481-2779 / Fax: (213)481-3761 1645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26 LAsolidrock@gmail.com</p>	<h3>남가주리더교회</h3> <p>담임목사: 김요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목요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www.scrdm.org Tel: (213)215-8523, Fax: (213)977-1183 1838 S. Western Ave., L.A., CA 90018</p>	<h3>남가주사랑교회</h3> <p>담임목사: 노창수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10 주일 3부예배: 오전 11:10 (Holywave-영어예배) 주일 4부예배: 오후 1:10</p> <p>Tel: (714)772-7777, Fax: (714)772-0777 1111 N. Brookhurst St., Anaheim, CA 92801</p>	<h3>대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권영국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저녁 7:30</p> <p>Tel: (310)719-2244, Fax: (310)719-2229 15411 S. Figueroa St., Gardena CA 90248 www.dhkc.org</p>	<h3>동문교회</h3> <p>담임목사: 김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금요찬양예배: 오후 7:45</p> <p>Tel: (213)483-6625, Fax: (213)483-6675 1901 Beverly Blvd., Los Angeles, CA 90057 www.egkc.org</p>
<h3>중앙선교회</h3> <p>담임목사: 박홍은 1부 아침예배: 오전 8:00 2부 전례예배: 오전 9:30 3부 영어예배: 오전 11:00 4부 영어예배: 오후 12:30 수요일예배: 오후 7: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p> <p>Tel: (323)466-1234, Fax: (323)466-0816 424 N. Western Ave., Los Angeles, CA 90004</p>	<h3>디아스포라선교회</h3> <p>Korean Diaspora Mission Center 대표: 전영자 목사 "세계속에 흩어져 있는 우리의 품을 위해 일하는 선교회" 목요예배: 저녁 8:00 주일예배: 오후 4:00</p> <p>Tel: (626)793-0880, Fax: (626)793-0842 1213 Gabriel Garcia Marquez St., #B L.A., CA 90033</p>	<h3>드림교회</h3> <p>담임목사: 이성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1:30 젊은이 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p> <p>Tel: (626)793-0880, Fax: (626)793-0842 1305 E. Colorado Rd., Pasadena, CA 91106</p>	<h3>미주양곡교회</h3> <p>담임목사: 지용덕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 오전 5:30(매일)</p> <p>Tel: (213)380-9377, 9079 519 S. Western Ave., L.A., CA 90020</p>	<h3>미주평안교회</h3> <p>담임목사: 임승진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Holywave-영어예배) 새벽기도회: 오전 6:00</p> <p>www.mjpac.org Tel: (213)381-2202, Fax: (213)381-2535 170 Bimini Pl., Los Angeles, CA 90004</p>	<h3>빛과 소금의 교회</h3> <p>담임목사: 이정현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45(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p> <p>Tel: (310)749-0577 3521 Lomita Bl., #202-A Torrance CA, 90505</p>	<h3>베델한인교회</h3> <p>담임목사: 김한요 주일예배 1부: 오전 7:15 주일예배 2부: 오전 9:00 주일예배 3부: 오전 11:00 주일예배 4부: 오후 11:45 성인영양예배: 오전 11:00 대학원예배: 오후 1:00 금요예배: 오후 1:00(수요일)</p> <p>Tel: (949)854-4010 / E-mail: bethel@bkc.org 18700 Harvard Ave., Irvine, CA 92612 www.bkc.org</p>
<h3>복음장로교회</h3> <p>담임목사: 김상덕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영어예배: 오전 2:00(대학부) 금요예배: 오후 7:30</p> <p>Tel: (562)694-6214 1751 W. La Habra Blvd., La Habra, CA 90631</p>	<h3>브리지교회</h3> <p>담임목사: 장세경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15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수요일예배: 오후 5:30 새벽예배: 오전 5:30</p> <p>Tel: (626)339-6177 1067 E. Badillo St., Covina, CA 91724</p>	<h3>남가주삼성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신현규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영어예배: 오전 6:30(월~토) 중, 고, 대 청년부: 오후 7:30(월~토)</p> <p>www.samsungchurc.org / ysbyon@gmail.com Tel: (562)690-9800, Fax: (562)690-8044 501 S. Ldano St., La Habra CA 90631</p>	<h3>새천양교회</h3> <p>담임목사: 변윤선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월~토)</p> <p>www.newpraisechurch.org / ysbyon@gmail.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6269 Ball Rd., Cypress, CA 90630</p>	<h3>새생명선교회</h3> <p>담임목사: 김만수 영어 1부예배: 오전 9:30 영어 2부예배: 오전 10:30 성경공부: 오후 7: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금요예배: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00(주일) 중, 고등부: 오전 11:00(주일)</p> <p>Tel: (818)952-2449 1300S Colorado St., Glendale, CA 91205</p>	<h3>세계소망교회</h3> <p>담임목사: 오세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월~토)</p> <p>Tel: (213)745-9191(CH), 새벽(818)893-8607 824 W. Venice Blvd., L.A., CA 90015</p>	<h3>안다옥장로교회</h3> <p>담임목사: 지윤성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금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5:30(월~토) 금요예배: 오후 11:00</p> <p>Tel: (818)249-2871, Fax: (818)249-0516 www.iaopc.org 2720 Montrose Ave., Torrance, CA 91020</p>
<h3>얼바인침례교회</h3> <p>담임목사: 박경호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3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일예배: 오전 6:00(토)</p> <p>www.irvinechurch.org Tel: (949)857-9425 / Fax: (949)857-9472 5101 Walnut Ave., Irvine, CA 92604</p>	<h3>요셉선교회</h3> <p>담임목사: 정상호 주일 1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저녁 7:30 금요예배: 저녁 7:3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213)245-4090 Fax: (213)365-1670 301 S. Kingsley Dr. 2F-B L.A., CA 90020</p>	<h3>일서크리스천교회</h3> <p>담임목사: 엄규서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9:45(영어) 주일 3부예배: 오전 11:00(영어) 주일 4부예배: 오후 2:00(대학부) 새벽기도회: 오전 5:40(월~토) 주일예배: 오전 11:00 주일 2부예배: 오후 1:00</p> <p>Tel: (213)384-7274, Fax: (213)384-8638 3435 Wilshire Blvd. #101 L.A., CA 90010</p>	<h3>은혜한인교회</h3> <p>담임목사: 한기홍 주일 1부예배: 오전 7:30 주일 2부예배: 오전 9:2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주일 4부예배: 오후 2: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6:00(토) 세계기독교전도: 365일 24시간 온오프</p> <p>www.gracemc.com Tel: (714)446-6200, Fax: (714)446-6207 1645 W. Valencia Dr., Fullerton, CA 92833</p>	<h3>주님의영광교회</h3> <p>담임목사: 신승훈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30 주일 3부예배: 오전 1:00 주일 4부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오전 6:00(월~금)</p> <p>Tel: (213)749-4500, Fax: (213)749-6700 1801 S. Grand Ave., L.A., CA 90015 www.gjcc.org</p>	<h3>코너스톤 교회</h3> <p>담임목사: 이종용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수, 목, 금, 토, 일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p> <p>www.cornestonew.com / e-mail: pastor@cornestonew.com Tel: (310)530-4040(CH), Fax: (310)530-8400 2428 S. Vermont Ave. Harbor City, CA 90710-2303</p>	<h3>토랜스조은교회</h3> <p>담임목사: 김바울 주일 1부예배: 오전 8:0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영성) 수, 목, 금, 토, 일 오후 7:30 주일예배: 오전 11:30 주일 2부예배: 오후 2:00(영성) 주일 3부예배: 오후 3:00(영성) 장례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p> <p>www.torrancecc.org Tel: 310-370-5500, Fax: 310-370-2009 19950 Mariner Ave., Torrance, CA, 90503</p>

“한국선교 성장주의, 지나친 경쟁 불렀다”

KWMA 선교지도자 포럼... 선교사역 조정기구 필요

(새한국세계선교협의회(KWMA·대표회장 이영훈 목사)는 지난 27일 경기도 가평 '생명의 빛 예수마을'에서 제13회 한국선교지도자포럼을 열어 한국선교의 문제점을 토의하고 대안을 모색했다. 포럼에는 각 교단의 선교 책임자, 선교 단체의 지도자 등 150여명이 참석했다. KWMA 리서치팀은 지난 5개월간 조사하고 연구한 결과를 발표했다. 리서치팀원 한수아 미션벤처파트너스(MVP)선교회 본부장은 “구조적 측면에서 한국선교의 문제는 한국교회의 문제에서 비롯됐다”고 밝혔다. 그는 “한국선교의 성장 및 성장주의는 한국교회의 성장 및 성장주의 때문”이라며 “한국 선교가 지나치게 독립적인 것도 한국 교

단의 분열과 개교회주의에서 비롯됐다”고 설명했다. 한 본부장은 “이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선교 정책 및 제도를 수립해야 하며 이를 강제할 조직도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또 “성공주의로 인한 불필요한 선교 경쟁을 줄이기 위해서는 선교사들을 미전도 종족에 파송해야 한다”고 밝혔다. 같은 팀원 김연수 KWMA 국제총무는 “사역적 측면에서 볼 때 한국 선교사는 가시적 성과를 위해 개척교회의 수에 지나치게 집착한다”며 “협력하지 않고 경쟁적이며 현지에 한국교회의 지부를 세우는 듯한 자세로 사역한다”고 지적했다.

김 총무는 대안으로 “선교사의 정체성과 역할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

고 프로젝트보다 사람을 키우는 사역에 매진할 수 있도록 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 “한국 선교사로 임을 친목회에서 협의의 성격으로 전환하고 선교사역을 조정하는 리더십을 세워야 한다”고 제안했다. 개인적 측면에선 “선교사의 전전 재배치가 현실적으로 어렵다면 선교지 혹은 선교국 내에서의 전전배치를 추진하고, 전 세계 주요 나라에 한국형 국제학교를 설립해 선교사 아이들의 교육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문장 두레교회 목사는 ‘한국교회 선교의 미래’를 주제로 발표했다. 그는 “타문화권 선교에 유사문화권 또는 자문화권 선교로 선교 패러다임이 바뀌었다”며 “한국교회

는 독자적인 선교신학을 정립하고, 지교회 중심의 선교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또 “교단이 선교에서 행정적 지원에 그치지 않고 주요 역할을 맡으려면 교회, 교단 선교본부, 현장 선교사의 관계를 새롭게 정립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김종국 한인세계선교사회(KWMF) 대표회장은 ‘세계교회와 함께하는 한국선교에 대한 평가와 기대’라는 제목의 발표에서 “한국교회는 그동안 한국교회 방식대로 선교를 해왔다”며 “이제 교단을 확장하는 차원이 아닌, 하나님 나라 건설을 목표로 함께 어우러지는 선교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비효율적 선교 모임에 대한 비판의 소리가 만만치 않다”면서 “각종 선교 대회에 제3세계의 선교지도자들을 초청하고 한국이 아닌 선교 현장에서 모이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동성애 옹호 논란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 무산

시민위원회 회의 성소수자 차별금지 조항 놓고 격론

교계 및 시민단체들이 동성애를 옹호·조장할 우려가 있다며 반대해 온 ‘서울시민인권헌장’ 제정이 무산됐다. 오는 10일 ‘세계인권 날’에 열린 예정이던 헌장 선포식도 취소될 것으로 보인다. 서울시는 30일 보도자료를 내고 “지난 28일 인권헌장제정 시민위원회 6차 회의에서 합의안이 도출되지 않았다”면서 “앞으로 시민사회의 다양한 의견을 더 광범위하게 경청하겠다”고 밝혔다.

28일 열린 시민위원회 6차 회의는 4시간 이상 성소수자 차별 금지

조항의 포함 여부를 놓고 열띤 토론을 벌였다. 논란이 된 조항은 제1장 제4조 차별금지 사유다.

회의에선 이 조항에 대해 2개 안이 제시됐다. 1안은 ‘서울시민은 성별, 종교, 장애, 나이,···성적 지향, 성별 정체성, 학력, 병력 등 헌법과 법률이 금지하는 차별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2안은 ‘서울시민은 누구나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는 포괄적인 내용이다. 동성애 확산에 반대하는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2안을 지지해왔다. 서울시는 합의안 도출을 희망했

으나 상당수 위원들이 협의과정에 불만을 토로하며 퇴장해 180명의 시민위원 중 73명만 남았다. 남은 시민위원들이 표결을 강행해 1안으로 결정했지만 재적 과반수를 충족하지 못했고 ‘합의에 의한 제정’이라는 원칙에도 위배됐다. 서울시는 최종적으로 합의에 실패한 것으로 판단했다.

교계 및 시민단체들은 1안이 동성애를 옹호하고 조장하는 것이라며 지난 20일 열린 예정이던 제5차 시민공청회를 저지했다. 28일에도 서울시청 인근에서 집회를 열어 반대 목소리를 높였다. 동성애 옹호 단체들은 1안을 지지하며 맞불집회를 열었다.

심만섭 한국교회언론회 사무국장은 “여러 가지 잡음이 빚어지는데

해 관련자들의 책임이 크다”며 “시민 간 갈등을 초래하고 다수 시민을 역차별하는 헌장 제정은 완전히 중단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용희 에스더기도운동 대표는 “헌장에 동성애 외에도 사상 및 종교에 대한 차별금지 등 허용될 수 없는 조항들이 있다”며 “이런 것들은 표현과 양심, 신앙의 자유를 심각하게 훼손하기 때문에 마땅히 폐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홍 바른성문화를위한국민연합 기획실장은 “헌법에 누구나 평등하다는 조항이 있는데 왜 서울시가 이런 헌장을 새로 만드는지 이해할 수 없다”며 “새로운 갈등만 조장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기독교 위기상황...한국교회 적극 대처”

기독교학교교육연 학술대회, 교육질 향상, 정체성 강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소장 박상진 장신대 교수)는 29일 서울 마포구 백범로 서강대 정화상관에서 ‘기독교학교의 미래전망’을 주제로 제9회 학술대회를 열었다. 참석자들은 “한국교회는 기독교학교가 위기에 처했음을 직시해야 한다”며 “기독교교육의 필요성을 널리 알리고, 교육의 질을 개선하며 기독교학교의 정체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았다.

기독교학교의 미래를 분석한 박상진 교수는 “국가의 공교육 강화 정책 때문에 사립학교가 자율성을 확보하기 어려운 데다 기독교에 대한 부정적 인식, 학령인구의 감소 탓

에 기독교 학교의 미래는 결코 밝지 않다”고 전망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교육연구소 조사 결과 2006년부터 2014년까지 매년 12.2곳의 기독교대안학교가 생기고 4.2곳이 사라지고 있다”며 “특히 최근 3년(2011~2014년) 동안 해마다 16개 대안학교가 개교하고, 7.3개 학교가 문을 닫았다”고 말했다. 이어 “전국의 10개 기독교계 자사고의 경쟁률을 살펴본 결과 2013학년도는 1.49:1, 2014학년도는 1.15:1, 2015학년도는 1.04:1로 지속적으로 하락하고 있다”며 “이를 수치는 기독교학교의 미래가 밝지 않다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증거”라고 진단

했다.

박 교수는 “기독교학교의 밝은 미래를 위해서는 먼저 기독교 가정의 자녀들은 기독교교육을 받아야 한다는 인식을 확산시키고, 입시 위주 교육에서 탈피해 인성·영성 교육에 집중함으로써 경쟁력을 키워야 한다”고 말했다. 또 “자사고와 대안학교의 값비싼 학비도 학생감소에 직접적 영향을 미치는 만큼 교단별로 ‘기독교학교 후원회’를 조직하는 등 적극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공교육의 변화와 기독교학교의 대응’에 대해 발표한 한국교육개발원 김강환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공교육은 개인교육에 중심을 둔 현재의 자유주의 모델(미국식)에서 사회통합과 복지에 가치를 둔 자유기반 공동체주의 모델(북유럽)로 변화할 것으로 보인다”면서 “이 경우 국가의 역할이 강화되면서 민간 사립학

교의 역할이 위축될 가능성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사립학교의 역할이 축소되면 기독교학교의 입지 역시 위축될 것”이라며 “기독교 사립학교는 교육기본법과 사립학교법에 명시돼 있는 ‘자주적 교육을 할 권리’를 수호하고, 정체성과 사회적 책임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래사회가 요구하는 기독교학교의 과제’에 대해 발표한 우석대 강영태 교수는 “일제 강점기 기독교 학교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해 민족의 독립과 사회 재건에 헌신한 인재 양성에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 사회로부터 신뢰를 얻었다”고 말했다. 강 교수는 “오늘날 사회는 정의와 평화를 구현할 인재를 필요로 하고 있는 만큼 기독교학교는 학생들이 평등의식과 생명에 대한 존중심, 이타심을 갖추도록 양육해 신뢰를 회복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예장합동 평양노회는 전병욱 목사 면직하라”

기윤실 성명서

기독교윤리실천운동(기윤실)은 1일 성명을 내고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예장합동) 평양노회에 여성도 성추행 논란과 관련, 전병욱 목사에 대한 면직을 촉구했다. 기윤실은 성명에서 “우리는 전 목사의 성추행 사건을 초기부터 지켜봐왔고, 공개

서신을 통해 자숙과 사과를 촉구했지만 최근 재판과정에서는 자신의 성추행 혐의마저 부인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기윤실은 이어 “전병욱 목사의 성추행 사건은 다름의 여지가 없는 사실이다. 사건의 실체는 날뱀이 밝혀

졌고 한국교회의 도덕 수준은 땅바닥에 팽개쳐져 버려졌다”고 개탄한 뒤 “지금이라도 전 목사에 대한 합당한 처리를 통해 다시는 이런 일이 반복되지 않도록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것”이라고 예장합동 평양노회의 합리적 처리를 당부했다.

기쁜소식선교회 박옥수씨 수백억대 주식 사기

전주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이원근)는 기업 가치를 부풀려 신도들로부터 수백억원대 투자금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사기 등)로 기쁜소식선교회 설립자 박옥수(70)씨에 대해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30일 밝혔다. 박씨는 한국교회에서 이단으로 지목된

기쁜소식선교회와 국제정소년연합(IYF)을 설립한 장본인이다. 박씨는 2008년 5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자신이 실질적 지배권을 행사하고 있던 전북 전주의 보조식품업체 ㈜운화의 기업 가치를 부풀려 투자금 252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운화에는 자산이 거

의 없는데도, 분식회계를 통해 115억원 상당의 부당대출을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피해자들은 “박씨가 단순 식품에 불과한 ㈜운화의 제품이 ‘암, 에이즈 치료에 효능을 갖고 있다’며 허위·과장 광고하고 ㈜운화가 수천억원대 자산을 가진 회사로 성장할 것”이라고 속였다”면서 “신도와 가족 등 870여명의 피해자들은 3년 뒤 100%의 수익금을 보장한다는 말에

속아 액면가 5000원인 주식을 1주당 15만원에서 50만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주장했다.

기쁜소식선교회 관계자는 “박씨는 ㈜운화와 관련이 없으며 고문으로서 설교만 했다”면서 “변호사가 범법에 반박자료를 제출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1일 오전 11시 전주지법에서 열린다.

“템플스테이에 매년 200억 혈세 종교간 갈등요인 될 수도 있다”

“정부가 템플스테이 사업에 매년 약 200억원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은 종교 간 갈등의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의 혈세가 투입되는 사업인 만큼 철저한 사후관리를 통해 논란이 생기지 않도록 확고한 기준과 원칙을 세워 공정하고 투명하게 사업을 진행해야 합니다.”

황평우 문화재전문위원은 지난 29일 서울 중구 동호로 만해NGO육성센터에서 열린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 어디까지 해야 하나’라는 주제의 ‘2014 종교자유정책연구원 연구용역 결과발표 및 학술토론회’에서 “정부의 템플스테이 예산지원은 특정종교에 편중된 사업”이라

며 이같이 지적했다. 황 전문위원은 ‘정부의 종교문화재 예산지원의 타당성과 실태연구’ 발제문을 통해 문화체육관광부가 템플스테이 사업에 2012년 200억원, 지난해 195억원, 올해 205억원의 예산을 지원했다고 밝혔다.

올해의 경우 전용시설 구축에 45억원, 특화프로그램시설 구축에 45억원 등 시설비로만 95억원을 책정했다. 사찰지원 및 관리비로 41억 8200만원, 홍보 및 마케팅비로 24억 4700만원, 인력양성 7억 8000만원, 사찰음식 25억원, 사업단 운영비 11억 6300만원 등 사업비로도 110억원을 배정했다. 세부적으로는 속소,

공양간, 화장실, 가족·외국인용 특화시설 등의 신축 및 개보수 비용과 인건비, 교육비, 광고·이벤트·마케팅 비용까지 모두 혈세로 지원했다.

황 전문위원은 “정부는 템플스테이 사업이 전통문화 체험이라며 종교와 무관하다고 항변하고 있다”며 “그러나 템플스테이에는 예불, 공양, 참선 등 불교의식이 포함돼 있기 때문에 특정종교 지원이라는 비난에서 벗어나기 어렵다”고 밝혔다. 2004년 문체부 조사에 따르면 템플스테이 참가자 가운데 60% 이상이 무종교 또는 타종교인이었다. 템플스테이는 이들에게 불교를 전파할 수 있는 기회로 작용할 수 있다. 또 외국인관광객 유치라는 명분과 달리 2002년부터 2007년 8월까지 템

플스테이 이용자 가운데 외국인의 비율은 15%를 넘지 못했다. 그는 “이를 고려할 때 기독교계에서는 정부의 템플스테이 지원을 특정종교 포교를 위한 것이라는, 금지 않은 시선으로 볼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황 전문위원은 정부가 템플스테이 사업을 2012년 문화체육관광부 중무실에서 관광공으로 이관하면서 예산 명목은 ‘전통문화체험지원’으로 바꾼 데 대해서도 “기독교단체의 비난을 피하려는 편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는 “기독교단체의 반발에 굴복했다는 불교계의 비난을 감당할 수 없었기 때문에 찾아낸 방안이 담당부서를 바꾸는 꾀수를 낸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교연 새 대표회장에 양병희 목사 선출

제4회 정기총회, “반기독세력 맞서 연합 목소리 내겠다”

양병희 전 대한예수교장로회 백석 총회장이 2일 (새한국교회연합(한교연) 4대 대표회장에 선출됐다. 대표회장 선거에 단독 입후보한 양 목사는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에서 200여명의 총대가 참석한 가운데 열린 한교연 제4회 정기총회에서 참석자들의 기립박수를 통해 신임 대표회장에 뽑혔다.

양 신임 대표회장은 당선인사발에서 “한교연은 불과 4년의 역사밖에 되지 않았지만 가장 건강하고 복음적인 연합기구”라며 “앞으로 이름에 걸맞은 ‘연합’을 이뤄 나가는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외형적인 연합과 동시에 ‘가치의 연합’ ‘사교의 연합’ ‘표현의 연합’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양 목사는 “기독교에 대항하는 안티세력과 문화사조, 정치적 위협에도 적극적으로 맞서고 연합된 한목소리를 내는 한교연을 만들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교계 이슈가 되고 있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대표회장 이영훈 목사)와의 통합문제와 관련, 양 목사는 전날 국민일보와의 전화통화에서 “이단문제만 해결되면 언제든지 한기총과 합칠 준비가 돼 있다”고 밝혔다. 그는 “문제는 진정성”이라고 전제한 뒤 “그동안 이단 문제로 사회법정에 소송을 일삼는 일들이 적지 않았다. 앞으로 이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단으로 규정된 교단의 신학자와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충분한 토론의 자리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양 목사는 “현재 한기총에서 ‘선 통합 후 논의’를 주장하지만 그건 좀 문제가 있다고 본다”면서 “우리는 진정성을 담아 한기총과 대화하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양 기관 통합위원회를 구성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교연은 이날 총회선언문에서 한국교회의 지난날을 반성하고 갱신을 다짐했다. 한교연은 우선 “과거 하나님께서 한국교회에 부여하신 넘치는 은혜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세상에 하나님의 사랑을 증언하는데 바로 사용하지 못한 잘못을 회개한다”고 밝혔다.

또 “한국교회가 오늘날 사회로부터 신뢰를 잃게 된 것은 우리 모두의 자만과 불순종의 결과”라며 “서로를 보수, 진보의 잣대로 단죄함으로써 교회에 다름과 분열이 일어나게 된 것도 분명 내가 아니라 내 잘못”이라고 반성했다. 선언문은 이어 “우리 모두는 뼈를 깎는 각오로 결단으로 스스로를 개혁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새 옷을 입고 주님의 몸을 바로 세워나가는 교회일치, 갱신운동에 온 힘을 쏟을 것을 다짐한다”고 밝혔다.

한교연은 장종현 예방백석 총회장, 전광훈 예방대신 총회장, 김정훈 한국기독교부흥협의회 직전 대표회장, 전대식 한교연 스포츠위원장, 소강석 새에덴교회 목사, 장은화 한교연 문화예술위원장 등 6명에게 공로패를 전달했다.

성서기증사업 모금 20억 돌파

성서공회, 예장통합 7억8000여만원 최다

대한성서공회가 24일 개최한 제122회 정기이사회에서 오정호 대전 새로남교회 목사가 ‘온전한 연합’을 주제로 설교하고 있다.대한성서공회(사장 권의현)는 25일 서울 서초구 남부순환로 본부 4층 회의실에서 제122회 정기이사회를 열고 성서기증을 위한 이번 회기(지난해 11월-지난 10월) 모금 총액이 20억2000여만원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 회기보다 4억여원 증가한 것으로, 국내 한 회기 모금액이 20억원을 돌파한 것은 처음이다.

교단별로는 대한예수교장로회(예장) 통합 7억8000여만원, 예장합동 2억7000여만원, 기성과 예성 등 선결교가 2억6000여만원 순으로 후원했다. 성서공회는 같은 기간 해외 119개국에 235개 언어로 성경전서(신약, 단편 포함) 총 689만301부를 수출해 성서 수출 사상 최고의 실적을 거뒀다. 이는 전 회기보다 62만1905부 증가한 것으로, 금액으로는 242억6000여만원이다. 지역별로는 아프리카 대륙이 360만5885부로 가장 많았고, 미주 162만3627부, 유럽 100만8853부, 아시아 65만1936부 순이었다. 국내에도 성경전서 55만9800부를 보

급했다. 이는 전 회기보다 3만2989부가 늘어난 것으로 금액은 78억 6200여만원에 달한다.

권의현 대한성서공회 사장은 “국내외 경기 침체와 출판 시장의 불황 등 여러 어려운 여건에도 사상 최고의 성서 수출과 모금액을 기록해 기쁘다”면서 “내년에는 올해보다 14만2000여부가 늘어난 70만여부를 국내에 보급하고, 50만 9000여부가 늘어난 740만부를 해외에 수출할 것”이라고 밝혔다.

권 사장은 또 “내년 5월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를 서울에서 개최한다”며 “이를 통해 대한성서공회의 성경 콘텐츠 개발, 출판, 제작 등 통합 서비스를 해외에 소개하고 함께 발전하는 기회를 갖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세계성서공회연합회 성서출판회의는 세계총회 및 세계성서사업 지원회와 함께 세계적 규모로 치러지며 격년 대륙별로 열린다.

이사회는 공적인 한국기독교교장로회 측 이사로 김웅 목사를 보선하고 우영수(예장통합) 우창준(기침) 이용호(예장고신) 한규동(기침) 이정현(예장대신) 목사를 이사로 재선임했다. 문석형 장로 대신 송영훈 장로를 감사로 선임했다.

제28회 기독교문화대상 수상자 확정

음악 이선우·영화 권혁만·방송 박성석·문학 권태진

기독교문화예술원이 선정한 제28회 기독교문화대상 음악 영화 방송 문학 4개 분야의 수상자가 확정됐다.

2014년 한 해 동안 문화예술 각 분야에서 기독교정신을 담아낸 작품과 작가를 관련기관과 전문위원의 추천을 받아 심사위원회(위원장 소강석 목사)를 거쳐 선정했다. 기독교적 주제 의식과 메시지를 담아서 일반적인 공감을 얻은 작품으로 사회적 객관성과 수상자들의 문화공헌도를 중시했다.

각 부문의 수상자는 △음악부문: 작곡가 이선우 △영화부문: 감독 권혁만 △방송부문: 기자 박성석 △문학부문: 시인 권태진 목사. 음악부문 수상자 이선우는 백석대학교 음악대학 교수이며, 교회음악 작곡가이자 성가합창 지휘자로 자비량 전문선교합창단 아이노스 합창단을 창단해 왕성한 활동으로 성가합창문화의 보급에도 기여했으며 교회 음악 음반 발매 및 출판선교 등의 활동으로 교회음악의

발전에도 기여했다.

영화부문 수상자 권혁만은 KBS 기획제작국 프로듀서이며 손양원 목사의 삶을 담은 다큐멘터리 영화 ‘그 사람 그 사람 그 세상’을 감독했다.

방송부문 수상자 박성석은 CBS 뉴스 보도부장으로 한국교회 개혁 취재 보도와 이단 실태 고발로 기독교적 가치인 진실을 기반으로 뉴스문화를 확장했다. 문학부문 수상자 권태진은 군포 제일교회 담임목사로 섬기고 있으며 GoodTV ‘시인의 언덕’을 214회 이상 방송했고, 시집 단행본 ‘우리 희망을 이야기 하자’를 발간해 기독교 신앙사의 정령을 제시했다.

기독교문화대상은 1983년 제정돼 27회에 걸쳐 국내 최정성 문화예술인을 선정 시상해 기독교문화예술이 심층 확대되는데 기여했다. 수상자에게는 상금 300만원과 상장, 메달, 상패가 수여된다. 시상식은 2015년 3월 5일 백석아트홀에서 개최된다.

선교의 창 (21)

근대역사 속의 선교적 진앙지(2)

제임스송 목사 (대학선교, 수필가)



19세기 후반부터 20세기 초는 영국의 시대였다. 이때에 영국은 "태양이 지지 않는 나라"라고 불렸다. 세계의 1/4을 차지했기 때문이다. 대영제국의 역사는 1877년부터 (인도가 독립을 할 때까지) 70년이나 된다. 어떻게 조그만 섬나라가 전 세계를 지배할 수 있었을까? 산업혁명, 막강한 군사력, 빅토리아 여왕의 통치력 등이 드러나는 힘의 원천이었다. 그러나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영적인 힘이 있었다. 마치 수면 위의 배는 70%가 수면 아래 기초를 하고 있는 것과 같은 이치이다.

18세기 초 영국은 독일교회와 경건주의 운동으로 새로운 활기를 띠게 될 무렵 청교도 운동의 영향으로 참신한 신앙운동이 일게 되었다. 그 영향은 영국을 거쳐 미국에까지 미쳤다. 그러나 이 운

위해서였다. 한편 형인 요한 웨슬레는 옥스퍼드에 있는 링컨대학에 특별연수원 강사가 되어 이 모임에 합세했다. 이 홀리클럽 모임에서는 예배와 성경공부뿐만 아니라 가난한 자, 주린 자, 갇힌 자를 돌아보았다. 훗날 이 모임에 유명한 칼빈주의자(Calvinist)인 조지 화이트필드(George Whitefield, 1714-70년)도 함께 활동하였다. 모임은 크지 않았으며 25명 정도였다. 그러나 규율을 엄격히 지켰으므로 메소디스트(Methodist)라는 별명을 얻게 되었다.

요한은 찰스와 함께 1735년 10월 식민지인 미국 조지아를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났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는데 신앙의 큰 감화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요

한은 찰스와 함께 1735년 10월 식민지인 미국 조지아를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났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는데 신앙의 큰 감화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요

한은 찰스와 함께 1735년 10월 식민지인 미국 조지아를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났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는데 신앙의 큰 감화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요

한은 찰스와 함께 1735년 10월 식민지인 미국 조지아를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났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는데 신앙의 큰 감화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요

한은 찰스와 함께 1735년 10월 식민지인 미국 조지아를 향해 선교 여행을 떠났으나 구원의 확신이 없었다. 이때 배 안에서 모라비안 교도들을 만났는데 신앙의 큰 감화를 받게 되었다. 그 후 요



방지일 칼럼 (67) "본대로 들은 대로" 남긴 흔적들

2006년 말부터 2007년 초에 걸쳐 인도차이나, 베트남, 캄보디아, 말레이시아, 태국, 인도네시아 등지를 다니면서 과거 강권으로 살던 사람들이 남긴 흔적이 생각에 띄워졌다. 인도네시아는 네델란드 작은 나라가 400년간이나 강점했는데 네델란드의 흔적이 그리 뚜렷한 것이 없다. 그들이 그렇게 오래 치리권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들의 언어가 통하는 것이 없었다. 지금은 그저 영어가 세계어라 통한다. 인도네시아도 말은 그 많은 민족 중에 가장 수가 많은 종족의 말을 국어로 하되 문자는 알파벳을 사용한다. 영국의 국기는 지구 어디서도 날린다는 말이 내가 어릴 때부터 들었다. 그들의 말이 지금 세계화 되어간다. 영국이 점령했던 나라가 다 독립했으나 영연방이란 이름으로 한 블록을 차지했다. 영어가 저들의 국어로 거의 사용하니 영국인이 점령했던 그 흔적도 뚜렷하다.

성경에 올라가서 본다. 가인족이라고 남아있는 족이 그 어느 족인지 알 수 없으나 먼저 문화가 발전했고 범죄도 살인죄를 행한바 오늘 살인죄는 거기서 온 흔적이라 하겠다. 노아의 아들들의 그 바벨탑의 흔적은 안보이나 그 바벨탑을 쌓은 그들의 사상의 흔적은 오늘도 남아 과학만능이나 등등으로 오늘의 바벨탑을 구상하는 이들이 들는다. 그들의 흔적이라 하겠다. 그리고 몽고의 세계 점령의 흔적은 중원 땅을 점령하여 원나라가 패권을 휘둘러 유럽까지 점령했던 역사가 있음을 본다. 스페인, 헝가리, 터키는 그들의 흔적으로 되어있어 그들의 생활풍습에 나타난다. 그 흔적이 뚜렷하며 유럽이 포장도로를 자기들이 했었지만 나보기에는 몽고의 흔적이요 그들의 먹는 빵이 몽고의 흔적이라 보아진다. 저들은 살생한 짐승을 먹고 살다가 동양의 농경이 몽고인을 통해 들어간 것으로 보며 유럽의 전쟁 말 요즈음 경마농음이 몽골의 흔적이라 할 것이다.

스페인에 무적함대라 하여 대양의 영웅이라 날리며 남미를 강점했다. 그들은 스페인어가 세계어로 영어 다음으로 통하고 있으니 그들의 흔적이다. 프랑스도 남은 식민지를 가졌지만 그들의 권력 하에서 불어 쓰는 아프리카 민족이 적지 않아 그 흔적을 볼 수 있다. 터키도 오스만 터키 하면 한때 아시아 유럽을 휩쓸었던 바인디 그들은 아랍인은 아니면서도 이슬람교를 많이 선전했기 때문에 아랍인 중동 아프리카에 퍼져있음이 그들의 흔적인 것 같다. 로마제국이 한 때 대단한 세력을 가져 전 유럽과 중동을 점령했다. 종교로 말하면 카톨릭을 반성해 했다고도 하겠으나 저들의 유적 향락, 유행극장, 목욕 문화가 지금 그들이 점령했던 지대의 발굴에서 보여지는 흔적이 타락 문화 흔적으로 너무 분명하다.

아시아에선 원나라 후에 청나라가 대륙을 위시하여 한국에까지 일시적으로 세력을 뻗었으나 그 흔적이 이렇다 할만큼 남은 것이 있어 보이지 않는다. 유럽박물관에 가면 청나라 이홍장과의 무역문서를 볼 수 있을 정도 뿐이다. 일본이 3구축국 운하며 불, 독, 일 3국이 세계를 삼분해보려는 기록이며 그 전쟁이 제 2차대전, 태평양전쟁 운운했으나 히틀러는 대살인마로 그 흔적을 남겼고 무솔리니는 검은 사츠단이란 흔적도 남기지 못한 구조로 그런 듯 하다. 일본은 한국, 대만, 전 중국과 아시아 각국을 거의 다 점유하여 보았지만 남긴 것은 잔인한 학살뿐 하와이 기습을 성공한 것 같지만 선전포고 없이 전쟁사에 크나큰 오점의 흔적이 지금도 그대로 그 바다에 남아있다.

제 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끈 미국도 원자탄을 사용해 일본의 투항을 받았으나 그 무서운 살인무기를 사용한 흔적을 남기게 되었다. 중국은 1911년 손문의 북경 점령으로 대청제국으로 몰아내고 중화민국을 건설했다. 역사적으로 점령을 서구인들에게 수없이 당하면서 치욕적으로 조약을 맺어 국내 깊숙이까지 도시들은 빼앗겼으면서도 오히려 지금 또 앞으로 그 15억 인구의 나라는 많이 먹히면서도 꾸준히 그 영토 그 문화를 살려가고 지금은 경제대국으로 우뚝 솟아가니 남을 점령하지 않았으나 원족, 몽고족을 쇠시웠고 청족은 아예 동화시켜 청족이라 이름도 없었으니 못 하다. 먹히면서 먹히지 않은, 전쟁 없이 문화적으로 동화시킨 민족으로 세계사에 그 유례를 볼 수 없는 흔적을 남기면서 사는 민족으로 보인다. 세계사에 남긴 각 나라와 민족들의 흔적들을 보며 기독교인들은 이 세상에 어떤 흔적을 남겨야 하는지 한번 생각해 볼일이다.

(2007년, 28권)

"계란으로 바위를 깰 수는 없다.

그러나 복음이라는 절대적 사상이 들어가면 깰 수 있다 "

동이 성행한 후에 반동적인 합리주의 물결이 일어났다. 이러한 불신앙의 도전 앞에 교회는 비참하리만큼 무기력하였다. 신학자들은 성경의 권위를 외면하고 설교자들은 복음의 절대성을 잃었다. 세속철학의 범람, 구교와 신교의 갈등, 사업혁명의 격류, 도덕적 타락 등으로 영국사회는 정신적 파산에 직면하였다. 그러나 역사의 주관자 되신 하나님께서는 중세 말 종교개혁자들을 통해 복음의 햇빛을 들게 하신 것처럼 18세기 영국교회를 부흥시킬 인물들을 준비시키셨다. 그가 바로 요한 웨슬레를 비롯한 옥스퍼드(Oxford)대학과 케임브리지대학(Cambridge)의 학생 복음운동가들이었다.

웨슬레(Wesley) 형제와 홀리클럽

요한 웨슬레(AD 1703-1791)는 성공회 목사인 사무엘의 19명 자녀 중 15번째로 태어났다. 그의 동생 찰스 웨슬레(Charles Wesley, 1703-88)는 18번째로 태어났다. 그들의 어머니 수잔나(Susanna)는 자녀들에게 심오한 교육적 영향을 끼친 경건한 어머니였다. 동생 찰스는 형이 이미 졸업한 옥스퍼드대학에서 '홀리클럽'(Holy Club)을 만들었다. 목적은 하나님을 더 알고 싶은 소원에서 고전과 신약성경을 연구하기

한 웨슬레는 본국으로 돌아가 1738년 5월 24일에 루터의 로마서주석을 읽던 중 중생을 체험하게 되었다. 그는 이런 중생체험을 갖게 된 계기가 모라비아인에게 있었기 때문에 더 많이 배우고자 독일로 건너가서 진젠돌프 백작을 만났다. 그는 모라비아 교도에게 배운 바가 크지만 그들보다 더 행동적이며 덜 신비주의적이며 폭 넓은 활동에 관심이 있었다.

중생과 견학으로 심적인 확신과 사역적 정리가 된 그는 이제 정열적으로 복음을 전파하기 시작했다. 그는 일 년에 약 8,000km를 말을 타고 여행을 하였으며 일 주일에 다섯 번 설교하였다. 그가 죽을 때 메소디스트교회 설교자 수는 541명, 회원 수는 134,540명이었다. 이렇게 훗날 감리교(Methodism)가 된 요한 웨슬레 부흥운동은 훗날 타락한 영국사회를 갱신시키고 나아가 세계적으로 두 번째 큰 교단인 감리교단을 탄생시킨 것이다.

찰스 시몬(Charles Simeon)과 기도회

찰스 시몬(AD 1759-1836)은 1779년 케임브리지대학 학생 시절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였다. 그는 1782년 졸업과 함께 왕립대학 특별연구원과 동 대학의 성삼위교회(Holy Trinity

1836년 죽은 다음에도 그가 힘쓰던 사역이 계속되었다는 점이다. 1848년에는 프라이빗(Private) 기도회가 구성되었다. 그리고 1858년에는 케임브리지 대학교회 선교단이 설립되었다. 그 취지는 기도와 자료검토를 위한 집회를 자주 가지므로 보다 광범위한 선교 사정신을 고양시키기 위함이었으며, 동시에 보다 많은 젊은이들이 사역에 지망하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그러나 영국 대학생 복음운동이 체계화 된 시점은 1877년에 결성된 케임브리지 기독교학생단(The Inter-Collegiate Christian Union)에서 찾는다. 이 모임은 처음에 소수로 시작하였으나 마침내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오늘날 국제복음주의학생회(IFES)는 기독교학생단을 포함하여 각 나라마다 다양한 대학복음단체 학생들의 우에 있는 일치를 위해 봉사하고 있다.

케임브리지 세븐(Cambridge Seven)

영국 대학선교 역사에서 케임브리지 7인의 이야기를 빼놓을 수 없다. 케임브리지 7인은 친구, 운동사를 관계 등으로 서로 만나게 되었다. 그들은 대학에서 신앙의 공동체를 이루어 활동하였다. 그러나 그 운동은 미약하였고 자주

중단되었다. 그러던 중 1882년 미국의 복음전도자 D. L. 무디(Moody)가 케임브리지에서 일주일간의 집회를 열었다. 그들은 이 집회를 통하여 큰 영향을 받았으며 후에 다양한 방법으로 회심했다. 그리고 중국 선교사로 헌신하였다.

맺는 말

대영제국을 건설할 수 있었던 원천적 힘은 무엇인가? 그것은 사상이다. 근원적 사상이 개인과 민족 그리고 국가의 미래를 결정한다. 당시의 웨슬레 형제를 중심으로 한 옥스퍼드 대학과 교부인 시몬을 통한 케임브리지 대학의 선교 운동 그리고 조지 화이트필드 등이 영국사회를 정화했다. 최고의 엘리트이자 장래가 촉망되었던 케임브리지 7인이 중국선교사로 헌신한 것은 그 시대의 신앙적 단면이 어떠했나를 보여주고 있다. 아무런 이러한 대학선교 운동은 선교회로 조직화되었으며 선교회들은 세계선교를 향한 통로로 쓰임을 받았다.

문제는 지금이다. 오늘 우리 조국과 미국 그리고 세계를 볼 때 걱정스러운 부분이 많다. 어디서부터 출발해야 되나? 코람데오(Coram Deo)가 답이다. 즉, 인간이 하나님 앞에서 겸허히 설 때 소망이 있다. 이것은 무너져가는 영국을 재생시킨 것처럼 복음으로 바꾸 같은 세상을 깨는 것이다.

이메일: jrsong007@hanmail.net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기타지역 교회

갈보리장로교회 담임목사: 조승철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기도회: 오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00(토)	덴버에담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예배: 오전 11:30 영어예배: 오전 10:45 수요성서학당: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5:30 (월-금)	덴버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이형만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EM예배: 오전 10:45 금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몽고메리교회 담임목사: 최혜근 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0: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매일새벽기도회: 오전 6:00			
벅스카운티장로교회 담임목사: 김봉운 주일 1부예배: 오전 8:30 주일 2부예배: 오전 10:00 주일 3부예배: 오전 11:30 평 일 예배: 오전 10:00 수요찬양예배: 오후 8:00	벤엘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15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전 11:45 EM예배: 오전 10: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보스턴장로교회 담임목사: 전철영 주일한국어예배: 오전 11:00 주일영어예배: 오전 11:00 새벽기도회: 오전 6: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대학청년부: 오후 1:30 중노년회: 오전 10시, (월) 오전 11시 유년부: 오전 10:00	샬롯교회 담임목사: 나승균 주일새벽기도: 새벽 6:00 주일찬양예배: 오전 10:45 수요일찬양예배: 오후 8: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주일학교예배: 오전 11:00 중, 고등부예배: 오전 11:00	새시온침례교회 담임목사: 정승교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영어)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찬양예배: 오후 7:00	시애틀평강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은일 주일영어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15 수요찬양예배: 오후 7:30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금) 토요일: 오전 6:30	알칸사 제자들과교회 담임목사: 전남수 주일오전예배: 오전 11:30 주일오후예배: 오후 4:00 수요일예배: 오후 7:30 금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6:00(월-토)
앵커리지영리문교회 담임목사: 유재일 주일1부예배: 오전 10: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평일예배: 오전 11:00 수요찬양예배: 오후 2:00 수요예배: 오후 7:00	엘파소영리문교회 담임목사: 하태수 주일1부예배: 오전 9:00(영어)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7:30	영생장로교회 담임목사: 이용길 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수요일예배: 오후 8: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온누리교회 담임목사: 김세환 주일새벽기도: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7:00 금요찬양예배: 오후 8:00	워싱턴메시야장로교회 담임목사: 한세영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1:30(EM) 수요일예배: 오후 11:00 금요기도회: 오후 8:00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토)	주역수교회 담임목사: 배현찬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수요찬양: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토)	큰무리교회 담임목사: 나강삼 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수요일예배: 오후 8:00 새벽예배: 오전 5:30 www.josephvision21.org 매일저녁7시(금, 토, 주일)
타코마 삼일교회 담임목사: 정태근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수요일예배: 오후 7:30 새벽예배: 새벽 5:30(월-금) 새벽 6:00(토)	타코마대생명교회 담임목사: 임경영 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월/영) 주일4부예배: 오후 2:00(월/영)	타코마 한인장로교회 담임목사: 박창호 주일 1부 예배: 오전 8시 30분 주일 2부 예배: 오전 11시 주일 찬양예배: 오전 1시 수요일 예배: 오후 7시 새벽기도회: 오전 5시 30분 (화-토)	템프장로교회 담임목사: 윤승영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EM) 주일3부예배: 오전 10:50 주일4부예배: 오전 12:10 주일5부예배: 오후 2:00(월-토) 새벽기도회: 오전 5:30(월-금) 오전 6:30(토)	필라델피아 한인연합교회 담임목사: 조진모 주일 1부예배: 오전 9:00 주일 2부예배: 오전 11:00 주일 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청년예배: 오후 2:00 수요찬양: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6:00(월-토)	하트포트제일장로교회 담임목사: 김선만 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2:00 수요일예배: 오후 7:45 새벽기도회: 오전 5:30(토) 오전 6:00	미주크리스천신문과 함께할 후원교회를 찾습니다 L.A.: Tel. (323)665-0009 Fax. (323)665-0046 N.Y.: Tel. (718)886-4200 Fax. (718)886-0074 세계로 뻗어가는 복음입니다...



온두라스

사랑하는 동역자님께, 주님의 이름으로 문안드립니다.

오늘은 미국 추수감사절 날입니다. 모든 가족들이 함께 오순도순 모여서 한 해 동안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을 감사하는 날이지요. 올해 저의 삶과 가정과 사역들을 기억하면 하나님의 축복받은 선교 사업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곳에는 추수감사절이 없습니다. 그리고 어제부터 비와 강풍을 동반하는 후라칸(허리케인)이 산골 마을을 강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정전이 되어서 전기도 없네요. 길은 질어서 차도 움직이지 못하는 암울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박국의 "없을지라도" 감사의 말씀(합3:17-18)을 기억합니다. 그러나 며칠이 지나면 하나님께서 많은 날씨를 주실 것입니다. 날씨가 순유하며 살아가는 것이 이곳에서 살아가는 방편입니다. 해 뜨면 일어나고 해지면 잠자는, 비오면 꼼짝 못하는 이곳 산골 사람들의 삶입니다.

카카오 교회소식을 전합니다. 무교회 지역인 카카오에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지고 있습니다. 10월 12일 첫 예배를 드린 후 지난 11월 9일부터 15일까지 에브리데이교회(최홍주 목사)에서 단기선교로 이곳을 섬겨주셨습니다. Tim Dearborn이 말한 "복음의 양손" 즉 복음과 떡을 가지고 130여 가

정들을 방문했습니다. 니콜라스의 치유의 간증과 함께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사역하시고 계셨습니다. "정지하는 사람들과 그리고 천주교회가 지금까지 한 번도 방문해 주지 않았는데 당신들은 우리들을 방문해주셨습니다" 하면서 모두들 반겨주셨고, 전하는 복음과 간증에 경청을 하고 반응을 해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기도를 들여주셔서 피부병으로 고생하던 소니아가 치료를 받았고, 여러 사람들이 은혜를 체험하는 경험들을 했습니다. 지난 15일에는 무려 45명이 모여서 예배를 드렸습니다. 정말 신나는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카카오교회를 개척하면서 하나님께서 앞서 일하시는 데 저희들은 수줍음과 겸손을 따라가고 있는 모습을 봅니다. 점차 시간이 지나면서 정말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교"임을 깨닫고 그리스도 중심의 교회가 세워지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Perspectives on the World Christian Movement 책에서 On Mission with God(Henry Blackaby and Avery Willis, Jr., pp310-314)에는 "하나님과 함께 하는 선교"에 대하여 기록하고 있습니다. "God initiates His Work through His people."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을 통해 자신의 일을 주도적으로 시작하십니다. David Bosh는 "하나님과 사람의 선교 동역"을 "미묘한 신비"라고 표현합니다. 정말 그렇지요.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하는 선교를 하셨지요. 예수님은 아버지를 증거했고, 아버지는

예수님을 통해 일하셨습니다. ".....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의 일을 하시는 것이라"(요 14:10) 그러므로 하나님의 방식과 계획을 알고 그 방식과 계획대로 사역을 하여야 합니다. 즉 "하나님

palabra) 집회를 가졌습니다. 저녁마다 150여명이 넘는 성도들이 모여서 말씀을 들었습니다. 은혜의 말씀을 전해 주신 최홍주 목사님과 김용걸 목사님께 감사드리며, 함께 해주신 권혜영 선교사님,

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8월에 세 학생들(Olvin, Joel, Brenda)이 멕시코 올네이션 신학교(후아레스, 이상원 선교사)에 유학을 떠나게 됩니다. 이곳 산골 마을에서는 처음으로 유학을

몽케카구야교회, 에스페란자교회, 셀롬교회, 뿌에블로 비에호교회, 까스타노교회, 세이비타교회, 몬테베르데교회의 성장과 Cacao지역 교회개척을 위하여 △건축 예정지(수도 인근의 Villeda Morales 교회, 리오콜로라도 교회, Marcala 인근의 Opatoro 지역 교회, Santa Barbara Nisperales교회, 몬테베르데 교회)를 위하여

3. 학교 사역: △방과후 학교 겨자씨학교 아자꾸알 파를 위하여 △산페드로솔라 푸엔테데 루즈 학교를 위하여 △정규학교인 La Semilla de Mostaza Christian Bilingual School(기숙사학교) 시작을 위하여

4. 목회자 훈련 및 미래 지도자 양육

목회자 훈련으로 현재 SEAN 3권 과정을 위하여 △멕시코 유학: 2015년 8월에 Olvin, Joel, Brenda를 위하여(멕시코 올네이션신학교/ 후아레스, 이상원 선교사)

5. 강해설교학교: 많은 목회자들이 훈련 받고 말씀 사역에 힘을 얻도록, 강의 및 학교 운영에 필요한 모든 것들이 잘 준비되도록

6. 동역자들: 하나가 되어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하게 하는 사역을 할 수 있도록(Paz 목사님과 Blanca 사모, Antonio 목사, Myer 형제, Dario 형제, Miriam 선생, Brenda 선생, Olvin 형제, Ambrocio 형제, Dionicio형제) 온두라스 장세균 최은경 선교사 segyunjang@gmail.com



말씀의 밤 집회 모습



에브리데이교회 단기선교(130여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며 복음을 전함)

과 함께 선교하고 하나님 나라의 목적을 성취하려면,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따라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그 원리를 따라 행하는 것이 바로 선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살아있는 표적"이 되기를 원하시는데 이는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믿습니다.

에브리데이교회에서 오셔서 낮에는 카카오지역 130여 가구를 가가호호 방문하고, 저녁에는 산골 마을에 세워진 교회 성도들을 위하여 "말씀의 밤"(Noche de la

기혜정 자매님께 감사드립니다. 야마랑길라 교회건축은 문과 창을 달고 전기를 설치하고 예쁘게 페인트 해서 마무리가 되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앞으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하여 기도하며 먼저 성도들의 마음속에 아름다운 성전이 세워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수도 인근의 Villeda Morales 교회, 리오콜로라도 교회 건축, Marcala 인근의 Opatoro 지역 교회, Santa Barbara Nisperales 교회, 몬테베르데 교회, 카카오교회 건축을 위



피부병으로 고생하는 이들을 치료

떠나는 Olvin, Joel, Brenda를 위하여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신학교에서 세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주시기로 했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앞으로 이들이 멕시코 비자 및 수속 절차를 위하여 기도해주시고, 이들의 항공권을 위하여 기도해주시기를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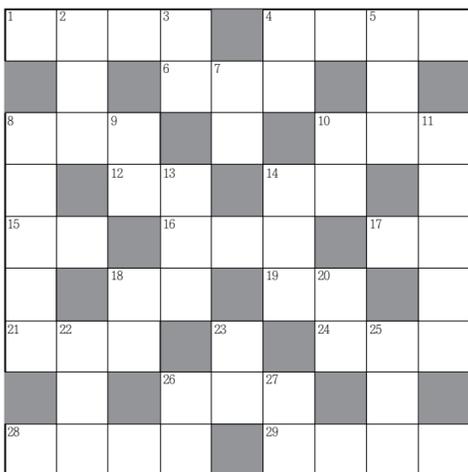
11월 사역에 함께 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기도와 물질로 후원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12월 기도제목을 나눕니다. 기도의 줄을 잡아 주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

1. "삶으로 그리는 복음"을 위하여
2. 교회사역: 아자꾸알파교회,

십자말 • Cross Word (61)

김기호 장로(본지 고문)



<가로 푸는 열쇠>

1. 바울을 로마로 압송하는 백부장 율리우스가 소속한 부대명(행 27:1).
4. 다윗의 시23편. "여호와와 OOOO".
6. 다른 나라 가운데(겔6:8).
8. 다니엘이 잡혀 이 속에 들어갔지만 아무 일 없었다(단6:7).
10. 그의 모든 OOO(시148:2).
12. 뱃속(눅1:41).
14. 날이 밝을 무렵(마28:1).
15. 사도 요한이 유배되었던 섬(계1:9).
16. 합의회 법원에서 합의제를 대표하는 법관(행18:15).
17. 일류의 첫 번째 여자 이름은?
18. 거룩한 아들. 삼위일체 중 한 분.
19. 어머니의 자매(요19:25).
21. 주되는 일이나 물건에 팔려 붙는 것(민1:50).
24. 다윗의 아들 중 가장 준수함. 부왕에게 반역했으나 실패하여 죽임 당함(삼하14:25).
26. 석회암이 변하여 된 매끄럽고 아름다운 돌(에1:6).
28. 작은 일을 크게 벌려 말함(고사성어).
29. 양의 뿔로 만든 악기(수6:4).

<세로 푸는 열쇠>

2. 죄악에서 일류를 구원해준 만유의 주 그리스도(사49:7).
3. 하맛왕인데 저의 적 하닷에셀을 다윗이 파했을 때 축의를 표했다(삼하8:9).
4. 얼마동안이 지난 뒤(마20:16).
5. 자기 눈으로 직접 본 사람(눅1:2).
7. 미리 막아서 지킴(눅4:9).
8. 선지자 엘리야에게 공개하였다가 그 집에 가루와 기름이 넘치는 축복을 받은 여인(왕상17:)
9. 항복하거나 힘에 겨워 풀어 얻드림(시18:39).
10. 사신이 받은 명령(행20:24).
11. "주는 평강이시다"(사6:24).
13. 다름질의 화해를 붙이는 사람(사59:16).
14. 집지를 때 췌 따위를 바르는 사람(왕하12:12).
18. 성질과 됴됨이(왕상2:4).
20.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널 당시에는 큰 세력을 가지고 있었다(출15:15).
22. 죄를 속하기 위하여 마련한 장소(레16:15).
23. 찬송가331장 "나 주를 OO 떠났다"
25. 기드온에게 피살된 미디안의 왕(삿8:12).
26. 거둬진 세대(눅1:50).
27. 서쪽에 넘어가는 해(수10:26).

십자말 정답



BOOKSKOREA PRINTING & PROMOTION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교회 사역에 필요한 인쇄물과 판촉물을 한 자리에서 제작 할 수 있는 한국서적 프린팅 & 프로모션 사업부에서는 디자인에서 제작까지 만족스러운 결과물을 완성하여 드립니다.(창립기념일, 추수감사절, 크리스마스, 부활절) 명함, 전단지, 브로슈어, 엽서, 스티커, 달력, 선물권, 현금봉투, 전도지, 주보, 배너, 옥외 / 실내 스탠드배너, 전도용 작품제작 프린팅 단체 티셔츠, 타월, 토트백, 머그잔, 볼펜, 전도에 필요한 아이템에 모든것-



판촉물을 원하신다면 언제라도 방문하십시오.



상담 환영!!!

300여종 이상 디자인 보유! 2014년 달력주문 받습니다.

전화 : 718.762.1200 29-30 Union St, Flushing, NY 11354

사모칼럼 // 회복된 사모, 행복한 시역



황순원 사모 (CMF사모사역원 원장)

10. 사모의 행복 가꾸기- 사모의 비전 가꾸기(1)

인도 사모사역 : 인도 사모교실 중에 여섯 번째 강의는 비전 가꾸기였습니다. 사역자들은 누구나 비전이 있습니다. 비전이 있는 자들을 하나님은 제일 먼저 광야학교에 입학시킨다는 말이 있습니다. 광야의 특징은 의지할 것이 하나도 없는 환경을 말합니다. 인간의 상상적인 생각으로는 살아갈 수 없는 조건이나 환경을 말합니다. 그러나 그곳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정확하게 들을 수 있

던 소녀의 꿈을 무시하지 않은 사건을 간증하는 동안 사모들의 시들어가던 비전은 다시 기지개를 켜며 일어나는 것을 보았습니다.

전혀 생각조차 하지 않았던 필자의 순회선교사 타이틀이 주어지게 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30대 젊은 나이에 기도하면서 늘 부르던 찬송가사가 생각납니다. "오늘은 이곳 내일은 저곳 주 복음 전하리."

그 당시에는 한곳에서 목회자의 아내로 남편을 내조 하기에 바빴습니다. 한곳에서 사역하기도 바쁜 사람이 어떻게 이곳 저곳을 돌아다닐 수 있을까 하면서도 이복음송의 가사는 입술에서 떠나지 않고 매일 매일 불렀습니다.

찬송가 가사에도 귀를 기울이시는 하나님은 40년의 세월이 흘러가는 동안 선교의 마음을 주시면서 어느덧 지구촌 곳곳에서 사역하는 사모들에 대한 관심을 주시더니, 그들을 위해 눈물을 흘리게 하신 후에 주여 저들의 눈에서 흐르는 눈물을 닦아주는 크리벡스가 되고 싶어요. 외치던 기도소리를 잊지 않으시고 이렇게 인도에까지 멀리 가게 하셨습니다 라고 간증하는 말에 용기를 내는 사모들의 입에서는 그동안 까마득하게 잊혀졌던 비전들이 새록새록 생각이 나게 되었고 하면서 힘이 넘쳤습니다.

비전을 그린 것을 발표하는 내용을 들어 보십시오.

"선교사의 아내라는 타이틀이 부담감으로 시작된 세미나가 시작 전부터 설레임을 가져다주었습니다. 알 수 없는 설레임 속에 첫날 기도회부터 시작해서 모든 강의가 모두 의미를 부여하며 힘을 얻게 했습니다. 특히 '비전 세우기'에서 나의 모습이 쉬고 있음에 작아져 있는

하나님께서 사역자들은 의지할 것 하나 없는 광야학교에 입학시켜 현지에서 지친 사모들에게 새 힘과 용기 주셔서 비전 다시 세우게

는 확신기가 있다고 C. S. 루이스는 말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의지할 것도 없고 인간의 힘으로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것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으니 나의 모든 신령이 하나님께 물리게 되니 그걸 수밖에 없습니다.

한편 광야학교의 훈련을 받는 중에 내가 갖고 있는 비전들 중 나의 욕심에서 나오는 야망들은 하나하나 벗겨져 가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비전을 이루려고 하나님의 약속에 귀를 기울였지만 현실적으로 더 불가능하게 되자 마침내 이스마엘을 만들게 됩니다. 그것도 사랑의 의견을 들으면서 함께 합동작전을 하게 됩니다. 이스마엘을 만든 이후 하나님은 13년의 세월동안 아브라함을 만나주지 않았습니다. 창세기 16장 6절에 아브라함이 86세였을 때 이스마엘을 만든 이후 17장에 하나님이 나타나실 때는 아브라함의 나이 99세 때였고 하나님은 또 다시 자신을 전능자라고 소개합니다. 그러면서 할례를 명하시면서 또 다시 약속을 하십니다. 그것도 이제 살 에다 아주 확실한 방법으로 날마다 화장실에 갈 때마다 기억해두게 하시려고 할례의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 다음에는 이름을 바꾸어 주십니다.

이렇게 하는 동안 아브라함 안에 있던 인간의 야망은 남아 있지 못하게 되고 오직 하나님의 방법으로만 가능한 하나님의 비전만이 남게 되는 날 마침내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심을 이삭의 태어남 속에서 알려 주십니다.

인도에 도착할 때만해도 엄청난 비전을 품고 여장을 푸는 선교사님들에게도 날이 갈수록 비전커녕 현지 적응하는데 온갖 에너지를 다 써버리고 지쳐있는 모습을 봅니다. 그들의 눈망울 속에는 그 옛날 가졌던 비전은 어느새 다 사라져 버렸습니다.

그러나 어릴 때 주셨던 작은 꿈을 이루기 위해 50년의 세월을 한결같이 기다리게 하셨던 하나님은 마침내 인도에까지 가게 하셔서 꿈속에서도 그리워 눈물 흘렸

듯 한 느낌이 때때로 우울케 했는데 더 큰 눈물과 땀과 피로 이뤄나갈 수 있는 준비 기간임을 알게 하셨습니다. 강사님의 현재의 존재 이유를 설명하실 때는 새날을 여실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 그런 비전을 책상위에 붙여놓고 준비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인도에 오기 전부터 가졌던 꿈이지만 이제 더 기대하며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이 비전을 위해 부르신 하나님께서 나를 반드시 행복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받은 여인임을 증명하게 하실 것을 믿고 기쁨으로 나아갈 것을 다짐해 봅니다"(E사모).

왜 그러냐고 이유를 묻는다면 모릅니다. 아무 이유가 없습니다. 그저 눈물이 나기 때문입니다 라는 대답 외에는 할 말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사역지에 와보니 그 이유를 알 것 같았습니다. 30명의 비전을 다 모아 보니 엄청난 사역이었습니다. 이것을 혼자서 다 하려한다면 얼마나 부질없는 일이었을까. 그러나 이렇게 아무진 꿈들을 모아놓으니 퍼즐을 맞추어 놓은 한 폭의 아름다운 그림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비전이 이제 이들을 통해 이루어지는 그날에 하나님께 돌릴 영광의 엄청난을 알고 나니 그제서야 저의 어릴 적에 주신 비전을 이루기 위해 50여년의 세월을 기다리신 하나님의 마음을 조금은 알 것 같았습니다.

그리고 이 귀하고도 희귀한 사역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마침내 이루시기 위해 열려주시고 용기주시는 하나님을 눈물어린 마음으로 찬양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하시려고 그토록 긴긴 세월을 기다려 주셨군요. 현지에서 지친 사모들에게 새 힘과 용기 주시어서 그들을 통해 이루신 엄청난 꿈들을 다시 불일 듯 일으켜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멀고도 먼 인도사역을 마치고 내년에 다시 만날 것을 기약하며 집으로 돌아오는 발걸음은 가볍기만 하였습니다.

▲이메일:hwangsunwon@gmail.com

매일가정예배

허윤준 목사(뉴욕새생명장로교회)

월 주의 힘을 인하여 기뻐하며!(시21:1)

시편 20편이 전쟁에 나가기 전 먼저 기도하듯 준비하고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실 것을 확신하며 쓴 시라면 21편은 기대하며 바라던 것이 실현된 것에 대한 감사의 시입니다. 이 시는 "다윗의 승리의 노래"라고 불리는데 더 깊이 묵상하다보면 "왕의 승리의 노래"요 "그리스도께서 승리하심을 선포하며 찬양하는 노래"입니다. 오늘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힘과 권력을 의지하고 그것으로 싸우려고 하지만 성도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을 자

랑함으로써 항상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본문은 전쟁에서 승리한 후 모습인데, 먼저 하나님께서 항상 힘이 돼주셔서 승리케 하심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전쟁 전에도 하나님께서 담담함을 주셨고 전쟁 중에도 하나님께서 힘이 돼주셔서 승리할 수 있었다는 것을 승리 후에 더욱 감사하는 것입니다. 성도의 매력은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기억하며 지금 이 시간 하나님께 크게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화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시21:1)

성도들이 세상을 살면서 크게 기뻐할 것은 하나님께서 항상 우리의 힘이 돼주신다는 것입니다. 연약한 내 자신을 보고는 즐거워하고 노래할 수 없어도 전능하신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며 즐거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흔들리지 않으시는 믿음으로 승리하시고 즐거워하시며 크게 기뻐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도 예수님께서 기뻐하시는 그 기쁨으로 감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주의 구원을 인하여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를 히브리문에서 보면 주님이 주신 승리로 크게 즐거워서 감격과 감사가 멈추지 않는 상황을 표현합니다.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죽음에서 일어나신 우리 주님의 즐거움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또한 그 분이 값주고 사신 죄인들이 구원을 얻는 것을 보시고 더욱 기뻐하고 즐거워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늘 우리가 "주의 힘"과 "주의 구원"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크게 즐거워하기를 원하십니다.

수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셨나이다!(시21:2)

다윗이 또 한가지 마음 깊이 하나님께 감사했던 것은 승리뿐만 아니라 신앙을 지킬 수 있도록 이끌어주시고 기도를 응답해주시는 것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마음에 거룩한 소원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고자 하는 마음... 육체의 남을 때를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기 원하는 마음... 주님의 말씀 안에 거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을 사랑하고 교회

를 사랑하고자 하는 마음... 그리고 기도하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거룩한 마음의 소원을 두시고 그 소원을 응답해주시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런 마음을 품게 하시는지... 다윗은 깊이 생각하며 생각하다가 너무 감사해 아무 말도 못하고 그냥 모든 것을 멈추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주님께 쏟아 놓을 때 주님께서는 그대로 이루어주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목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시21:3)

다윗이 또 한가지를 깊이 깨닫고 감사한 것은 하나님께서 늘 먼저 앞서가셔서 최고의 축복을 예비하신 후에 만나주시는 것에 감사하고 있습니다. 3절 "주의 아름다운 복으로 저를 영접하시고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 "영접하셨다"는 뜻은 "앞서가다, 만나다"라는 뜻입니다. 때로 어렵고 힘들 때는 혼자 있는 것 같고 낙심돼 힘이 빠질 때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항상 우리 앞서 가셔서 모든 은혜를 베푸시고 오늘도 우

리의 필요를 채우시며 우리의 갈 길을 준비하십니다. 진정 오늘 우리 앞서 가셔서 복을 예비하시는 주님을 볼 수 있다면 그 분은 참으로 복 있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대하는 것보다 우리의 소망과 꿈보다도 더 아름답고 좋은 것을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아름다운 복 "토브"는 최고의 선물 만족할 만한 최고의 축복을 준비하셨습니다. 이 시간 어떠한 상황속에서도 감사의 찬송을 부를 수가 있지 않겠습니까?

금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셨나이다!(시21:3-6)

본문에 "정금 면류관을 그 머리에 씌우심"을 감사하고 있는데, "정금 면류관"은 왕의 권세를 상징합니다. 여호와께서 씌워주시는 면류관은 머리 꼭 맞는 면류관이고 그 누구에게도 빼앗기지 않고 그 누구도 벗길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쓰신 그 면류관을 저희들에게 씌워주셔서 그 누구도 손댈 수 없게 하셨으니 그저 감사 또 감사드릴 뿐입니다. 또한 영원한 생명을 주심을 감사합니다. 다윗이 당장 위급한 상황에서 생명을 구했

더니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전쟁에서 승리해 무사히 집으로 돌아오게 하셨습니다. 본문에 "영영한 장수"는 오직 왕되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적용될 수 있는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죽음에서 부활하신 후에 영원히 보좌에 좌정해 계십니다. 그래서 시편 14:19에 보면 "내가 살았고 너희도 살겠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과 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생에 참여하는 자입니다. 얼마나 감사한지요! 할렐루야!

토 왕이 여호와를 의지하오니!(시21:7)

더욱 감사한 것은 영원토록 변함없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 때문입니다. 다윗은 왕이 됐어도 여전히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만왕의 왕이시에도 오직 아버지 하나님만 의지하심으로 믿음을 분을 보여주셨습니다.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가질 때 항상 아버지 하나님의 돌보심 안에서 안전하다는 것을 깊이 느꼈던 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항상 기도를 들으신다는 것을 감사하며 공의로 판단하시는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체험하며 기쁨과 즐거움이 넘쳤습니다. 오늘 이 감사의 시는 예수님께서 오시기 400년 전에 쓰여진 시입니다. 이렇게 믿음은 시간의 벽을 뛰어넘습니다. 또한 전쟁 중에도 오히려 승리를 선포하며 궁극적으로 승리의 노래를 부를 수 있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지할 때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인자하심으로 요동치 않을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계로 뻗어가는 교회 해외 교회

<p>강남중앙감리교회</p> <p>담임목사: 노재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7:00</p> <p>Tel. (02)525-7767, HP. (017)237-8258 서울시 서초구 서초2동 1330-20</p>	<p>군포제일교회</p> <p>담임목사: 권태진</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2: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Tel. (02)397-6754-5 군포시 금곡동 870-5</p>	<p>금란교회</p> <p>담임목사: 김경민</p> <p>주일1부예배: 오전 8:0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30</p> <p>www.kumnan.org Tel. (02)2-490-7000, Fax. (02)2-436-5770 서울시 중랑구 망우동 340-1(131-231)</p>	<p>광주신일장로교회</p> <p>담임목사: 한기승</p> <p>주일1부예배: 오전 9: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기도회: 오후 7:00 새벽기도회: 오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00</p> <p>Tel. (062)523-9419, Fax. (062)522-4834 500-170 경교역시 북구 중앙동 936-1번지</p>	<p>동경중앙교회</p> <p>담임목사: 이강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후 2:00 주일4부예배: 오후 5:00</p> <p>Tel. (03)3208-8491-5, Fax. (03)3208-8438 2-18-8 Okubo Shinjuku-ku, Tokyo, Japan</p>	<p>든든한교회</p> <p>담임목사: 장창희</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주일5부예배: 오후 7:00 수요예배: 오전 11:00, 7:00 금요예배: 오후 9:00</p> <p>Tel. (03)977-8383-9, Fax. (03)977-8382 (우)410-831 경기도 고양시 일산동구 용인동 1670-1</p>	
<p>로마한인교회</p> <p>담임목사: 한평우</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후 2:00 주일3부예배: 오후 4:00 수요예배: 오후 8:00 새벽기도: 오전 6:00(매일)</p> <p>Tel. 39-06-827-3585, 39-348-339-1726 39-06-843-267(교우관) VIA DEI QUINTILI 32-39 00175 ROMA, ITALY</p>	<p>명성교회</p> <p>담임목사: 김삼환</p> <p>주일1부예배: 오전 7:20 주일2부예배: 오전 9:20 주일3부예배: 오전 11:2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새벽기도: 오전 4:30 (1부)부터 4회</p> <p>Tel. (02)2-440-9000, Fax. (02)2-440-9099 서울시 강동구 명동3동 330-5, (134-830)</p>	<p>새에덴교회</p> <p>담임목사: 소강석</p> <p>주일1부: 오전 7:30 주일2부: 오전 9:30 주일3부: 오전 11:00 주일4부: 오후 12:30 주일5부: 오후 2:30 (월요일을 위한 현대예배)</p> <p>대표전화 (031)896-1000, 팩스(031)896-6077 경기도 용인시 수지구 죽전동 1312번지</p>	<p>성문교회</p> <p>담임목사: 황정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30 주일찬양예배: 오후 3:30 새벽기도회: 오전 5:00 새벽예배: 오전 6:30</p> <p>Tel. (02)2-2646-3181-3, (02)2-2646-3184 서울시 양천구 목동로 520 (158-808)</p>	<p>성실교회</p> <p>담임목사: 김영복</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 새벽기도: 오전 5:30</p> <p>www.seongsil.or.kr Tel. (02)2-998-0988, Fax. 9927-1008 서울시 강동구 신원동 321-49 (142-073)</p>	<p>성일교회</p> <p>담임목사: 김정곤</p> <p>주일1부예배: 오전 5: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수요예배: 오전 7:30 (토요일은 쉽니다)</p> <p>Tel. (02)2-2643-8553-4, Fax. 2648-4662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3동 713-26호</p>	<p>수영교회</p> <p>담임목사: 이규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8:50 주일3부예배: 오전 10:30 주일4부예배: 오후 1:20 주일5부예배: 오후 2:00</p> <p>Tel. (031)740-4500, 4556-8, Fax. 740-4560 부산광역시 해운대 우2동 1418-1, (612-824)</p>
<p>수정교회</p> <p>담임목사: 조일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후 7:30</p> <p>Tel. (02)32-568-0191, Fax. (02)32-562-2738 인천시 서구 불로동 416-4(404-270)</p>	<p>승등교회</p> <p>담임목사: 박상훈</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저녁 7:00</p> <p>Tel. (02)732-2341-3, 새벽(02)389-2235 (110-290) 서울시 중랑구 민사동 137번지</p>	<p>시온교회</p> <p>담임목사: 김성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 오전 5:00(월-토)</p> <p>Tel. (031)253-1004, Fax. (031)253-1010 경기도 수원시 서둔동 419-2</p>	<p>신길교회</p> <p>담임목사: 이신웅</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p> <p>Tel. (02)2-842-1968, 새벽(011)82-2-842-1968 서울 영등포구 신길1동 63-3, (150-051)</p>	<p>신천교회</p> <p>담임목사: 송용결</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00 주일3부예배: 오전 11:00 주일4부예배: 오후 12:50 주일찬양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전 5:00/6:00</p> <p>Tel. (02)418-0491, Fax. (02)422-0751 서울시 송파구 송파동 17길 29(삼일동) www.shincheon.org</p>	<p>신촌교회</p> <p>담임목사: 이정익</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7:30 주일3부예배: 오전 9:3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02)2-786-6579, 새벽(02)2-338-5671 서울 마포구 노고전동 49-45</p>	<p>안암 제일교회</p> <p>담임목사: 조 윤</p> <p>주일1부예배: 오전 8:30 주일2부예배: 오전 10:0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2:50 수요예배: 오후 7:30 심야기도회: 오후 8:30</p> <p>Tel. (011)82-2-927-5511 서울 용인구 제기 2동 146-7</p>
<p>양곡교회</p> <p>담임목사: 지용수</p> <p>주일예배1부: 오전 7:00 주일예배2부: 오전 9:00 주일예배3부: 오전 11:40 주일찬양예배: 오후 7:30 수요예배: 오전 10:30/오후 7:30 새벽기도회(매일): 오전 5:30/6:30/9:00</p> <p>Tel. (055)210-5500, Fax. (055)210-5510 (041-370)경남 창원시 성산구 양곡동 415 www.yangok.org</p>	<p>왕성교회</p> <p>담임목사: 김요나</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9:3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1:30</p> <p>Tel. (02)2-889-4813, 331-284-7204 서울시 관악구 신림동 1041-24 (151-029)</p>	<p>장위제일교회</p> <p>담임목사: 김기원</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수요예배: 오후 3:00 새벽기도회: 오후 5:00 금요기도회: 오후 9:30</p> <p>Tel. (02)942-6881, Fax. (02)942-6882 (136-631) 서울시 성북구 장위3동 79-12</p>	<p>주안교회</p> <p>담임목사: 주승중</p> <p>주일1부예배: 오전 6:00 주일2부예배: 오전 8:0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후 2:00 주일5부예배: 오후 4:00 주일7부예배: 오후 7:00</p> <p>Tel. (02)32-527-1009 인천광역시 부평구 신곡동 294-1(10403-838)</p>	<p>창대교회</p> <p>담임목사: 최용도</p> <p>주일1부예배: 오전 7:30 주일2부예배: 오전 10:20 주일3부예배: 오전 11:30 주일4부예배: 오후 3:00 주일5부예배: 오후 5:30</p> <p>Tel. (02)2-482-3536, Fax. (02)2-488-4508 서울시 강동구 성내동 448-23</p>	<p>청주주님의교회</p> <p>담임목사: 주서택</p> <p>주일1부예배: 오전 9:00 주일2부예배: 오전 11:00 주일3부예배: 오전 2:00 주일4부예배: 오전 7:00 금요기도회: 저녁 9:00 새벽기도회: 새벽 5:30</p> <p>Tel. (043)275-9191, Fax. (043)273-8114 361-833 충북 청주시 흥덕구 사당동 259-12</p>	<p>충신교회</p> <p>담임목사: 이진호</p> <p>주일1부예배: 오전 7:00 주일2부예배: 오전 8:30 주일3부예배: 오전 10:00 주일4부예배: 오전 11:30 주일5부예배: 오후 1:30</p> <p>Tel. (02)2-793-7740 서울시 용인구 이촌동 302-67 (140-031)</p>



중국교회와 한국교회를

노봉린 박사
(ATA International Senior Advisor, Th.D)

통한 세계복음화 운동 (7)

2)외국에서 신학교육을 받는 신학생들을 위하여 Asia Graduate School of Theology(AGST) International(한국)이 2013년에 창설되었고 4개 학위(MA, Th.M., Ph.D., D.Min.)를 수여하게 되었다. AGST International은 하와이에 있는 Hawaii Theological Seminary가 ATA인가를 받은 한국 신학교들과 협조해 운영되고 있다. AGST International이 중국어 신학프로그램을 개설해 최고 수준의 학위를 수여할 수 있는 신학교육을 한국과 중국에서 마련하기를 제안한다.

Mission for Church growth Institute-KIMCHI(한국교회 성장과 선교세미나)를 마련해 중국의 중요 신학자와 교회 지도자들 한국에 초청해 한국교회의 성장, 신학교육, 선교운동을 소개하며 친교를 갖기를 제안한다. KIMCHI는 중현교회 전 담임목사 이종윤 박사가 창설했으며 매년 외국교회 지도자를 국가별로 약 30명 초청해 1주일간 한국교회 성장을 소개했다. 비용은 중국대표단이 이동경비를 부담하고 한국 신학교에서 숙식비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와 연결되었으며 홍콩에 본부를 두고 있는 전 세계중국교회협의회(Chinese Churches Coordination Office for World Evangelization-CCCOWE)와 연결돼 있다. 북미에 두개의 중요한 중국선교단체를 소개하기를 원한다. 캘리포니아(Sunnyvale)에 있는 The Great Commission Center(Thomas Wang)과 Pennsylvania(Paradise)에 있는 Ambassador for Christ(David Chow)이다. 북미의 한국교회 지도자와 중국교회 지도자의 긴밀한 동반자 관계는 특별히 중국교회 지도자 양성에 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2. 북미 한인교회에 드리는 제안

3)한국과 북미에 있는 한국 신학교들은 연장신학교육(TEE)

결론

미국 신학교내 한인들 중국 교회지도자 초청 세미나로 신학훈련 미주 한인교회와 중국교회 협력으로 45억 아시아에게 복음 전파

프로그램을 발전시키기 위하여 신학교교수 및 선교사들과 협조해 TEE프로그램을 개발해야 하고, TEE교육자료(책, 텔레비전, 라디오, 인터넷, 커리큘럼 등)를 개발해야 한다.

4)한국에 250개 신학교와 북미에 100개 한인신학교가 존재하고 있다. 이 많은 신학교와 기독교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들이 선교의 비전을 가져야 하는 필요성을 절실히 느끼게 된다. 한국교회 선교는 지교회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고 신학교 레벨에서는 대단히 미약한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므로 신학교 교수들을 위한 선교대회가 필요하며 한국에서는 KWMA, 북미에서는 KWMC/KIMNET과 협조하여 선교대회를 격년에 걸쳐서 매년 다른 신학교에서 개최하기를 원한다. 한국의 GMS, OMF, SIM과 같이 신학교 교수들로 이루어진 선교단체를 조직하여 신학교와 기독교대학에서 선교의 동력을 이끌어낼 수도 있다.

5)한국의 대형교단 신학교에서 Korean International

1)한국교회와 중국교회의 협조를 도모하기 위하여 풀러신학교(Fuller Theological Seminary)와 월드미션동서센터(East West Center for World Missions)는 북미에 있는 신학교에서 공부하고 있는 중국신학생을 풀러에 정기적으로 초청해 한국교회를 소개하는 세미나를 갖도록 제안한다.

예를 들어, 보스턴 근처에 있는 고든콘웰신학교(Gordon Conwell Theological Seminary)는 2014년 5월26-29일 북미의 13개 신학교에서 공부하는 약 50명 중국신학생을 초청해 세미나를 가졌다. 이러한 세미나를 통해 장래 중국교회 지도자가 되는 중국신학생에게 한국교회의 성장, 신학교육, 선교활동을 소개하며 한국교회와 친교를 나누어 아시아복음화에 동참하도록 노력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이다.

2)북미에 있는 4,000개 한인교회와 1,300개 중국교회의 동반자 관계를 도모하는 것은 대단히 중요하다고 본다. 북미의 중국교회는 CCCOWE-북아메리카

역사적으로 한국교회는 기독교 교육을 매우 중요하게 여겼다. 현재 중국교회의 폭발적인 성장은 훈련된 사역자와 신학교수의 심각한 부족으로 인해서 교회 지도자 영성과 같은 강력한 개혁주의 전통의 힘이 필요하다. 즉, 한국의 개혁주의 장로교회는 중국교회(가정교회와 삼자교회)와 함께 동역할 수 있어야 한다. 한국 교회는 신학교육과 해외선교에 있어서 중국교회의 모델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중국교회가 세계적으로 많은 수의 기독교 인구를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세계 복음화에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는 모두 박해와 고난을 경험했고 최근에 폭발적인 교회의 성장도 경험했다. 하나님께서는 한국교회와 중국교회를 사용하셔서 45억 아시아인(전 세계의 60%)과 다른 대륙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데 사용하실 것이다.

(끝)

인/터/뷰

찬양사역자 박혜경, bG CCM프로덕션의 첫 번째 아티스트

미주지역에 크리스천 문화를 꽃피우고자 공연 혹은 아티스트 발굴 및 각종 집회지원 등으로 활동하고 있는 단체와 기획사들이 하나 둘 탄생하고 있다. 그중 찬양사역을 보다 체계적으로 하기 위해 탄생한 bG(belongs to God) CCM Production(이하 bG, 대표 에리카정)의 첫 번째 아티스트인 박혜경 씨를 만나보았다.

최근 '하나님의 눈물'이라는 시적인 표현의 제목이 담긴 음반을 출시한 성악가 출신인 박혜경 씨는 bG의 첫 번째 찬양사역자로 이태리 밀라노에서 수학한 재원이기도 하다. 에리카정 대표는 bG를 설립하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착박한 세상에 상처입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위로를 전해줄 수 있는 보컬리스트를 찾고 있었다고 말하면서, 박혜경 씨를 만나게 되고 그녀와 교제를 나누며 1년 동안 음반녹음을 하는 과정 속에서 bG가 지향하는 비전들에 부합하



찬양사역자 박혜경

때는 항상 기쁨이 넘쳐움을 느껴요. 찬양하는 자리는 오페라 무대처럼 화려한 것은 없는데 찬양하는 게 너무 좋아요."

박혜경씨가 정 대표를 만나고 bG 소속의 찬양사역자로 음반을 취입할 때 알게 된 것은 그녀가

음반녹음과정에서도 도전받는 일도 있었다. 자폐피아니스트 서지훈 형제와 함께 찬양할 때다.

"지훈 형제를 보면 제 자신이 부끄러워질 때도 있고 도전이 되기도 해요. 왜냐하면 지훈 형제는 곡 하나를 연주하는데 완벽하

밀라노 수학, 장래가 기대되는 성악가 어머니의 9년 숨은 기도로 찬양사역자로 돌아와

는 사역자라는 확신을 갖게 됐다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박혜경 씨와 교제하면서 느끼게 되는 건 감사를 잃지 않는 모습이예요. 무엇보다 순수하시고 솔직한 모습에 혜경 씨를 볼 때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고 계시다는 걸 느끼게 되고요"라고 말했다.

박혜경 씨가 찬양사역자의 길을 가게 된 것은 찬양이 주는 기쁨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녀는 이태리에서 유학생활, 그리고 라보엠, 카밀라 등 오페라 공연을 하며 스포트라이트도 받아봤지만 오페라 등 성악가로 활동할 때의 기쁨보다 교회에서 찬양할 때 받게 되는 기쁨이 더 크다고 언급했다. "이태리에서 6년반 동안 활동할 때 장래가 기대되는 소리를 들었고 각종 오페라에 출연도 했었어요. 성악가들에게는 오페라 무대에서 프리마돈나가 되는 로망이 있거든요. 저 역시 그랬고, 실제로 프리마돈나도 해봤어요. 그런데 막상 무대에서 내려오면 아무리 공연이 훌륭했어도 아쉬움이 남기도 하고 허전함이 밀려오기도 해요. 그러나 찬양할

찬양사역자의 길을 가기위해 어머니의 기도가 있었다는 것이다.

"어머니께서 저를 위해 기도하고 계셨다는 건 알지 못했었어요. 제가 성악공부를 하고 있을 때 이미 찬양사역을 염두에 두시고 기도하셨던 거죠. 무려 9년 가까이 기도하시고 계셨어요. 이 모든 것을 제가 어머니하고 찬양사역에 대하여 대화할 때 알게 됐습니다. 찬양사역한다고 말씀드렸더니 '할렐루야'를 외치시며 좋아하셨으니까요."

박혜경씨는 자신이 bG 에리카정 대표를 만나게 된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고 말했다. 그것은 우연같이 발생한 예배 특송시간이었다고 회상했다.

"예배시간에 특송을 맡았던 분이 개인사정이 생겨서 교회에 나오지 못한 일이 발생했어요. 그때 제가 대타로 특송을 하게 됐는데 청중석에 정 대표님이 계시어요. 제가 찬양하는 모습을 유심히 보고 그것이 계기가 돼 bG에서 찬양사역자로 활동하게 됐어요. 우연이었지만 하나님께서 전문찬양사역자의 길로 가도록 인도하신 것입니다."

게 외워서 연주를 해요. 음 하나 하나 실수가 없을 정도로 연주하는 걸 보면 피나는 연습을 통해 반주를 했다는 것이 느껴지거든요. 그 모습을 보면서 많은 것을 느껴요. 저는 그저 하나님께서 주신 목소리를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사람들의 기쁨을 주기 위해 노래해왔었다는 것을 깨닫게 됐지요."

부산 맘미제일교회 원로 박광의 목사의 딸인 박혜경 씨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에 감사하며, 저의 찬양을 통해 많은 이들이 치유되고 하나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일어나는 도구로 쓰임받기를 원한다"며, "자신의 사역을 통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와 사랑이 흘러넘치게 되길 소원한다고 말했다.

박혜경 씨의 음반 '하나님의 눈물'은 bgccmproduction.com에서 들을 수 있으며 CD구입에 대한 문의는 info@bgccmproduction.com으로 하면 된다. 특별히 홈페이지에서는 한국어 가사 외에 영어와 스페인어어도 볼 수 있다.

(박준호 기자)

You Can Do! in LA

온라인만으로 대한민국 4년제 정규학위 취득! 온라인대학교

미국에서 한국어로 4년제 대학강의를 들을 수 있는 기회!
24시간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 강의로 쉽고 편리하게!
온라인대학교를 만나면 당신의 내일이 더 빛날 것입니다.

- 시공간 제약이 없는 편리한 온라인 강의
- 한국어로 4년제 정규학위 취득 가능
- 저렴한 등록금과 풍부한 장학금 지원
- 대학원 진학, 취업 등 다양한 기회 확보

미국 LA 교육설명회

1차 교육설명회

- 일시 : 12/6(토) 14:00
- 장소 : LA월드미션대학 채플룸
(World Mission University, Chapel Room)
- LA월드미션대학 주소
: 500 Shatto Pl, #600, Los Angeles, CA 90020
- LA월드미션대학 홈페이지
: http://www.wmu.edu

2차 교육설명회

- 일시 : 12/8(월) 14:00
- 장소 : LA한길교회 (The Way Church)
- LA한길교회 주소
: 4050 W. Pico Blvd, Los Angeles, CA 90019
- LA한길교회 홈페이지
: http://churchtheway.com

※ 연락처 : [TEL. : (818) 251-0905]
[E-Mail : kcou2012@naver.com]

